기쁨의 언덕으로 edSant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NNA

우리는 기토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때 기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일을 하기전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 ^{오스왈트 캠}리스

We pray when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Jesus wants us to pray before we do anything at all.





Dear Lord 주님,

From December 2021, 12월에는

Time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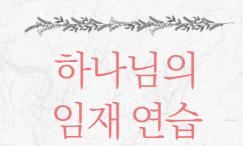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mark>로렌스 형제</mark>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면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열다섯 번째 편지

FIFTEENTH LETTER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동일하게 그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 안다면, 그가 하시는 일이 달던 쓰던 간에 가리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고통은 절대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라리게 다가온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분은 고통을 덜어 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아프게 하시는 그분이 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FATHER)'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괴로움은 그 쓰라림(bitterness)을 잃게 되고, 심지어 위안(consolation)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임무(employment)는 하나님을 아는 것(to know GOD)이어 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지요. 보통 상대방을 얼마나 아

는지를 가지고 사랑을 측정(the measure of love)한다고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욱 깊고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사랑 역시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위대하다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in pains and pleasures) 똑같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혹은 앞으로 베푸실 어떤 상당한 은혜(sensible favours)에 겨워(그것이 얼마나 높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거나(seek)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한 은혜는 아무리 크다 한들 단순한 믿음의 행동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그분을 찾지 맙시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불쾌해하실 하찮은 일들(trifles)에 빠진 채 그분을 홀로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버릇없는 사람들이며, 비난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시한 것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겠기에우리는 두려워해야합니다.

성실함으로 그분께 헌신하기를 시작합시다. 그 외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몰아냅시다. 그래야 그분 홀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 은총을 간구하세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곧 우리가 열망하던 변화(change)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고통을 완화(relaxation)시켜 주셨다니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나는 그분의 자비로 며칠 후면 그분을 뵙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틀후, 그(로렌스 형제)는 자리에 누웠고, 그주에 세상을 떠났다. 로렌스(로랭) 형제의 본명은 '니꼴라 에르망(Nicholas Herman)'으로,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 덟살 되던 겨울 어느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수도원에 입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참전했던 30년 전쟁(1618~1648년)에서 독일군의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고초를 겪었다. 퇴역 후에는 절름거리는 다리로 인해심부름꾼으로나일할수 있을 뿐이었다.

이후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간 그는, 새로 '부활의 로렌스(Lawrence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로랭)'라는 수사명을 얻었다.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 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이었다.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파리 대주교 (Archbishop of Paris) 소속, 주교 대리 법무관(vicar general)이 된 보포르 신부(Father Joseph de Beaufort)도 있었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 사후, 보포르 신부가 그와 나는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책으로 낸 것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크리스 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❶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② 통독본문

3년 1독<mark>을을</mark>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01

January ⊐ Fri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국상본문 Meditation

 장언 Proverbs 2:1-12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6

2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휴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 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장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 고 구혜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

잠언 1

- 6 1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2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 단게하며
 - 3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 4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 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 5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 6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 아 알 수 있을 것이다.
 - 7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어리석은 사람 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 8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 9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 걸이이다.
 - 10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 11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 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 12 스올처럼 그들을 산 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 13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 14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 15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 16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달으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 본문길라잡이(BibleClip) 2,000개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1-2

- ¹The proverbs of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 ²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to understand words of insight.
- 3 to receive instruction in wise dealing, in righteousness, justice, and equity;
- 4 to give prudence to the simple, knowledge and discretion to the youth--
- ⁵ Let the wise hear and increase in learning, and the one who understands obtain guidance,
- $^{\rm 6}$ to understand a proverb and a saying, the words of the wise and their riddles.
- 7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 8 Hear, my son, your father's instruction, and forsake not your mother's teaching,
- $^{\rm 9}$ for they are a graceful garland for your head and pendants for your neck.
- 10 My son, if sinners entice you, do not consent.
- ¹¹ If they say, "Come with us, let us lie in wait for blood; let us ambush the innocent without reason;
- $^{\rm 12}$ like Sheol let us swallow them alive, and whole, like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 $^{\rm 13}$ we shall find all precious goods, we shall fill our houses with plunder;
- 14 throw in your lot among us; we will all have one purse"--
- $^{15}\,\mathrm{my}$ son, do not walk in the way with them; hold back your foot from their paths,
- 16 for their feet run to evil, and they make haste to shed blood.



6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영한 대역(ESV/새번역)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 본문길라잡이(Bible Clip)

성경을 읽는 데 방해되는 어려운 단어를 풀이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②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③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왕커지자한민한참리교회 공원제(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22

어디이이 쓰기

Voices from The Hill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장인의 히브리어 단어 '마살'은 '-와 같다', '비유'로 번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양정한 패턴들의 교훈을 건강하게 담은 휴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바 늘 '장'에 말씀 '안'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이란 뜻이지 요. 슬로모음 비롯한 자해자들은 살을 깊이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 견하였습니다. 2정에서 슬로몬은 "이이들이"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3~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세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아입니다 (마가:11), 지혜물 일으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녹여야 하고 보하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산을 돌아보면 외일로 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화되면 여기되는 않기 때문입니다.

장안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쳐서 되도 명칭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만든 자근 구하고 찾고 결국 안례 테니다. 그러나 문서에 지혜는 하나인이 친히 주시는 선물이자(6 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al" and means "__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ondr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life. In Chinese, it is Rig. BamEu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wis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ke when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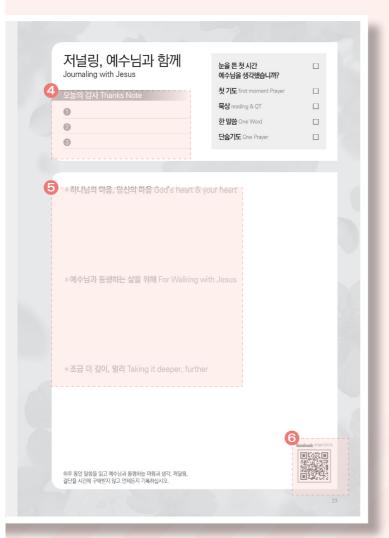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sake thim, (Matt 7:1) if we want to gain wisdom, then we must sa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wisdom. We must raise our vo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o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wis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wis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at we need wisdom to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have. Wisd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 본문길라잡이(BibleClip) 2,000개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⑤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지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하니다. 아빠\ 얼마\ 첫째 \ 두째 후은 지에서 키가 크스 서를 따라. 느래

선도는 안사님인 하는 것이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들 따라 문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December

12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5	6	누가복음 Luke 6장 □	7	누가복음 Luke 7장 □	
12	13	누가복음 Luke 12장 □	14	누가복음 Luke 13장 □	
19	20	누가복음 Luke 18장 □	21	누가복음 Luke 19장 □	
26	27	누가복음 Luke 20장 □	28	누가복음 Luke 21장 □	

WED	NESDAY	THU	RSDAY	F	RIDAY	SAT	URDAY
1	누가복음 Luke 3장 □	2	누가복음 Luke 4:1-13 □	3	누가복음 Luke 4:14-44 □	6	누가복음 Luke 5장 □
8	누가복음 Luke 8장 □	9	누가복음 Luke 9장 □	10	누가복음 Luke 10장 □	13	누가복음 Luke 11장 □
15	누가복음 Luke 14장 □	16	누가복음 Luke 15장 □	17	누가복음 Luke 16장 □	20	누가복음 Luke 17장 □
22	누가복음 Luke 1:1-38 □	23	누가복음 Luke 1:39-80 🏻	24	누가복음 Luke 2:1-21 □	27	누기복음 Luke 2:22-52 🗆
29	누가복음 Luke 22장 □	30	누가복음 Luke 23장 □	31	누가복음 Luke 24장 □		
				S M T 1 2 7 8 9 14 15 16	W T F S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4 25 26 27	S M T 2 3 4 9 10 11 16 17 18	anuary W T F S 1 5 6 7 8 12 13 14 15 19 20 21 22 26 27 28 29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누가복음

당신을위한좋은소식은?

누가복음은 신약에 기록된 4개 복음서들 중 가난한 자, 이방인, 세리, 여성 등 종교, 사회적으로 소외 당했던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불립니다. 또한 예수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해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수려한 헬라어로 기록돼 문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이 예수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나 저자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쓰인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2세기 후반부터 전통적으로 바울의 동료였던 의원누가 가 사도행전을 쓰기 직전인 A.D. 60-62년경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됐다고 밝히고 있는 누가복음의 어느 곳에도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익명의 이방인 저자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인 80년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권의 책인가?

누가복음은 원래사도행전과같이 쓰인, 2부작으로 된 연작집의 첫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입니다(눅 1:1-4, 행 1:1-5).

비록 두 권의 책이 함께 이어진 사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두 책이 본래 한 권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초대 교부들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누가-행전으로 존재했던 한 권의 책이 두 권으로 분리된 이유는 내용상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어울리는 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루는 내용의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출생-사역-최후로 이어지는 예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서보다로마서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들과 관련이 있는 사도행전이 별도의 책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24장으로 이뤄진 누가복음과 28장으로 이뤄진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묶였을 경우 총 52장으로 신약성경의 1/4을 차지할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전진하는 복음의 운동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향적 운동성"을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단히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부활 이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두 권의책안에서 복음의 운동, 복음의 진행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었습니다 (4:43). 그 내용은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은혜의 다스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증언의 대상은 이사야의 예언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입니다.

누가가관심을 가진 사람은?

죄인에게 복음을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중에 세리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여인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과부에 대한 관심도 역시 두드러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관심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전혀 예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죄책감에 짓눌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는 허위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한에서만 복음이 될수 있고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의 목적은 죄인을 찾아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선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삶의비밀?

성령과기도

누가복음이 관심 갖고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의 비밀은 "성령"과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1:35), 성령의 세례(3:22)를 기점으로 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광야 시험을 인도하였고(4:1),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증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4:14). 권세 있는 사역의 원천도, 지혜 있는 가르침의 원천도 모두 성령이었음을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공적인 증언활동을 할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1; 5:16; 6:12; 9:18, 28-29, 10:21; 11:1; 22:32, 41-45; 23:34, 46). 모두 중요한 수가들 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에서 교회, 즉 예수님의 공동체는 당연히 "증인공동체" 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때, 예수의 증인 공동체는 땅끝까지 찾아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해설성경(대한기독교서회)

Luke Johnson,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Fortress Press)

신양공동체를 위한 신약성서 이해(성서연구사)

뉴 인터프리터 스터디 바이블(Abingdon Press)

December 수 Wed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3:1-6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 의 출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실 새로운 시대를 알 리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세례 요한의 출현(1-6절); (2) 세례 요한의 사역(7-20절); (3) 예 수 그리스도의 세례(21-22절); (4)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23-38절).

누가복음 3장

- 1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 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 네를 다스리고,
- 2 악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 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 3요한은 요단 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 4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 5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 6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 7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 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고 일러주더냐?
- 8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 9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 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속에 던지신다."
- 10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 니까?"

Reading insigh

Luke 3 introduces John the Baptist as the prophet ahead of Jesus Christ and the new era led by Jesus Christ. This chapter consists of four sections: (1) the appearance of John the Baptist (3:1–6); (2)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3:7–20); (3) the baptism of Jesus Christ (3:21–22); and (4) the lineage of Jesus Christ (3:23–38).

Luke 3

-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Pontius Pilate being governor of Judea, and Herod being tetrarch of Galilee, and his brother Philip tetrarch of the region of Ituraea and Trachonitis, and Lysanias tetrarch of Abilene,
- ² during the high priesthood of Annas and Caiapha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the son of Zechariah in the wilderness.
- ³ And he went into all the region around the Jordan, proclaim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 ⁴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 ⁵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made low, and the crooked shall become straight, and the rough places shall become level ways,
- 6and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 7 He said therefore to the crowds that came out to be baptized by hi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 Bear fruits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God is able from these stones to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 ⁹Even now the axe is laid to the root of the trees. Every tree therefor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 10 And the crowds asked him, "What then shall we do?"

Bible Clip

눅 LUK 3:1

분봉왕 (tetrarch, 分封王)

황제에게서 땅을 분배 받아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봉해진 왕을 가리킨다. 당 시 로마 통치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는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 아들 헤롯 왕을 포함해서 3명의 분봉왕이 있었다.

눅 LUK 3:8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본문 10-14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자족할줄 아는 삶이 그것이다. 성도는 자신이서 있는 자리에서 그의 주변 사람들의 곤경과 권리에 주의하고 자기 희생과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눅 3:8)

-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 12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 13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 14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 15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 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하였다.
- 16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 17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 **18**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 19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 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 을 받았고,
- **20**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 둔 것이다.
- 21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 22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하다."
- 23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 24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맛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Mamo

- 11 And he answered them, "Whoever has two tunics is to share with him who has none, and whoever has food is to do likewise."
- 12 Tax collectors also came to be baptized and said to him, "Teacher, what shall we do?"
- 13 And he said to them, "Collect no more than you are authorized to do"
- 14 Soldiers also asked him, "And we, what shall we do?" And he said to them, "Do not extort money from anyone by threats or by false accusation, and be content with your wages."
- 15 As the people were in expectation, and all were questioning in their hearts concerning John, whether he might be the Christ.
- **16** John answered them all, saying,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he who is mightier than I is coming, the strap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 17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to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to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 18 So with many other exhortations he preached good news to the people.
- ¹⁹But Herod the tetrarch, who had been reproved by him for Herodias, his brother's wife, and for all the evil things that Herod had done.
- ²⁰added this to them all, that he locked up John in prison.
- ²¹Now when all the people were baptized, and when Jesus also had been baptized and was praying, the heavens were opened,
- 22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 23 Jesus, when he began his ministry, was about thirty years of age, being the son (as was supposed) of Joseph, the son of Heli,
- ²⁴the son of Matthat, the son of Levi, the son of Melchi, the son of Jannai, the son of Joseph,

- 25맛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낙개,
- 26마앗, 맛다디아, 세메인, 요섹, 요다,
- 27요아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 28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 29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맛닷, 레위,
- 30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 31멜레아, 멘나, 맛다다, 나단, 다윗,
- 32이새,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 33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 34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 35스룩, 르우, 벨렉, 에벨, 살라,
- 36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 37 므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 **38**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 25 the son of Mattathias, the son of Amos, the son of Nahum, the son of Esli, the son of Naggai,
- 26 the son of Maath, the son of Mattathias, the son of Semein, the son of Josech, the son of Joda,
- 27 the son of Joanan, the son of Rhesa, the son of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the son of Neri,
- 28 the son of Melchi, the son of Addi, the son of Cosam, the son of Elmadam, the son of Er,
- 29 the son of Joshua, the son of Eliezer, the son of Jorim, the son of Matthat, the son of Levi,
- 30the son of Simeon, the son of Judah,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Jonam. the son of Eliakim,
- 31 the son of Melea, the son of Menna, the son of Mattatha, the son of Nathan, the son of David,
- 32the son of Jesse, the son of Obed, the son of Boaz, the son of Sala, the son of Nahshon,
- 33 the son of Amminadab, the son of Admin, the son of Arni, the son of Hezron, the son of Perez, the son of Judah,
- 34the son of Jacob, the son of Isaac,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Terah, the son of Nahor,
- 35the son of Serug, the son of Reu, the son of Peleg, the son of Eber, the son of Shelah,
- **36**the son of Cainan, the son of Arphaxad, the son of Shem, the son of Noah, the son of Lamech,
- 37 the son of Methuselah, the son of Enoch, the son of Jared, the son of Mahalaleel, the son of Cainan,
- 38 the son of Enos,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로마의 디베료 황제가 통치할 때, 유대의 총독과 갈릴리의 분봉왕 으로 재직했던 자들은 각각 누구 입니까? (1절)

During the reign of Roman emperor Tiberius, who was the governor of Judah and the tetrarch of Galilee? (3:1)

누가복음서 기자는 요한이 전파 한 세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How did the author of the Book of Luke describe the baptism that John had ministered? (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mark>새시대, 새 마음</mark> New Era. New Heart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길이 예비되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을 보았습니다(사 40:3-5).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으로써, 세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과 맞닥뜨릴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가실 새로운 시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사건의 주역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새 시대에 합당한 새 마음을 갖는 일인데, 그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으로써, 우선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파한 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환대를 베풀며, 거짓을 멈추는 것입니다(숙 3:11-14).

Prophet Isaiah prophesied a long time ago about the appearance and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and called it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Isaiah saw such a way prepared for the LORD as each valley was filled in,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crooked roads became straight, and the rough ways smooth (Isa 40:3-5). This event was as if the sky opened and the ground was torn apart. John the Baptist proclaimed to the people of Judah to be prepared thoroughly to experience this enormous event which was directly related to the new era being opened by Jesus Christ. In order to receive a new era, more than anything, we need to have a new mind. Of course, the protagonist of the event was not John the Baptist but Jesus Christ. In other words, only Jesus Christ could open a new era. Then what we need to do is to have a new mind fit for a new era, that is, to have resolve for a new life. As a first step, we not only need to thoroughly repent our sins but also we need to produce good fruits of our repentance. As proclaimed by John the Baptist, we need to actively do good works, exercise hospitality, and stop lying (Luke 3:11-14).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 ASSE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목 Thu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Jesus tempted by the devil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4:1-12



새400장(통463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Jesus' sonship) 에 대한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물 질적인 필요를 공급할 수 있었고,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들 에 대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모든 위험을 충분히 물리치 고 방호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은 오직 아 버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선언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누가복음 4:1-13

- 1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 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 2사십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기간이 다하옆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 3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 4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 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 5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 6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 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 7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 게 주겠다."
- 8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 9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 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 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 10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 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 11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 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 12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 13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 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Reading insigh

Three temptations by the devil were to test Jesus' Sonship of God. As the Son of God, Jesus was able to supply all the material needs of the people, and as the king of the kings he could have exercised his power over all nations. He had enough power to protect himself by fending off all dangers. By proclaiming that those powers belong to only God, Jesus fended off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Luke 4:1-13

- And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 ² 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were ended, he was hungry.
-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is stone to become bread."
- ⁴And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 5 And the devil took him up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in a moment of time,
- 6 and said to him, "To you I will give all this authority and their glory, for it has been delivered to me, and I give it to whom I will.
- 7If you, then, will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 8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 ⁹ And he took him to Jerusalem and set him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 10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 11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lest you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 12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said,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 13 And when the devil had ended every temptation, he departed from him until an opportune ti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귀가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What was the devil's first temptation of Jesus who had fasted for forty days in the desert? (4:3)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9-11절)

What was the devil's temptation of Jesus at the top of the temple in Jerusalem? (4:9-11)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비젼교회, 박관우(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차자 마귀 The Devil called "Cha Cha"

마귀의 시험(유혹, temptation)은 끈질긴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런 후,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13절). 이 구절은 마귀가 언제라도 다시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 사부자(四父子)가 신자들을 미혹할 방법을 토의했습니다. 큰아들 마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귀는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하면 어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마귀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마귀가 "그 것도 안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어찌 아니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셋째 아들 마귀가 제안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것을 천천히 믿겠다고 하도록 미혹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귀와 나머지 두 형제 마귀가 다 찬성하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일을 천천히 하라고 유혹하는 '차차 마귀'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Perseverance is a characteristic of the devil's temptations. The devil who tested Jesus did not stop after the first temptation but tried a second and third time. Even then, the devil did not retreat completely.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4:13). This phrase reveals that the devil could reappear any time to test Jesus again.

One day, the father and three sons of the devil family discussed ways to tempt believers. The oldest devil son first suggested, "Let us claim that there is no God in the world." But the father devil challenged him by saying, "That will not work. How can we say that there is no God when there is God?" Then the second oldest devil son said, "Let us claim that Jesus is not the son of God." Then the father devil challenged again, "That will not work either. Jesus is clearly the son of God, how can we deny that?" At last, the third devil son suggested, "Let us claim that there is God and Jesus is the Son of God but let us tempt them to believe those truths slowly." Then the father devil and the other two devil sons agreed and declared it to the world. The devils can now be named "Slow-Slow-devil" because they tempt believers to believe Jesus slow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영기품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금 Fri

예수님의 첫 설교

The first sermon of Jesus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4:16-24



새96장(통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 와 그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14-30절),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31-37절). 그리고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과 더불어 온갖 병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38-41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하나 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 님의 주요 사역이었다.

누가복음 4:14-44

- 14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 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 15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 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 16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 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 고일어서서
- 17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 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 18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 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 19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 20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 22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 23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 24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 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the first sermon of Jesus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and the reaction of the people(4:30).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story of a man possessed by a demon being healed when Jesus was preaching at the synagogue in Capernaum(4:31–37). The third part is about healing Simon Peter's mother—in—law's high fever and the sickness of many other people(4:38–41). Proclaiming the Word of God, teaching, and healing sick people were the primary ministries of Jesus.

Luke 4:14-44

- 14 And Jesus return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to Galilee, and a report about him went out through all the surrounding country.
- 15 And he taught in their synagogues, being glorified by all.
- 16 And he came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as was his custom, he went 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and he stood up to read.
- ¹⁷An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given to him. He unrolled the scroll and found the place where it was written,
- 18"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 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 ²⁰ And he rolled up the scroll and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And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 ²¹ And he began to say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 22 And all spoke well of him and marveled at the gracious words that were coming from his mouth. And they said, "Is not this Joseph's son?"
- 23 And he said to them, "Doubtless you will quote to me this proverb, 'Physician, heal yourself.' What we have heard you did at Capernaum, do here in your hometown as well."
- ²⁴And he said, "Truly, I say to you, no prophet is acceptable in his hometown.

Bible Clip

눅 LUK 4:19

은혜의 해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뜻한다(레 25:10). 예수님이 오셔서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다시 선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인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의 희년이 주어졌다. 여기서 '은혜의해'는 영어성경 NIV-the year of the Lord's favor로 표기되어 있다.

- 25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 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 26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 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 부에게만 보내셨다.
- 27도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 28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 29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 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 31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 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 **32**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 33 그 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 34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 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 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 35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 36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 37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 38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 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 39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 25 But in truth, I tell you, there were many widows in Israel in the days of Elijah, when the heavens were shut up three years and six months, and a great famine came over all the land.
- ²⁶ and Elijah was sent to none of them but only to Zarephath, in the land of Sidon, to a woman who was a widow.
- 27 And there were many lepers in Israel in the time of the prophet Elisha, and none of them was cleansed, but only Naaman the Syrian."
- ²⁸When they heard these things, all in the synagogue were filled with wrath.
- 29 And they rose up and drove him out of the town and brought him to the brow of the hill on which their town was built, so that they could throw him down the cliff.
- 30 But passing through their midst, he went away.
- 31 And he went down to Capernaum, a city of Galilee. And he was teaching them on the Sabbath,
- **32** and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is word possessed authority.
- 33 And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who had the spirit of an unclean demon, and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 34 "Ha!What have you to do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v One of God."
- 35But Jesus rebuked him, saying, "Be silent and come out of him!" And when the demon had thrown him down in their midst, he came out of him, having done him no harm.
- **36** And they were all amazed and said to one another, "What is this word? For with authority and power he commands the unclean spirits, and they come out!"
- **37** And reports about him went out into every place in the surrounding region.
- **38** And he arose and left the synagogue and entered Simon's house. Now Simon's mother-in-law was ill with a high fever, and they appealed to him on her behalf.
- 39 And he stood over her and rebuked the fever, and it left her, and immediately she rose and began to serve them.

- 40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 41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 42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 43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 44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 40 Now when the sun was setting, all those who had any who were sick with various diseases brought them to him, and he laid his hands on every one of them and healed them.
- 41 And demons also came out of many, crying, "You are the Son of God!" But he rebuked them and would not allow them to speak, because they knew that he was the Christ.
- 42 And when it was day, he departed and went into a desolate place. And the people sought him and came to him, and would have kept him from leaving them,
- 43 but he said to them, "I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o the other towns as well; for I was sent for this purpose."
- 44 And he was preaching in the synagogues of Judea.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누구의 글이 기록된 성경을 찾아 읽으셨습니까? (17절)

When Jesus went to the synagogue in Nazareth, what part of the Bible did Jesus read? (4:17)

나사렛 회당에서 행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 니까? (23-24절)

What did Jesus say after he heard the reaction of the people who had heard his sermon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4:23-24)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생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수님을 보는 눈

People's insight to recognize Jesus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청중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 서도 다른 한편,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빈정거렸습니 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서 그저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평소 생각을 드 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인 물이나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 셉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 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유대민족만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은 어느한 지역이나 특정 인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Upon hearing Jesus' sermon, the audience was amazed at the gracious words but at the same time sarcastically commented. "Isn't this Joseph's son?" In other words, this comment reveals their prevailing thoughts refusing to treat Jesus as the Son of God but as Joseph's son, just a common man like themselves. People often fail to look at certain people or events with a deeper and wider sense of understanding because of their prejudices or stereotypes. Jesus was the Son of God before he was the son of Joseph. Jesus did not come just for the people of Nazareth. Jesus did not come just for the people of Judah either. Jesus came for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he salvation brought by Jesus was not limited to just a certain region or a certain race. The salvation was universal and ordinary. The people of Nazareth misunderstood Jesus and, as a result, they did not rightly believe Jesus. They ended up driving him out of town and took him to the brow of the hill to throw him down the cliff.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토 Sat

죄인의 구워자. 예수 그리스도

The Redeemer of sinners.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5:27-32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이야기(1-11 절),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12-26절), 그리고 세리 레위(마태로 알려진)를 부르신 이야기와 더불어 혼인 집 손 님들과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33-39절)이 나오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으시고, 그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 셨다.

누가복음 5장

- 1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 때에 무리가 예 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 2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 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 3예수께서 그 배 가우데 하나인 시모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묻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 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 4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 5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 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 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 6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 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 7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 8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 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 9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 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 10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 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 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 11그들은 배를 뭍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 라갔다.

Reading insigh

Luke 5 recorded the stories of Jesus first calling the disciples(5:1–11), Jesus healing the leper and paralytic(5:12–26), Jesus calling the tax collector Levi(aka Matthew), and the wedding guests and the parable of new wine(5:33–39). As Jesus opened the new world leading to the Kingdom of God, he called and made disciples to invite them to the new world.

Luke 5

- On one occasion, while the crowd was pressing in on him to hear the word of God, he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 ² and he saw two boats by the lake, but the fishermen had gone out of them and were washing their nets.
- ³Getting into one of the boats, which was Simon's, he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the land.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 4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 ⁵ And Simon answered, "Master, we toiled all night and took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s."
- ⁶ And when they had done this, they enclosed a large number of fish, and their nets were breaking.
- 7 They signaled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the boats, so that they began to sink.
- But when Simon Peter saw it, he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ful man, O Lord."
- ⁹ For he and all who were with him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at they had taken,
- 10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 ¹¹ And when they had brought their boats to land,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Bible Clip

눅 LUK 5:10

사람을 낚을 것이다 (you will catch men)

살아있는 것을 사로잡는다'는 의미이다. 고기를 잡듯이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사람을 낚을 것이다'는 영어성경 NIV-will fish for people로 표기되어 있다.

수 있습니다." 13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12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 14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 15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 16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 17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예수께서 는 병을 고치셨다.
- 18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 19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 20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 21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 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 각하기 시작하였다.
- **22**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 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 23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 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 냐?
- 24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치워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 25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 상을 거두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Bible Clip

눅 LUK 5:17

율법교사 (teachers of the law)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학자. 서기 관의 다른 명칭이다(마 2:4, 22:35).

- 12While he was in one of the cities, there came a man full of leprosy. And when he saw Jesus, he fell on his face and begged him, "Lord,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 13 And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will; be clean." And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 14 And he charged him to tell no one, but "go and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make an offering for your cleansing, as Moses commanded, for a proof to them."
- 15 But now even more the report about him went abroad, and great crowds gathered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infirmities
- 16 But he would withdraw to desolate places and pray.
- 17 On one of those days, as he was teaching,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were sitting there, who had come from every village of Galilee and Judea and from Jerusalem. And the power of the Lord was with him to heal.
- 18 And behold, some men were bringing on a bed a man who was paralyzed, and they were seeking to bring him in and lay him before Jesus,
- 19 but finding no way to bring him in, because of the crowd, they went up on the roof and let him down with his bed through the tiles into the midst before Jesus.
- 20 And when he saw their faith, he said, "Man, your sins are forgiven you."
- 21 And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gan to question, saying, "Who is this who speaks blasphemies?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 **22** When Jesus perceived their thoughts, he answered them, "Why do you question in your hearts?
- 23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you,' or to say, 'Rise and walk'?
- 24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he said to the man who was paralyzed--"I say to you, rise,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 25 And immediately he rose up before them and picked up what he had been lying on and went home, glorifying God.

Bible Clip

눅 LUK 5:30

세리 (tax collector, 稅吏)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상납하던 관리이다. 세금 이상의 돈을 거두어 착복하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 **26**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 27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 28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 29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 30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 32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 시키러 왔다."
- 33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 34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 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 **35**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 36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 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 37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 38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 39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 26 And amazement seized them all, and they glorified God and were filled with awe, saying, "We have seen extraordinary things today."
- 27 After this he went out and saw a tax collector named Levi, sitting at the tax booth.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 28 And leaving everything, he rose and followed him.
- ²⁹ And Levi made him a great feast in his house, and there was a large company of tax collectors and others reclining at table with them
- **30**And the Pharisees and their scribes grumbled at his disciples, saying,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 31 And Jesus answered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 32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 33 And they said to him, "The disciples of John fast often and offer prayers, and so do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but yours eat and drink."
- **34** And Jesus said to them, "Can you make wedding guests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 **35** The days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is taken away from them, and then they will fast in those days."
- 36He also told them a parable: "No one tears a piece from a new garment and puts it on an old garment. If he does, he will tear the new, and the piece from the new will not match the old.
- 37 And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he does, the new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it will be spilled, and the skins will be destroyed.
- 38But new wine must be put into fresh wineskins.
- 39 And no one after drinking old wine desires new, for he says, 'The old is go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

When Jesus said "Follow me" to Levi who was sitting at the tax booth, what was Levi's reaction? (5:28)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 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 시느냐"고 비방하자 예수님이 그 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1~32절)

When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complained to the disciples,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what was Jesus' response? (5:31–32)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교회, 의인들의 집합소?

Church, is it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예수님 당시에 이른 바, 자기-의에 몰입되어 '경건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 모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병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는 구원자(의사)가 절실하다 판단하고 자신이 바로 죄인의 구원자로 세상에 왔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내가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32절).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과연 의인들만 모인 곳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속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불신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의'에 함몰될 위험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 3:17). 그리스도인들 모두 여전히 죄인입니다. 전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At the time of Jesus, the Pharisees of "bogus godliness" labeled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s "sinners" and treated them as if they had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But Jesus believed that because they were sinners (the sick), they badly needed the redeemer (the doctor) and proclaimed that he himself came to this world as the redeemer of the sinners.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5:32) But then, is the present day church a place of an assembly of the righteous only? Of course, the followers of Jesus are forgiven of their sins and are the people of righteousness by the grace of God.

From that point of view, a church may be called an assembly of the righteous. However there is a trap to this statement. That is, there is a hidden danger to fall into "self-claimed righteousness" where—as treating outsiders (non-believers) as sinners. For example, the church in Laodicea had fallen into this type of trap.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Rev 3:17) All Christians are still sinners. Christians are not righteous without the need for repentance but are sinners who are forgiven of sins by the grac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지 그 그 그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송종남목사(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매년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교회력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인데,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강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소풍가는 날을 기다리고, 운동회 날을 기다리고 명절날을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뻤던지요. 하나의 기다림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에서 우리는 자랐고, 어른이 되었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기다림은 곧 기쁨이고 소망인데 기다림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슬프고 삭막한지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조차 안 하면서 온통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주인은 쏙 빼놓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12월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라고 온통 야단들입니다. 말 안 해도 다 아는, 가까운 곳에 있는 유명한 Garden에는 추수감사절 주간부터 거의 한 달 반 동안 온갖 호화찬란한 전등으로 장식을 해 놓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분명히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만든 장식들인데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없고, 그냥 전등으로 불꽃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즐기게 하는 것이 늘 안타 깝기만 합니다.

어디 그 Garden뿐이겠나 싶습니다. 요즘 사회 풍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5개의 대강절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5개의 초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둘러보면 지난 한 해, 참 어수선하고 복잡했고 어두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대강절초를 밝히며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담아서 불을 밝힙니다. 우리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불을 밝힙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기쁘고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December 월 Mon

열 두 제자를 택하심

The Twelve Disciples were chosen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6:12-19



(복음성가) 나는 비록 약하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 해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천명하셨고(1-5 절),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6-11절). 그 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신 후,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12-19절), 평지에서 여러 교훈들을 들 려주셨다(20-49절)

누가복음 6장

- 1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 러데 그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 2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 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 3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 4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 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 았느냐?"
- 5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 6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 7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 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 8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 서 섰다.
- 9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 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 10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 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 11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 논하였다.

Reading insigh

On the Sabbath, to the Pharisees who were judging the disciples of Jesus picking the heads of grain and eating, Jesus declared,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6:1–5). On another Sabbath, to the Pharisees who judged Jesus healing a man with shriveled right hand, Jesus declared,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6:6–11) After that, Jesus went to the mountain and prayed all night, picked twelve disciples (6:12–19) and continued his many teachings in the towns (6:20–49).

Luke 6

- ¹On a Sabbath, while he was going through the grainfields, his disciples plucked and ate some heads of grain, rubbing them in their hands.
- ²But some of the Pharisees said, "Why are you doing what is not lawful to do on the Sabbath?"
- ³ And Jesus answered them, "Have you not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hungry, he and those who were with him:
- 4 how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took and ate the bread of the Presence, which is not lawful for any but the priests to eat, and also gave it to those with him?"
- ⁵ And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 ⁶ On another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and a man was there whose right hand was withered.
- 7 And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atched him, to see whether he would heal on the Sabbath, so that they might find a reason to accuse him.
- But he knew their thoughts, and he said to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Come and stand here." And he rose and stood there.
- 9 And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is it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harm,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 10 And after looking around at them all he said to him, "Stretch out your hand." And he did so, and his hand was restored.
- ¹¹But they were filled with fury and discussed with one another what they might do to Jesus.

Bible Clip

눅 LUK 6:15

열심당원 (the Zealot)

헤롯 대왕 당시 조직되어 이스라엘 내에서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자 결성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다.

- 12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 13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 는데.
- 14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 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 15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도 하는 시몬과
- 16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 18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 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 19은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 20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 21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 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 22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 23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 24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25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 **26**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 ¹²In these days he went out to the mountain to pray, and all night he continued in prayer to God.
- 13 And when day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and chose from them twelve, whom he named apostles:
- 14 Simon, whom he nam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and James and John, and Philip, and Bartholomew,
- 15 and Matthew, and Thomas, and James the son of Alphaeus, and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
- 16 and Judas the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 17 And he came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with a great crowd of his disciples and a great multitude of people from all Judea and Jerusalem and the seacoast of Tyre and Sidon,
- 18 who ca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diseases. And those who were troubled with unclean spirits were cured.
- 19 And all the crowd sought to touch him, for power came out from him and healed them all.
- **20** And he lifted up his eyes on his disciples, and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 21 "Blessed are you who are hungry now, for you sha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for you shall laugh.
- 22"Blessed are you when people hate you and when they exclude you and revile you and spurn your name as evil, on account of the Son of Man!
- 23 Rejoice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for behold, your reward is great in heaven; for so their fathers did to the prophets.
- 24"But woe to you who are rich, for you have received your consolation.
- 25 "Woe to you who are full now, for you shall be hungry. "Woe to you who laugh now, for you shall mourn and weep.
- **26**"Woe to you, when all people speak well of you, for so their fathers did to the false prophets.

- 27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 주고.
- **28**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 **29**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 30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 31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 32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 33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 34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 준다.
- 35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 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 36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 37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 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 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 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 38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 39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 41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 27"But I say to you who hear,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 28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abuse you.
- 29 To one who strikes you on the cheek, offer the other also, and from one who takes away your cloak do not withhold your tunic either.
- **30** Give to everyone who begs from you, and from one who takes away your goods do not demand them back.
- 31 And as you wish that others would do to you, do so to them.
- **32**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benefit is that to you? For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 33 And if you do good to those who do good to you, what benefit is that to you? For even sinners do the same.
- 34 And if you lend to those from whom you expect to receive,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ners, to get back the same amount.
- 35 But love your enemies, and do good, and lend, expecting nothing in return, and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for he is kind to the ungrateful and the evil.
- ³⁶Be merciful, even as your Father is merciful.
- **37**"Judge not, and you will not be judged; condemn not,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 **38**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running over, will be put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
- 39He also told them a parable: "Can a blind man lead a blind man? Will they not both fall into a pit?
- ⁴⁰A disciple is not above his teacher, but everyone when he is fully trained will be like his teacher.
- 41 Why do you see the speck that is in your brother's eye, but do not notice the log that is in your own eye?

- 42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 때에 네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 43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 44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 45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 46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 47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 48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 49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Bible Clip

눅 LUK 6:48

홍수 (flood)

사납고 빠르게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사회적 발전이나 사조 따위의 거센 흐 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홍수' 는 영어성경 NIV-torrent로 표기되어 있다.

- 42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Brother, let me take out the speck that is in your eye,' when you yourself do not see the log that is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log out of your own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take out the speck that is in your brother's eye.
- 43 "For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again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 44 for each tree is known by its own fruit. For figs are not gathered from thornbushes, nor are grapes picked from a bramble bush
- 45 The good person out of the good treasure of his heart produces good, and the evil person out of his evil treasure produces evil,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his mouth speaks.
- **46**"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not do what I tell you?
- **47** Everyon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does them, I will show you what he is like:
- 48 he is like a man building a house, who dug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the rock. And when a flood arose, the stream broke against that house and could not shake it, because it had been well built.
- 49 But the one who hears and does not do them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When the stream broke against it, immediately it fell, and the ruin of that house was grea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 What did Jesus do before he picked twelve disciples? (6:12)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16절)

Among the twelve disciples of Jesus, who would later sell Jesus? (6: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인간의 평범함, 하나님의 비범함

Ordinary Man, Extraordinary God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 보,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레위(마태)는 주변 사람들 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였으며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 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특출나게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 을 배반했습니다(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가 사도의 반열에 세워집니다. 행 1:26).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시 지도자 들이라 불린 그룹(서기관, 제사장, 장로 등)에 속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 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 래 '학문 없는 범인'(unschooled, ordinary men)으로 알았다"라고 기 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함'(ordinariness)은 하나님의 '비범함'(extraordinariness)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의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능력과 영광과 축복의 부르 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 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 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All twelve disciples of Jesus were ordinary people. Peter, Andrew, James, and John were all fishermen in Galilee. Levi (Matthew) was a tax collector and the target of people's hatred. But nothing in particular is known about Philip, Bartholomew, Thomas, James the son of Alpha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the son of James. Unfortunately Judas Iscariot became blind out of greed and betrayed Jesus (Later Judas Iscariot committed suicide and was replaced by Matthias as the twelfth disciple. Acts 1:26) None among the twelve was a so-called leader (teachers, priests, elders, etc.). Acts 4:13 states,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hey took note."

But God accomplished astonishing things through these disciples. God always calls ordinary people and accomplishes extraordinary things. That is because our "ordinariness" is good enough as a tunnel to reveal the "extraordinariness" of God. Therefore God's calling is never empty. Rather it is a calling of power, glory, and blessing. In receipt of that calling, there is no excuse. Those called by God should release all their weaknesses to the able hands of God and only obe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화 Tue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God of Life.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7:11-17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1-10절), 그 후 나인 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 (11-17절). 이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 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고 (18-23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며 장터 의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셨다(24-35절). 그 후 예수님이 한 바 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를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에게 빚을 탕감 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다(36-50절).

누가복음 7장

- 1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 2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 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 3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 달라고 하였다.
- 4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 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 5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 어주었습니다" 하였다.
- 6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 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 니다.
- 7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 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 8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 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 9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 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보일이 없다"

Reading insight

Jesus healed the servant of a Centurion of the Roman army in Capernaum (7:1–10), then He raised the dead son of a widow in Nain (7:11–17). Upon hearing this message, when John the Baptist sent a message asking if Jesus was the Messiah they were waiting for, Jesus declared that He was the Messiah (7:18–23). As Jesus explained about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he told the parable of children in the marketplace (7:24–35). Then as one of the Pharisees invited Jesus to have dinner with him, a woman came to Jesus and poured perfume on his feet. Jesus praised her faith, and told the Pharisee who had dinner with him the parable of the cancellation of debts for two people (7:36–50).

Luke 7

- ¹ After he had finished all his sayings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he entered Capernaum.
- ² Now a centurion had a servant who was sick and at the point of death, who was highly valued by him.
- ³ When the centurion heard about Jesus, he sent to him elders of the Jews,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 ⁴ An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with him earnestly, saying, "He is worthy to have you do this for him,
- 5 for he loves our nation, and he is the one who built us our synagogue."
- 6 And Jesus went with them. When he was not far from the house, the centurion sent friends, saying to him,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for I am not worthy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 7 Therefore I did not presume to come to you. But say the word, and let my servant be healed.
- 8 For I too am a man set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one, 'Go,' and he goes; and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and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 ⁹ When Jesus heard these things, he marvel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that followed him, said, "I tell you, not even in Israel have I found such faith."

Bible Clip

눅 LUK 7:2

백부장 (centurion, 百夫長)

50~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 대의 장교를 말한다.

었다. 11 기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이이라는 성유으로 가시게 되었는

10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

- 11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 12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 13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 14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 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 16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 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하였다.
- 17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 19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게하였다.
- 20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 21그 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 22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 23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 24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 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Bible Clip

눅 LUK 7:14

관 (bier, 棺)

여기서는 시신을 무덤까지 운반하는 상여를 말한다. 뚜껑이 없으며 매장시 에는 시신만 꺼내 무덤에 넣었다.

- ¹⁰And when those who had been sent returned to the house, they found the servant well.
- 11 Soon afterward he went to a town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and a great crowd went with him.
- 12 As he drew near to the gate of the town, behold, a man who had died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considerabl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 13 And when the Lord saw her, he had compassion on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 14 Then he came up and touched the bier, and the bearers stood still. And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arise."
- 15 And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Jesusgave him to his mother.
- 16 Fear seized them all, and they glorified God, saying, "A great prophet has arisen among us!" and "God has visited his people!"
- ¹⁷And this report about him spread through the whole of Judea and all the surrounding country.
- 18 The disciples of John reported all these things to him. And John,
- 19 calling two of his disciples to him, sent them to the Lord, saying,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 20 And when the men had come to him, they said,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you, saying,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 21 In that hour he healed many people of diseases and plagues and evil spirits, and on many who were blind he bestowed sight.
- 22 And he answered them, "Go and tell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their sight, the lame walk,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the poor have good news preached to them.
- ²³And blessed is the one who is not offended by me."
- 24 When John's messengers had gone,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s concerning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wilderness to see? A reed shaken by the wind?

-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 26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 27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 28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 29(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드러냈다.
- 30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 31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 32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하는 것과 같다.
- 33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 34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 35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 냈다."
- 36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 37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 38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Mamo

- 25 What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soft clothing? Behold, those who are dressed in splendid clothing and live in luxury are in kings' courts.
- **26** What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 **27**This is he of whom it is written,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 28 I tell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none is greater than John.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 ²⁹ (When all the people heard this, and the tax collectors too, they declared God just, having been baptized with the baptism of John,
- **30**but the Pharisees and the lawyers rejected the purpose of God for themselves, not having been baptized by him.)
- 31 "To what then shall I compare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and what are they like?
- 32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and calling to one another,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weep.'
- 33 For John the Baptist has come eating no bread and drinking no wine, and you say, 'He has a demon.'
- 34The Son of Man has come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y, 'Look at him!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 35 Yet wisdom is justified by all her children."
- **36** One of the Pharisees asked him to eat with him, and he went into the Pharisee's house and took his place at the table.
- 37 And behold, a woman of the city, who was a sinner, when she learned that he was reclining at table in the Pharisee's house, brought an alabaster flask of ointment,
- 38 and standing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kissed his feet and anointed them with the ointment.

- 39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 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 인데!"
- 4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41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 졌다.
- 42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 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 겠느냐?"
- 43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 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 44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 45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 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 46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 47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 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 48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 받았다."
- 49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 가?" 하였다.
- 50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 39 Now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have known who and what sort of woman this is who is touching him, for she is a sinner."
- 40 And Jesus answering said to him, "Simon, I have something to say to you." And he answered, "Say it, Teacher."
- 41"A certain moneylender had two debtors. One owed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 42 When they could not pay, he cancelled the debt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 43 Simon answered, "The one, I suppose, for whom he cancelled the larger debt." And he said to him, "You have judged rightly."
- 44 Then turning toward the woman he said to Simon, "Do you see this woman? I entered your house; you gave me no water for my feet, but she has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 45 You gave me no kiss, but from the time I came in she has not ceased to kiss my feet.
- **46** You did not anoint my head with oil, but she has anointed my feet with ointment.
- **47** Therefore I tell you, 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en--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is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 48 And he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 49 Then those who were at table with him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 50 And he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나인 성의 아들을 장사 지내는 과부를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What did Jesus first say when he saw the widow who was going to bury her dead son in Nain? (7:13)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16절)

When the dead son of the widow in Nain was raised by Jesus, what did the people who witnessed the event exclaim upon proclaiming glory be to God? (7:16)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블루밍톤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두 가지 행렬, 그리고

Two processions, and then

예수님은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 가까이에서 장례식 행렬과 조우하 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 행렬이 었습니다. 유일한 의지인 독자를 먼저 떠나보낸 홀어머니의 심정이 어 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며 주검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자 장례식 행렬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행렬이 마주친 것을 봅니다. 하나는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과 소망의 행렬입니다.

관 속에 있는 자는 죽음에 의해 망한 자이나, 그 관에 손을 댄 자는 죽음을 멸망시킨 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행렬이 또 하나의 새로운 행렬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환호하는 승리의 축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역사로써 죽음과 절망은 성 밖으로 나가버렸고, 생명과 소망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의 삯인 사망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잃어버렸고, 죄의 구속으로 인한 영생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Near the gate of the town Nain, Jesus encountered a funeral procession. Sadly it was the funeral procession for the widow's son. We can imagine how sad she was as her only son left her. Knowing her sorrow, Jesus said, "Don't cry," and touched the coffin, the whole procession stopped. As Jesus sai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talk. Here we see two crowds facing each other. One was death and despair and the other was life and hope.

The one in the coffin was dead one but the one who touched the coffin defeated death. Those two processions created a bigger crowd and became a crowd celebrating the victory and exclaiming, "A big Prophet arose among us! Our LORD took care of His people!" As a new history of the life of Jesus Christ began, death and despair were kicked out of the town, and life and hope were invited into the town. Death as the price of sin no longer had any power, but eternal life as capitulation of sins was given as a gift to all believ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수 We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The Son of God.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8:40-48



새474장 의원되신 예수님의 통529장 큰 무리 주를 에워싼 중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치유의 이적 이 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이적 이야기들은 도래하는 하나 님의 나라의 선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 신 그 권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분의 권위는 자연에 대해서 (22-25절), 악한 영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26-39절), 질병에 대 해서(40-48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49-56) 강력하게 행사되 었다.

누가복음 8장

- 1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 2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 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 아와
- 3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 4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 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5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 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 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 6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 어서 말라 버렸다.
- 7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 서, 그기운을 막았다.
- 8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 람은들어라"하고 외치셨다.
- 9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 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11"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Reading insight

Luke 8 consists of the teachings and sermons of Jesus Christ and the stories of healings and miracles. The stories of the miracles are especially focused on the coming proclaimer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authority of the Son of God, Jesus Christ. His authority was exercised strongly on nature (8:22–25), on the powers of evil spirit (8:26–39), on diseases (8:40–48), and on death (8:49–56).

Luke 8

- ¹ Soon afterward he went on through cities and villages, proclaiming and bring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twelve were with him,
- ² and also some women who had been healed of evil spirits and infirmities: Mary, called Magdalene, from whom seven demons had gone out,
- ³ and Joanna, the wife of Chuza, Herod's household manager, and Susanna, and many others, who provided for them out of their means.
- 4 And when a great crowd was gathering and people from town after town came to him, he said in a parable:
- 5"A sower went out to sow his seed. And as he sow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was trampled underfoot, and the birds of the air devoured it.
- ⁶ And some fell on the rock, and as it grew up, it withered away, because it had no moisture.
- And some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 grew up with it and choked it.
- 8 And some fell into good soil and grew and yielded a hundredfold." As he said these things, he called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 9 And when his disciples asked him what this parable meant,
- 10 he said, "To you it has been given to know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but for others they are in parables, so that 'seeing they may not see, and hearing they may not understand.'
- 11 Now the parable is this: The seed is the word of God.

- 12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 13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 14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 15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를 맺는 사람들이다."
- 16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 17숨겨 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 18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 앗길 것이다."
- 19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수 없었다.
- 20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 22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 23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 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 24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 치고 잔잔해졌다.
-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 26그들은 갈릴리 맞은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 12 The ones along the path are those who have heard;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from their hearts, so that they may not believe and be saved.
- 13 And the ones on the rock are those who, when they hear the word, receive it with joy. But these have no root; they believe for a while, and in time of testing fall away.
- 14 And as for what fell among the thorns, they are those who hear, but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are choked by the cares and riches and pleasures of life, and their fruit does not mature.
- 15 As for that in the good soil, they are those who, hearing the word, hold it fast in an honest and good heart, and bear fruit with patience.
- 16"No one after lighting a lamp covers it with a jar or puts it under a bed, but puts it on a stand, so that those who enter may see the light.
- 17 For nothing is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manifest, nor is anything secret that will not be known and come to light.
- 18 Take care then how you hear, for to the 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and from the one who has not, even what he thinks t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 19 Then his mother and his brothers came to him, but they could not reach him because of the crowd.
- 20 And he was told,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desiring to see you."
- 21 But he answered them, "My mother and my brothers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do it."
- 22One day he got into a boat with his disciples, and he said to them,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set out,
- ²³ and as they sailed he fell asleep. And a windstorm came down on the lake, and they were filling with water and were in danger.
- 24 And they went and woke him, saying, "Master, Master, we are perishing!" And he awoke and rebuked the wind and the raging waves, and they ceased, and there was a calm.
- 25 He said to them, "Where is your faith?" And they were afraid, and they marveled, saying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he commands even winds and water, and they obey him?"
- 26Then they sailed to the country of the Gerasenes, which is opposite Galilee.

- 27예수께서 뭍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 28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 시오."
- 29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고 하였다.
- 30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 31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 청하였다.
- 32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 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가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 34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 에 알렸다.
- 35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 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 36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 37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 38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 39"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 **40**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 27When Jesus had stepped out on land, there met him a man from the city who had demons. For a long time he had worn no clothes, and he had not lived in a house but among the tombs
- 28When he saw Jesus, he cried out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said with a loud voice, "What have you to do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beg you, do not torment me."
- 29 For he had commanded the unclean spirit to come out of the man. (For many a time it had seized him. He was kept under guard and bound with chains and shackles, but he would break the bonds and be driven by the demon into the desert.)
- **30** Jesus the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Legion," for many demons had entered him.
- ³¹ And they begged him not to command them to depart into the abyss.
- 32 Now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re on the hillside, and they begged him to let them enter these. So he gave them permission.
- 33 Then the demons came out of the man and entered the pigs, and th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ere drowned.
- 34 When the herdsmen saw what had happened, they fled and told it in the city and in the country.
- 35 Then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and they came to Jesus and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 **36** And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m how the demon-possessed man had been healed.
- **37** Then all the people of the surrounding country of the Gerasenes asked him to depart from them, for they were seized with great fear. So he got into the boat and returned.
- 38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begged that he might be with him, but Jesus sent him away, saying,
- **39** "Return to your home, and declare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And he went away, proclaiming throughout the whole city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 40 Now when Jesus returned, the crowd welcomed him, for they were all waiting for him.

- 41 그 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 42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 43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 44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곡출혈이 그쳤다.
- 45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 46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 47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 48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워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 49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 50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 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 51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 52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 53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 54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 어나라."
- 55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 **56**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 41 And there came a man named Jairus, who was a ruler of the synagogue. And falling at Jesus' feet, he implored him to come to his house.
- 42 for he had an only daughter, about twelve years of age, and she was dying. As Jesus went, the people pressed around him.
- 43 And there was a woman who had had a discharge of blood for twelve years, and though she had spent all her living on physicians, she could not be healed by anyone.
- 44 She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fringe of his garment, and immediately her discharge of blood ceased.
- 45 And Jesus said, "Who was it that touched me?" When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crowds surround you and are pressing in on you!"
- 46 But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for I perceive that power has gone out from me."
- 47 And when the woman saw that she was not hidden, she came trembling, and falling down before him declared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why she had touched him, and how she had been immediately healed.
- 48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 49 While he was still speaking, someone from the ruler's house came and said, "Your daughter is dead; do not trouble the Teacher any more."
- ⁵⁰But Jesus on hearing this answered him, "Do not fear; only believe, and she will be well."
- ⁵¹ And when he came to the house, he allowed no one to enter with him, except Peter and John and James, and the father and mother of the child.
- 52 And all were weeping and mourning for her, but he said, "Do not weep, for she is not dead but sleeping."
- 53 And they laughed at him, knowing that she was dead.
- 54 But taking her by the hand he called, saying, "Child, arise."
- 55 And her spirit returned, and she got up at once. And he directed that something should be given her to eat.
- 56 And her parents were amazed, but he charged them to tell no one what had happen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병고침을 받았습 니까? (44절)

What had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done to be healed? (8:44)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8절) When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told the people that she was healed, what did Jesus tell her? (8:4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의 터치다운

The Touchdown of God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이 여인은 무리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옷 가에 손을 대었는데, 그 즉시 혈루증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옷 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고침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미식축구인 풋볼(football) 경기의 묘미는 뭐니 뭐니해도 '터치다운'(touchdown)에 있습니다. 누군가 철벽같은 수비수들을 뚫고 질주해서 '엔드 존'(end zone)에 터치다운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에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12년 혈루증을 고침 받은 여인도 온갖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 기어코 예수님께 터치다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어루 만지기(touch) 위해 오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육신'(incarnation)은 하나님의 터치다운(God's touchdown)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터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mobilized all ways and means to treat the illness but to no avail. Having heard that Jesus had healed various illnesses, this woman walked through the crowd, came up behind Jesus,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an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She was sure that her illness would be healed if she could just touch the edge of his cloak. In American football, the most exciting moment is the "touchdown." The crowds ecstatically erupt at the moment when the player runs through powerful defenses and reaches the end zone with the football scoring a touchdown.

The woman subject to twelve years of bleeding ran through all kinds of obstacles and touched down in the end zone where Jesus was. In fact Jesus came to this world from heaven to 'touch" us. Strictly speaking, the "incarnation" was "God's touchdown." God wanted to be like us and he came to this world like us in flesh. We must therefore come nearer to Jesus and touch Jesus. As we reach out to Jesus and touch Him with faith, amazing things will happen to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목 Thu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The way to follow Jesus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9:57-62



새324장(통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9장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냄 받은 열 두 제자와 헤롯의 질문(1-9절); 오천 명을 먹이신 급식 이적(10-17절); 예수님은 누구 인가에 대한 질문(18-27절); 변화산 사건 (28-36절);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37-45절);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언쟁(46-50절); 예루살렘에로의 여정의 시작(51-56절);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세 사람(57-62절).

누가복음 9장

- 1예수께서 그 열둘을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 2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 3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 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 4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 거라.
- 5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 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 6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 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 7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 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고하고.
- 8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 었다.
- 9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 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였다.
- 10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 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새다라고 하 는고을로 물러가셨다.
- 11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Reading insight

Luke 9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 the twelve disciples being sent and Herod's questions (9:1–9); the miracle of feeding the crowd of five thousand (9:10–17); the question of who Jesus is (9:18–27);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9:28–36); healing a boy with demons (9:37–45); the argument among the disciples (9:46–50);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to Jerusalem (9:51–56), and three men who want to follow Jesus (9:57–62).

Luke 9

- ¹ And he called the twelve together and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over all demons and to cure diseases,
- ² and he sent them out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to heal.
- 3 And he said to them, "Take nothing for your journey, no staff, nor bag, nor bread, nor money; and do not have two tunics.
- ⁴And whatever house you enter, stay there, and from there depart.
- ⁵And wherever they do not receive you, when you leave that town shake off the dust from your feet as a testimony against them."
- ⁶And they departed and went through the villages, preaching the gospel and healing everywhere.
- 7 Now Herod the tetrarch heard about all that was happening, and he was perplexed, because it was said by some that John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 8 by some that Elijah had appeared, and by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old had risen.
- ⁹Herod said, "John I beheaded, but who is this about whom I hear such things?" And he sought to see him.
- 10 On their return the apostles told him all that they had done. And he took them and withdrew apart to a town called Bethsaida.
- 11 When the crowds learned it, they followed him, and he welcomed them and spoke to them of the kingdom of God and cured those who had need of healing.

Bible Clip

눅 LUK 9:20

그리스도 (the Christ of Go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부른다. 예수께 부여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강조한 성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영어성경 NIV-God's Messiah로 표기되어 있다.

- 12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 13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 14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 15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 16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 17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 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 도로 고백하다(마 16:13-19; 막 8:27-29)
- 18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 구라고 하느냐?"
- 19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20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 21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 22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서. 사흗날에 살아나야 한다."
- 23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 고, 나를 따라오너라.
- 24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25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 12 Now the day began to wear away, and the twelve came and said to him, "Send the crowd away to go into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countryside to find lodging and get provisions, for we are here in a desolate place."
- 13 But he said to them,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said, "We have no more than five loaves and two fish-unless we are to go and buy food for all these people."
- 14 For there were about five thousand men.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fifty each."
- 15 And they did so, and had them all sit down.
- 16 And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he looked up to heaven and said a blessing over them. Then he broke the loaves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set before the crowd.
- 17 And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what was left over was picked up, twelve baskets of broken pieces.
- 18 Now it happened that as he was praying alone, the disciples were with him. And he asked them, "Who do the crowds say that I am?"
- 19 And they answered, "John the Baptist. But others say, Elijah, and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old has risen."
- 20 Then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And Peter answered, "The Christ of God."
- ²¹ And he strictly charged and commanded them to tell this to no one,
- 22saying,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 23 And he said to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 ²⁴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 25 For what does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or forfeits himself?

- 26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27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 28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 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 **29**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뉴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 30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 31그들은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 32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 33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 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 34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35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36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37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 하였다.
- 38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 39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 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 지 않습니다.
- 40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 26 For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of him will the Son of Man be ashamed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 ²⁷But I tell you truly,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 28 Now about eight days after these sayings he took with him Peter and John and James and went up on the mountain to pray.
- ²⁹ And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was altered, and his clothing became dazzling white.
- ³⁰And behold, two men were talking with him, Moses and Elijah,
- 31 who appeared in glory and spoke of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
- 32 Now Peter and those who were with him were heavy with sleep, but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who stood with him.
- 33 And as the men were parting from him, Peter said to Jesus, "Master, it is good that we are here. Let us make three tents, one for you and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not knowing what he said.
- 34 As he was saying these things, a cloud came and overshadowed them, and they were afraid as they entered the cloud.
- 35 And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my Chosen One; listen to him!"
- **36** And when the voice had spoken, Jesus was found alone. And they kept silent and told no one in those days anything of what they had seen.
- **37** On the next day, when they had come down from the mountain, a great crowd met him.
- **38** And behold, a man from the crowd cried out, "Teacher, I beg you to look at my son, for he is my only child.
- **39** And behold, a spirit seizes him, and he suddenly cries out. It convulses him so that he foams at the mouth, and shatters him, and will hardly leave him.
- 40 And I begged your disciples to cast it out, but they could not."

Bible Clip

눅 LUK 9:41

비뚤어진 (perverse)

'배반하다, 거스리다'라는 뜻으로 타락 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세대에 대한 말 씀이다.

눅 LUK 9:52

사마리아 사람 (Samaritans)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 당한 후 강제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살면서 유대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자들 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아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평소 유대인들은 사마 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겨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먼 길로 돌아서 갔다.

- 4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 42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 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 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 주셨다.
- 43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44"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 45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 46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 47예수께서 그들 마음 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 48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 49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5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 51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 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 52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 53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 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 54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 55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 41 Jesus answered, "O faithless and twisted generation, how long am I to be with you and bear with you? Bring your son here."
- 42 While he was coming, the demon threw him to the ground and convulsed him. But Jesus rebuked the unclean spirit and healed the boy, and gave him back to his father.
- 43 And all were astonished at the majesty of God. But while they were all marveling at everything he was doing, Jesus said to his disciples,
- 44"Let these words sink into your ears: The Son of Man is about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en."
- 45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is saying, and it was concealed from them, so that they might not perceive it. And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this saying.
- 46 An argument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as the greatest.
- ⁴⁷But Jesus, knowing the reasoning of their hearts, took a child and put him by his side
- 48 and said to them, "Whoever receives this child in my name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him who sent me. For he who is least among you all is the one who is great."
- 49 John answered, "Master, we saw someone cast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ried to stop him, because he does not follow with us."
- 50But Jesus said to him, "Do not stop him, for the one who is not against you is for you."
- 51 When the days drew near for him to be taken up, he set his face to go to Jerusalem.
- 52 And he sent messengers ahead of him, who went and entered a village of the Samaritans, to make preparations for him.
- 53 But the people did not receive him, because his face was set toward Jerusalem.
- 54 And when his disciples James and John saw it, they said, "Lord, do you want us to tell fire to co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 them?"
- 55 But he turned and rebuked them

- 56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 57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 58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 59도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 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 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 60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 61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 62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 56 And they went on to another village.
- 57 As they were going along the road, someone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 58 And Jesus said to him,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 59 To another he said, "Follow me." But he said, "Lord, let me first go and bury my father."
- 60 And Jesus said to him, "Leave the dead to bury their own dead. But as for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 61 Yet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let me first say farewell to those at my home."
- 62 Jesus said to him,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8절)

What did Jesus tell the man on the road who said,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9:58)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2절)

What did Jesus tell the man who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9:6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김다위(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수 믿으미와 예수 따르미

Those believing Jesus and those following Jesus

본문에는 세 번 연속으로(57절, 59절, 61절) '예수 따름'의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점은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이한 마디 명령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명령 속에서, '나를'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행위, 곧 믿으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이 명령 속에서, '나를'에가 아니라 '따르라'에 강조점을 둔다면,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곧 따르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라는 이한마디 명령 속에 '인격'(person)이 있고, 동시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필연적으로 가야할 '행로'(path)가 있습니다. 달콤한 평안이 있고, 동시에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동시에 수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동시에 그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결정된 현장,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한완상 교수님이 쓴 "예수 없는 예수 교회"에서, 저자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는 "믿습니다"를 외치는 예수 신자, 곧 '예수 믿으미'는 많아졌지만, 예수님을 올곧게 따르는 예수 제자, 곧 '예수 따르미'는 적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은 예수 믿으미인 우리 모두 예수 따르미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입니다.

In today's scripture, Jesus repeats the phrase "follow me" three times in verses 57, 59 and 61. Therefore, the essence of today's scripture is the command of the Lord, "Follow me." But this one command tells us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Jesus and following Jesus. In other words, from the command of "follow me," if we place an emphasis on "me," it means to believe Jesus as our Savior, that is, "the believer." But if we place an emphasis on "follow," it means to become "the follower." Within the command of "follow me," there are the traits of the follower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the path that all disciples of Jesus must follow. There is sweet comfort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bitter pain. There is glory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shame.

There is Jesus Christ who revealed the truth of eternal salva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Jerusalem, the very place where the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of Jesus who himself was the truth of eternal salvation was completely realized. In the book Jesus Church without Jesus by Prof. WanSang Han,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re are so many Korean churches where we hear the cries of "we believe" but the number of "Jesus followers," the true disciples of Jesus, is diminishing. This Advent season waiting for the birth of Jesus is a good opportunity to renew our faith to convert from believers to followers of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tacebook 영기품의 언덕으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금 Fri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The master of my life,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0:38-42



새95장(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70명을 전도자로 세워 파송하셨다(1-16절). 그 후 그 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17-20절), 예수님 도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이 받은 복을 말씀하셨다(21-24절), 그런 후,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 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셨고(25-37절), 계속 예 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던 중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 (38-42절).

누가복음 10장

- 1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 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 씌] 앞서 보내시며
- 2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 하여라.
- 3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 는 것과 같다.
- 4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 5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 다!' 하고 말하여라.
- 6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 게 되돌아올 것이다.
- 7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 8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 희에게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 9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 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 10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 지 않거든. 그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 11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 12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격디기 쉬울 것이다."

Reading insigh

Jesus picked 70 and sent them out as evangelists (10:1–16). When they came back and reported with joy to Jesus (10:17–20), Jesus was also joyful and prayed to God and talked about the blessings the disciples received (10:21–24). Then He told the parable of the Samaritan man to the teacher of the law who tried to test Jesus, and as he continued to walk toward Jerusalem, he visited the house of Martha (10:38–42).

Luke 10

-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seventy-two others and sent them on ahead of him, two by two, in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himself was about to go.
- ² And he said to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pray earnestl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 ³Go your way; behold, I am sending you out as lambs in the midst of wolves.
- ⁴Carry no moneybag, no knapsack, no sandals, and greet no one on the road.
- 5 Whatever house you enter, first say, 'Peace be to this house!'
- ⁶ And if a son of peace is there, your peace will rest upon him. But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 ⁷And remain in the same house, eating and drinking what they provide, for the laborer deserves his wages. Do not go from house to house
- 8 Whenever you enter a town and they receive you, eat what is set before you.
- ⁹Heal the sick in it and say to them,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to you.'
- ¹⁰But whenever you enter a town and they do not receive you, go into its streets and say,
- 11'Even the dust of your town that clings to our feet we wipe off against you. Nevertheless know thi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 12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on that day for Sodom than for that town.

- 13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 14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5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 16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 17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 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 19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 20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 22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 가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 24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금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26**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 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 13"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ghty works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sitting in sackcloth and ashes.
- 14But it will be more bearable in the judgment for Tyre and Sidon than for you.
- 15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exalted to heaven? You shall be brought down to Hades.
- 16"The one who hears you hears me, and the one who rejects you rejects me, and the one who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 17 The seventy-two returned with joy, saying, "Lord, even the demons are subject to us in your name!"
- 18 And he said to them,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 19 Behold,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shall hurt you.
- 20 Nevertheless, do not rejoice in this,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 21 In that same hour he rejoiced in the Holy Spirit and said, "I thank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understanding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such was your gracious will.
- 22 All things have been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and no one knows who the Son is except the Father, or who the Father is except the Son and anyon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 23 Then turning to the disciples he said privately, "Blessed are the eyes that see what you see!
- 24For I tell you that many prophets and kings desired to see what you see, and did not see it, and to hear what you hear, and did not hear it."
- ²⁵And behold, a lawyer stood up to put him to the test, saying,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 26He said to him, "What is written in the Law? How do you read it?"

Dikt. Olim

눅 LUK 10:32

레위 사람 (Levite)

이스라엘 지파들 중 12지파 외에 특별 히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 성별된 지파이며, 하나님 일에 앞장서도록 요 구되었다.

- 27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 28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 29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 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 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 31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 32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 33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 34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 아주었다.
- 35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 36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 **37**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 38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 **39**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 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 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41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 42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 지못할 것이다."

- 27 And he answere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 28 And he said to him,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 29 But he, desiring to justify himself, said to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 **30** Jesus replie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and he fell among robbers, who stripped him and beat him and departed, leaving him half dead.
- 31 Now by chance a priest was going down that road, and when he saw him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 32 So likewise a Levite,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 33 But a Samaritan, as he journeyed, came to where he was, and when he saw him, he had compassion.
- 34He went to him and bound up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set him on his own animal and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 **35** And the next day he took out two denarii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saying, 'Take care of him, and whatever more you spend, I will repay you when I come back.'
- **36**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proved to be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among the robbers?"
- **37** He said, "The one who showed him mercy." And Jesus said to him, "You go, and do likewise."
- 38 Now as they went on their way, Jesus entered a village.

 And a woman named Martha welcomed him into her house.
- ³⁹ And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o sat at the Lord's feet and listened to his teaching.
- 40 But Martha was distracted with much serving. And she went up to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serve alone? Tell her then to help me."
- 41 But the Lord answered her, "Martha, Martha, you are anxious and troubled about many things,
- ⁴²but one thing is necessary. Mary has chosen the good portion, which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절) As Martha was busy preparing to treat Jesus, what was Martha's younger sister Mary doing? (10:39)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 놓는 마르 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 하셨습니까? (41-42절) As Martha complained to Je-

As Martha complained to Jesus about Mary, what did Jesus tell Martha? (10:41-4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는 것보다 오직 한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참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대상이요, 건축가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며, 의사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며, 설교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철학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질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만세반석이며, 농부들에게 예수님은 추수의 주님이며, 탕자들에게 예수님은 용서하는 아버지이며, 잃은 양들에게 예수님은 선한목자이며, 주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만을 택하여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입니다. 우리가집중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Jesus does not appreciate us busying ourselves with many different things. Jesus likes a simple life. Rather than distracting our minds with thousands or tens of thousands different things, Jesus likes our living focused on only one thing, that is, longing only for Jesus. If we focused our minds only on Jesus like Mary, Jesus would praise us, "You have chosen to be on the good side."

Somebody described Jesus in this way. "To artists, Jesus is totally an object to love, to the architects, Jesus is a cornerstone, to the medical doctors, Jesus is the greatest healer, to the preachers, Jesus is the Word of God, to the philosophers, Jesus is the wisdom of God, to the geologists, Jesus is the solid rock, to the farmers, Jesus is the master of the harvest, to the prodigal people, Jesus is the father of forgiveness, to the lost lambs, Jesus is the good shepherd, to the hungry souls, Jesus is the cake of life, to the thirsty souls, Jesus is the spring water of life, to the people dying,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life." Jesus alone is the master of our lives.

Therefore people who have chosen one and only one Jesus are as good as those who own everything. Faith is not for this or that, but for only one thing. The object of our focus must be only one thing, that is, only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국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89 업무의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토 Sat

기도와 영적인 변혁

The Prayer and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1:5-13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1-13절). 기도를 통해 얻는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다(13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신 후(13-28절).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보일 표 적은 요나의 표적임을 알리시며(29-32절), 몸의 등불인 눈에 대 해 가르치신 후(33-36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호되게 질책 하셨다(37-54절).

누가복음 11장

- 1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 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 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 2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 3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 4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 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 시오.'"
- 5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 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 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꾸어 주게.
- 6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 어서 그러네!' 할 때에.
- 7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 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 8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 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 9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 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 10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 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 11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Reading insight

Jesus taught about prayer (11:1–13) and the good we gain through the prayer is the "Holy Spirit" (11:13). Luke 11 includes Jesus speaking about the history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how the devil will be thrown out by the hand of God (11:13–28), announcing that the son of man would be a sign as Jonah was a sign to his generation (11:29–32), teaching about eyes that are the lamplights of our body (11:33–36), and berating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11:37–54).

Luke 11

- ¹Now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and when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 ² And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 ³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 4 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ourselves forgive everyone who is indebted to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 ⁵ And he said to them, "Which of you who has a friend will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to him, 'Friend, lend me three loaves.
- 6 for a friend of mine has arrived on a journey,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 7 and he will answer from within, 'Do not bother me; the door is now shut,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no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 8 I tell you,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anything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impud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whatever he needs.
- And I tell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 ¹⁰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 11 What father among you, if his son asks for a fish, will instead of a fish give him a serpent;

Bible Clip

눅 LUK 11:2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간구이다.

Bible Clip

눅 LUK 11:18

바알세불 (Beelzebub)

악한 영들의 두목으로 '귀신의 왕'(마 9:34)이다.

- 12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 13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 14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 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 15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 16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 18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 19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 20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 21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 22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략한 것 을 나누어 준다.
- 23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 24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 **25**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 26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 27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 12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give him a scorpion?
- 13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 14 Now he was casting out a demon that was mute. When the demon had gone out, the mute man spoke, and the people marveled.
- 15 But some of them said, "He casts out demons by Beelzebul, the prince of demons,"
- 16 while others, to test him, kept seeking from him a sign from heaven.
- 17 But he, knowing their thoughts, said to them, "Ever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is laid waste, and a divided household falls
- ¹⁸And if Satan also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will his kingdom stand? For you say that I cast out demons by Beelzebul.
- 19 And if I cast out demons by Beelzebul, by whom do your sons cast them out? Therefore they will be your judges.
- **20** But if it is by the finger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 ²¹ When a strong man, fully armed, guards his own palace, his goods are safe;
- 22but when one stronger than he attacks him and overcomes him, he takes away his armor in which he trusted and divides his spoil.
- ²³Whoever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whoever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 24"When the unclean spirit has gone out of a person, it passes through waterless places seeking rest, and finding none it says, 'I will return to my house from which I came.'
- ²⁵ And when it comes, it finds the house swept and put in order.
- **26**Then it goes and brings seven other spirits more evil than itself, and they enter and dwell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at person is worse than the first."
- ²⁷ As he said these things, a woman in the crowd raised her voice and said to him, "Blessed is the womb that bore you, and the breasts at which you nursed!"

눅 LUK 11:30

니느웨 사람들 (Ninevites)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 판을 면하였다(욘 3장).

- 28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 29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 30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 31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 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 32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 33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 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 34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 35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 36네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 37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 38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 39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 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 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 40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 하셨느냐?
- 41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 42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 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 28 But he said, "Blessed rather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keep it!"
- 29 When the crowds were increasing, he began to say, "This generation is an evil generation. It see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Jonah.
- ³⁰For as Jonah became a sign to the people of Nineveh, so will the Son of Man be to this generation.
- 31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up at the judgment with the men of this generation and condemn them, for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and behold,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 **32**The men of Nineveh will rise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behold,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
- **33**"No one after lighting a lamp puts it in a cellar or under a basket, but on a stand, so that those who enter may see the light.
- **34** Your eye is the lamp of your body. When your eye is healthy, your whole body is full of light, but when it is bad, your body is full of darkness.
- 35 Therefore be careful lest the light in you be darkness.
- **36** If then your whole body is full of light, having no part dark, it will be wholly bright, as when a lamp with its rays gives you light."
- 37 While Jesus was speaking, a Pharisee asked him to dine with him, so he went in and reclined at table.
- **38** The Pharisee was astonished to see that he did not first wash before dinner.
- **39** And the Lord said to him, "Now you Pharisees cleanse the outside of the cup and of the dish, but inside you are full of greed and wickedness.
- 40 You fools! Did not he who made the outside make the inside also?
- ⁴¹But give as alms those things that are within, and behold, everything is clean for you.
- **42**"But woe to you Pharisees! For you tithe mint and rue and every herb, and neglect justice and the love of God. These you ought to have done, without neglecting the others.

Bible Clip

눅 LUK 11:44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graves which are not seen)

'분명하지 않은', '불분명한'이란 뜻으로, 드러나지 않게 평평하게 처리된 무덤을 뜻한다. 무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중에 밟고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죄악과 위선이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은 영어성경 NIV-unmarked graves으로 표기되어 있다.

- 43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좋아 하다!
- 44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지를 알지 못한다!"
- 45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 니다."
- 4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집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 47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 48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 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 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 49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 50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 게 요구할 것이다.
- 51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 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 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52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 53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목아붙이기 시작하였다.
- 54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 렸다.

- 43 Woe to you Pharisees! For you love the best seat in the synagogues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 44 Woe to you! For you are like unmarked graves, and people walk over them without knowing it."
- 45 One of the lawyers answered him, "Teacher, in saying these things you insult us also."
- 46 And he said, "Woe to you lawyers also! For you load people with burdens hard to bear, and you yourselves do not touch the burdens with one of your fingers.
- ⁴⁷ Woe to you! For you build the tombs of the prophets whom your fathers killed.
- 48 So you are witnesses and you consent to the deeds of your fathers, for they killed them, and you build their tombs.
- 49 Therefore also the Wisdom of God said, 'I will send them prophets and apostles, some of whom they will kill and persecute,'
- 50 so that the blood of all the prophets, 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ay be charged against this generation,
- 51 from the blood of Abel to the blood of Zechariah, who perished between the altar and the sanctuary. Yes, I tell you, it will be required of this generation.
- 52 Woe to you lawyers! For you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You did not enter yourselves, and you hindered those who were entering."
- 53 As he went away from there,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gan to press him hard and to provoke him to speak about many things,
- 54 lying in wait for him, to catch him in something he might sa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기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무슨 청을 했습니까? (5-6절).

In the parable for prayer, what did the person ask his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11:5-6)

다음 구절에서 ()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에게 ()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Fill in the missing words. Wouldn't your heavenly Father give you () to those who seek it? (11: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조성우(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당신의 체면 때문에

Because of saving face

본문 8절에 나오는 '간청함, 졸라대는 것'으로 번역된 희랍어 단어는 '아나이데 이이'(anaideia)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례함', '뻔뻔함', '몰염치'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연성이 적은 '간청함'으로 풀이함으로써, 빵을 구하러 간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졸라 대어 마침내 빵을 얻어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로 얻는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몰염치'라는 본래의 뜻으로 풀이한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친구의 간청을 받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 사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지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만일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를 매몰차게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면, 동네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 우려되어 친구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강청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본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친구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살아 계신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주는 진정한 기쁨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보다 기도하는 일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In Luke 11:8, the word "boldness, importunity" is translated from the Greek word "anaideia". This word originally means "rudeness, effrontery, or impudence." Most people translate this word as "boldness" and interpret the story as having been able to finally secure the bread from his neighbor by not giving up and by asking persistently. Therefore, focus is placed on the answer to "persistent prayer." But if this word was translated as "effrontery" as originally meant, the protagonist of this parable would be the friend who accommodated this man's persistent request. In other words, the friend who accommodated the request of the man who visited the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should be given a heavier share of attention, even though he accommodated the request out of fear of shame or blame from neighbors. The accommodation was made not just because the man was his friend but because the friend was afraid of losing face to his neighbors if the persistent request of his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was heartlessly denied.

By the same token, our Lord listens to and answers our prayers out of "saving face" because our Father always faithfully keeps his promises to us and not necessarily because of our persistence. If the worldly friend had answered the wishes of his friend out of desire to save face, how would the living and good God who loves His children turn His face away from the desperate imploration of His children? For the sake of His saving face alone, God would give us something good. What's important is that the real joy of our prayers is not just in the answer to our prayers. We pray because we just love the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when we pray. Therefore, rather than the answer to our prayers, the prayer itself is the grace and the bless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ᆌᄃᇎᆞ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2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빈터, 그 가득한 공간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곽노순 목사님이 쓰신 '그대 삶의 먼동이 트는 날'을 보면 편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빈 공간들이 순서없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낭비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빈 공간은 그냥 비어있지만 또 어떤 공간에는 한마디씩 적혀있습니다. "백지는 빈 칸이지"로 시작되면서 "백지는 비어 있는 것만은 아니지", "빈 칸은 그득하네"에서 "비어 있는 것은 넘쳐 흐르네"로 끝납니다. 저는 곽목사님이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진 빈 칸에 그리 쓰시고는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빈 공간'이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비어지게 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배 당도 사람들 먹고 사는 삶의 자리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병실은 가 득차고 근심과 걱정은 차고 넘칩니다. 삶의 자원이 넉넉한 사람들은 비어있는 시공을 잘 활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고픔과 좌절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비어있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허무가 의미로, 혼돈이 조화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강절 아기 예수 오시는 이 계절, 만삭이 된 여인이 머리 둘곳 없을 정도로 여관이 꽉 채워져있으니 마굿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 들어 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방에 오래전 김지하 선생님이 주고 간 '빈터의 바람' 이란 글과 함께 난초가 그려

져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목사님 계신 곳이 장일순 선생님이 계셨던 강원도 원주가 되기를 빕니다" 하셨습니다. 빈터의 바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우리네 삶의 시공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비어있는 것은 비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비어져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곽목사님이 개척하신 샤론교회는 미국교회를 빌려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없었는데 아무리 더운 날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어디서인지 시원한 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다른 것 안하시고 일주일 내내 하루 10시간씩 책만 읽으셨습니다. 심방 이야기하면 "이놈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교인들 다 살피고 있다. 사람의 몸이 분주하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아니다"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목회한다고 여기저기 여러 캠퍼스 다니면 "너는 배운 것이 별로 없으면서 뭘 그리 많이 가르치러 하느냐?"하셨고, 제 열쇠 꾸러미를 보시고는 "깨달음을 얻을수록 열쇠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너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구나"하셨습니다. 어느날 교인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부르시더니 신문사에 광고를 내라 하십니다. 여쭈었더니 "더 이상 손님 받지 않는다고 광고를 내라"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70명이 넘어가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마음 먹고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바로 다음 주일 하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쫒겨난 것입니다. 쫒겨난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 어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절 지금도 가끔 돌이켜보면 내 인생 참으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현실을 뭔가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강절을 지내면서 지금은 인간의 발버둥으로 애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잘 정돈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 계절 빈 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December 월 Mon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

The Lord's Words of Warning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2:13-21



새428장(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의 여섯 가지 경고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 다. (1) 바리새인들의 위선(1-3절); (2)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두려움(4-12절); (3) 물질적 탐욕 (13-21절); (4) 생활의 염려(22-34절); (5)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 하지 않는 부주의(35-53절); (6) 종말의 때를 미처 헤아리지 못 하는 영적인 둔감성(54-59절).

누가복음 12장

- 1그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 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 2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 3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 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 4"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 5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 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 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 6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 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 7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 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 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 9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 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 10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 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 11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 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역 려하지 말아라.

Reading insigh

Luke chapter 12 contains six different words of warning from the Lord. 1) Warning against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12: 1–3); 2) Warning against being afraid of earthly authorities rather than of God (12: 4–12); 3) Warning against the greed of wealth (12: 13–21); 4) Warning against the worries of life (12:22–34); 5) Warning against not being prepared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12: 35–53); 6) Warning against lacking spiritual discernment to interpret the times (12: 54–59)

Luke 12

- In the meantime, when so many thousands of the people had gathered together that they were trampling one another, he began to say to his disciples first,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 Nothing is covered up that will not be reveal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known.
- 3 Therefore whatever you have said in the dark shall be heard in the light, and what you have whispered in private rooms shall be proclaimed on the housetops.
- 4"I tell you, my friends, do not fear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have nothing more that they can do.
- ⁵But I will warn you whom to fear: fear him who, after he has killed, has authority to cast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pennies? An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 **7** Why, even the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Fear not; you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 8 "And I tell you, everyone who acknowledges me before men, the Son of Man also will acknowledge before the angels of God,
- 9 but the one who denies me before men will be denied before the angels of God.
- ¹⁰And ever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the on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 11 And when they bring you before the synagogues and the rulers and the authorities, do not be anxious about how you should defend yourself or what you should say,

Bible Clin

눅 LUK 12:24

곳간 (storehouse)

여기서는 저장실을 의미한다.

- 12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 13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 14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 15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 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 16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 17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 18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 19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 20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 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 21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 22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 23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 24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 25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 인들 늘일 수 있느냐?
- **26**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 27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 12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ought to say."
- 13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 ¹⁴But he said to him, "Man, who made me a judge or arbitrator over you?"
- 15 And he said to them, "Take c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covetousness, for one'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 ¹⁶ And he told them a parable, saying, "The land of a rich man produced plentifully,
- 17 and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for I have nowhere to store my crops?'
- 18 And he said, 'I will do this: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 19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ample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relax, eat, drink, be merry.'
- 20 But God said to him, 'Fool! This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whose will they be?'
- 21 So is the one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 22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 23 For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 24Consider the ravens: they neither sow nor reap, they have neither storehouse nor barn, and yet God feeds them. Of how much more value are you than the birds!
- ²⁵And which of you by being anxious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span of life?
- 26 If then you are not able to do as small a thing as that, why are you anxious about the rest?
- **27** Consider the lilies,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yet I tell you,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 28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 29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역려하지 말아라.
- 30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다.
- 31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 **32**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 33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 34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 **36**마치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 37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 **38**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 39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 **40**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 41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42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 43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 44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 28 But if God so clothes the grass, which is alive in the field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 ²⁹ And do not seek what you are to eat and what you are to drink, nor be worried.
- **30**For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seek after these things, and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 31 Instead,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 32"Fear not, little flock, for 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
- 33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needy. Provide yourselves with moneybags that do not grow old, with a treasure in the heavens that does not fail, where no thief approaches and no moth destroys.
- 34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 35"Stay dressed for action and keep your lamps burning,
- **36** and be like men who are waiting for their master to come home from the wedding feast, so that they may open the door to him at once when he comes and knocks.
- 37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m the master finds awake when he comes. Truly, I say to you, he will dress himself for service and have them recline at table, and he will come and serve them
- **38**If he comes in the second watch, or in the third, and finds them awake, blessed are those servants!
- ³⁹But know this, that if the mast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hour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not have left his house to be broken into.
- 40 You also must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 41 Peter said, "Lord, are you telling this parable for us or for all?"
- 42 And the Lord said,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manager, whom his master will set over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portion of food at the proper time?
- 43 Blessed is that servant whom his master will find so doing when he comes.
- 44 Truly, I say to you, he will set him over all his possessions.

Bible Clip

눅 LUK 12:55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광야로부터 오는 남풍은 건조와 더위 를 가져온다.

눅 LUK 12:59

한 푼 (last mite)

로마 화폐 고드란트의 1/2에 해당하는 헬라 화폐 단위이다. 고드란트는 노동 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약 1/64 이다. 그러므로 한 푼은 하루 품삯의 1/128인 아주 작은 가치를 말한다.

- 45그러나 그 종이 마음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 46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 47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 48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 49"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 50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 51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52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 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 54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 55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 대로 된다.
- 56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 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 57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 58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처넣을 것이다.
- 59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45 But if that servant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delayed in coming,' and begins to beat the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to eat and drink and get drunk,
- 46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does not know, and will cut him in pieces and put him with the unfaithful.
- 47 And that servant who knew his master's will but did not get ready or act according to his will, will receive a severe beating.
- **48** But the one who did not know, and did what deserved a beating, will receive a light beating. Everyone to whom much was given, of him much will be required, and from him to whom they entrusted much, they will demand the more.
- 49"I came to cast fire on the earth, and would that it were already kindled!
- 50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with, and how great is my distress until it is accomplished!
- 51 Do you think that I have come to give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rather division.
- 52 For from now on in one house there will be five divided, three against two and two against three.
- 53 They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er, mother-in-law against her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mother-in-law."
- 54He also said to the crowds, "When you see a cloud rising in the west, you say at once, 'A shower is coming.' And so it happens.
- 55 And when you see the south wind blowing, you say, 'There will be scorching heat,' and it happens.
- 56 You hypocrites!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earth and sky, but why do you not know how to interpret the present time?
- 57"And why do you not judge for yourselves what is right?
- 58 As you go with your accuser before the magistrate, make an effort to settle with him on the way, lest he drag you to the judge, and the judge hand you over to the officer, and the officer put you in prison.
- ⁵⁹I tell you, you will never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very last penn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 와서 형과 유산을 나누 게 해 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4-15절).

What did Jesus say to the person who pleaded Jesus to tell his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him? (12:14–15)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질책하셨 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In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God rebuked the wealthy person. Why? (12: 20)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내 영혼의 참 만족

The True Satisfaction of the Soul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19절). 영혼은 세상의 쾌락, 일락, 향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공간은 다름아닌,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만족은 결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부요를 누리고 살면서도 도리어 영혼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함과 외로움과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등 온갖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일락, 향락은 영혼을 위하기는커녕 도리어 영혼을 파멸의 죽음으로 이끕니다(참고. 담전 5: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살 때에참 만족을 누립니다.

The rich fool had a huge misunderstanding about his soul.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rain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12:19).

God created our soul not for it to be merry in the pleasures of the world but to be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glorify God who is the creator and master of our soul. The world renown physicist and mathematician Pascal said in his book Pensees,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In other words, true satisfaction of the human soul does not come from the enjoyment of food and other pleasures of this world.

Despite enjoying great material abundance in the world today, many people still continue to live their lives without experiencing true satisfaction of the soul. Feeling unfulfilled in their souls, many people live their lives struggling with a sense of emptiness, loneliness and even guilt. Their attempts to fill the void inside with things and pleasures of the world only exacerbate their sense of nothingness and death (C.f. 1 Tim 5:6, "But the widow who lives for pleasure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Our souls were made to find satisfaction only when we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live in the grace of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화 Tue

길이 참으시는 주님

The Long-Suffering Lord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3:6-9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 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1-5절). 이 회개의 주제가 무화 과나무 비유(6-9절)와 연결되어, 유대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나 무의 결실을 소망하셨다. 그 후, 예수님은 안식일에 열여덟 해 동 안 귀신들려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유하셨고(10-17절),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 말씀하셨 다(11-21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여정은 계속되었다(22-35절).

누가복음 13장

- 1바로 그 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 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 2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 이라고 생각하느냐?
- 3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 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 4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열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 람이라고 생각하느냐?
- 5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 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 6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 7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 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 겠느냐?'
- 8그러자 포도워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 습니다.
- 9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 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 10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Reading insight

Jesus refers to the people who suffered and died in Galilee and Jerusalem and urges people to repent (13:1–5). This theme of repentance is echoed once again in the parable of a fig tree, in which Jesus warns the people of Israel of God's impending judgment as a fig tree that does not bear fruit will be cut off. After this, on Sabbath day, Jesus heals a woman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18 years (13:10–17), and teaches about the kingdom of God using the metaphor of a mustard seed and yeast (13: 11–21). Jesus continues his journey to Jerusalem (13:22–35).

Luke 13

- 1 There were some present at that very time who told him about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ngled with their sacrifices.
- ²And he answered them, "Do you think that these Galileans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other Galileans, because they suffered in this way?
- ³ No, I tell you; but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 4 Or those eighteen on whom the tower in Siloam fell and killed them: do you think that they were worse offenders than all the others who lived in Jerusalem?
- ⁵No, I tell you; but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 ⁶ And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came seeking fruit on it and found none.
- 7 And he said to the vinedresser, 'Look, for three years now I have come seeking fruit on this fig tree, and I find none.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ground?'
- 8 And he answered him, 'Sir, let it alone this year also, until I dig around it and put on manure.
- Then if it should bear fruit next year, well and good; but if not, you can cut it down."
- 10 Now he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on the Sabbath.

Bible Clip

눅 LUK 13:4

실로암 (Siloam)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예루살렘 동 남부에 위치한 연못. 예수께서는 소경 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 도록 하여 고쳐주셨다(요 9:7).

- 11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 12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 13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14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 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 15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 16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 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 17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 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 **18**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 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 19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 **20**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 21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 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 22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 23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 25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 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 답할 것이다.

- ¹¹And there was a woman who had had a disabling spirit for eighteen years.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fully straighten herself.
- 12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over and said to her, "Woman, you are freed from your disability."
- 13 And he laid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was made straight, and she glorified God.
- 14 But the ruler of the synagogue, indignant because Jesus had healed on the Sabbath, said to the people, "There are six days in which work ought to be done. Come on those days and be healed, and not on the Sabbath day."
- 15 Then the Lord answered him, "You hypocrites! Does not each of you on the Sabbath untie his ox or his donkey from the manger and lead it away to water it?
- 16 And ought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bound for eighteen years, be loosed from this bond on the Sabbath day?"
- 17 As he said these things, all his adversaries were put to shame, and all the people rejoiced at all the glorious things that were done by him.
- ¹⁸He said therefore,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And to what shall I compare it?
- 19 It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that a man took and sowed in his garden, and it grew and became a tree, and the birds of the air made nests in its branches."
- **20** And again he said, "To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 21 It is like leaven that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measures of flour, until it was all leavened."
- **22**He went on his way through towns and villages, teaching and journeying toward Jerusalem.
- 23 And someone said to him, "Lord, will those who are saved be few?" And he said to them,
- 24"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For many, I tell you, will seek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 25 When once the master of the house has risen and shut the door, and you begin to stand outside and to knock at the door, saying, 'Lord, open to us,' then he will answer you, 'I do not know where you come from.'

- 26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 27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 28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 **29**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자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 30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 31바로 그 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 자합니다."
- 32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 33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 34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 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 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 35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 되시다' 할 그 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 **26** Then you will begin to say, 'We ate and drank in your presence, and you taught in our streets.'
- ²⁷But he will say, 'I tell you, I do not know where you come from. Depart from me, all you workers of evil!'
- 28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n you see Abraham and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but you yourselves cast out.
- ²⁹And people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from north and south, and recline at table in the kingdom of God.
- 30 And behold, some are last who will be first, and some are first who will be last."
- 31 At that very hour some Pharisees came and said to him, "Get away from here, for Herod wants to kill you."
- **32** And he said to them, "Go and tell that fox, 'Behold, I cast out demons and perform cures today and tomorrow, and the third day I finish my course.
- 33 Nevertheless, I must go on my way today and tomorrow and the day following, for it cannot be that a prophet should perish away from Jerusalem.'
- **34** O Jerusalem, Jerusalem, the city that kills the prophets and stones those who are sent to it!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brood under her wings, and you would not!
- 35 Behold, your house is forsaken. And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unti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본문에서 주인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포도원지 기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7절)

What did the man who owns a vineyard say to the man who takes care of the vineyard when he saw that the trees did not bear any fruit? (13:7)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지기는 그에게 무엇이라 응답했습니까? (8-9절)

What did the man who works at the vineyard say to the owner in response? (13:8–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아페스의 주님 Jesus of "A-pes"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유대인 무리들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을 찍어버리라"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찍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파텔, 아페스 아우토이스) 하시면서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서하다'는 뜻의 '아페스'라는 희랍어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지기가 한 말, 곧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용절, 큐리에, 아페스 아우텐)라고 한간청에서 '내버려두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닥친 그 무자비한 폭력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아페스 기도에 반격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찍어버려야 할 폭력이 포도원지기의 "그대로 두소서"라는 아페스 간청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로 거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 완전히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In Luke chapter 23:34, Jesus offers a prayer of forgiveness by saying,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t the foot of the torturous cross, people shouted, "Crucify him!" Put differently, they were shouting "Cut him down!" However, Jesus prayed a prayer of forgiveness for the people who shouted Jesus to be cut down by saying, "Father, forgive them" (Pater, a-pes autois). The Greek word 'a-pes' which means "to forgive" in this prayer is also used in verse 8 of our text today when the worker in the vineyard says to the owner, "Sir,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Kurios, a-pes auten), to mean "leave it alone."

Jesus retaliated the violence of people with a prayer of 'a-pes' as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Similarly, the violent act of cutting down of the fig tree with an ax was spared by worker's request of 'a-pes' when he pleaded, "Sir, leave it alone."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that, in order for us to bear fruit in our lives, Jesus sacrificed himself on the cross and died for us. By doing so, Jesus became the fertilizer by which we live a fruit-bearing life. Through his sacrifice, he made it possible for us to have the life of resurrec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수 Wed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

An Invitation to God's Salvation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4:15-24



새518장(통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서두(1-6절)의 안식일 논쟁에서 인간 구원(치유)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한 마디 반문 앞에 적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혼인 잔치의 비유(7-14절)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원 리를 가르치셨고. 또한 큰 잔치의 비유(15-24절)에서 당시 복음 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복을 대조 시키셨다. 결론 부 분(25-3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조건으로 자기부인 과 철저한 준비성이 강조되고 있다.

누가복음 14장

- 1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 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 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 2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 3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 4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 쳐 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 5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 6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 7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 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 8"네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 대를 받았을 경우에.
- 9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 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 10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 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Reading insight

In the debate regarding the Sabbath, the opponents of Jesus could not stand against Jesus' teaching that salvation(healing) of human beings must take priority over everything. In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14:7–14) that follows, Jesus teaches about humility. Then in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14:15–24), Jesus contrasts the lack of faith in Jews who rejected the invitation to the Gospel to those who are poor and despised but have accepted the invitation and enjoyed the wonderful blessings of the great banquet. In the concluding part (14:25–35), Jesu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nying one's self and careful planning and preparation.

Luke 14

- ¹One Sabbath, when he went to dine at the house of a ruler of the Pharisees, they were watching him carefully.
- ²And behold, there was a man before him who had dropsy.
- 3 And Jesus responded to the lawyers and Pharisees, saying,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 ⁴ But they remained silent. Then he took him and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 5 And he said to them, "Which of you, having a son or an ox that has fallen into a well on a Sabbath day, will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 ⁶And they could not reply to these things.
- Now he told a parable to those who were invited, when he noticed how they chose the places of honor, saying to them,
- 8"When you are invited by someone to a wedding feast, do not sit down in a place of honor, lest someone more distinguished than you be invited by him,
- ⁹ and he who invited you both will come and say to you, 'Give your place to this person,' and then you will begin with shame to take the lowest place.
- 10 But when you are invited, go and sit in the lowest place, so that when your host comes he may say to you, 'Friend, move up higher.' Then you will be honored in the presence of all who sit at table with you.
- 11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Bible Clip

눅 LUK 14:2

수종병 (dropsy, 水腫病)

고창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헛배가 불러 호흡곤란을 초래하거나, 근육과 혈액 속에 나쁜 물이 고여서 얼굴과 손과 팔, 다리 등이 붓고 살갗이 썩어가는 증상을 보인다. 당시에는 이런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불치병으로 여겨졌다.

- 12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 13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면 사람들을 불러라.
- 14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 15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16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 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 17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 18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 19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 20도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 21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 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 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 하였다.
- 22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 23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 24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자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 25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12 He said also to the man who had invited him, "When you give a dinner or a banquet, do not invite your friends or your brothers or your relatives or rich neighbors, lest they also invite you in return and you be repaid.
- 13 But when you give a feas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 14 and you will be blessed, because they cannot repay you. For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just."
- 15 When one of those who reclined at table with him heard these things, he said to him, "Blessed is everyone who wi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 ¹⁶But he said to him, "A man once gave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 ¹⁷And at the time for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say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 18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to him, 'I have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out and see it. Please have me excused.'
- 19 And another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examine them. Please have me excused.'
- 20 And another said, 'I have married a wife, and therefore I cannot come.'
- 21 So the servant came and reported these things to his master.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said to his servant, 'Go out quickly 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and bring in the poor and crippled and blind and lame.'
- 22 And the servant said, 'Sir, what you commanded has been done, and still there is room.'
- 23 And the master said to the servant, 'Go out to the highways and hedges and compel people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 24 For I tell you, n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shall taste my banquet."
- 25 Now great crowds accompanied him, and he turned and said to them,

- 26"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 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8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하지 않겠느냐?
- **29**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 **30**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 31도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 느냐?
- **32**당해 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 33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34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 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 35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26"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 27 Whoever does not bear his own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 28 For which of you, desiring to build a tower, does not first sit down and count the cost, whether he has enough to complete it?
- ²⁹Otherwise, when he has laid a foundation and is not able to finish, all who see it begin to mock him,
- 30 saying, 'This man began to build and was not able to finish.'
- **31**Or what king, going out to encounter another king in war, will not sit down first and deliberate whether he is able with ten thousand to meet him who comes against him with twenty thousand?
- **32** And if not, while the other is yet a great way off, he sends a delegation and asks for terms of peace.
- 33 So therefore, any one of you who does not renounce all that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 34"Salt is good, but if salt has lost its taste, how shall its saltiness be restored?
- 35 It is of no use either for the soil or for the manure pile. It is thrown away.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큰 잔치 비유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참석 초청을 거부(사 양)했습니까? (18-20절) In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what kind of people rejected the invitation to the banquet? (14: 18-20)

종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고 말했을 때 주인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23절) What did the master commanded the servant to do when he told the master that "There is still room"? (14: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울상 짓는 그리스도인? A Joyless Christian?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노래 가락에 맞춰 추는 춤이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에 도저히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는 언제나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고난과 절제의 영성을 최고로 생각하여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 안에 은밀한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혼자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예배당 벽속에 가두어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 먹을 것을 받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들의 영성이 탁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과 희생, 절제와 순종 이런 덕목들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 비신앙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잔치의 영성은 곧 기쁨의 영성입니다. 기쁨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주제인 것이 분명하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울상 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God is always into throwing a banquet for those who are saved. And in this banquet, there is no shortage of singing and dancing for God. If you are at this banquet, you, too, will not be able to just sit there doing nothing. Christians are those people who have attended this banquet. For this reason, Christians should always be full of joy. How can we not rejoice when our sins have been washed away and we have become God's children by the grace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In church history, there were ascetics and mystics in the Middle Ages who regarded the discipline of suffering and self-denial as the highest form of virtue that they intentionally sought out life in the mountains or wilderness. Some of them made and live their whole life in a tiny prayer room in a monastery or locked themselves up in the church wall, feeding themselves through a small hole in the wall. In a way, this kind of spirituality may seem very deep and holy to some people. But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guestion if this is a spirituality that we need to imitate or practice in our own lives.

Spiritual virtues or disciplines like suffering and sacrifice, self-denial and obedience are certainly virtues that all of us need to pursue. But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eeking joy and pleasure is not wrong as Christians. Spirituality of the banquet is the spirituality of joy. If joy is clearly at the heart of Christmas and Easter celebration, then joy is the essence of our Christian faith. For this reason, there is no such thing as a "joyless Christia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목 Thu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God who seeks after the Lo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5:11-24



새294장(통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그 광 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1-2절).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들, 곧 잃은 양의 비유(3-7절), 잃은 드라크마(은전)의 비 유(8-10절), 잃은 아들(탕자)의 비유(11-32절)를 말씀하셨다. 하 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잃은 자들을 찾으러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 15장

- 1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 2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구나."
- 3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4"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 5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 6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 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 7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 8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 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 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 9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말하기를 '나 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 10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 11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 12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 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Reading insigh

When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gathered to hear Jesus,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criticized Jesus for welcoming them (15:1–2). Then Jesus tells them three parables that deal with lost things;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15:3–8),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15:8–10) and the Parable of the Lost Son (15:11–32). Jesus the Son of God came to this world to find the lost.

Luke 15

-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drawing near to hear him.
- And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grumbled, saying,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 ³So he told them this parable:
- 4"What man of you, having a hundred sheep, if he has lost one of them, does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one that is lost, until he finds it?
- ⁵ And when he has found it,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
- ⁶ And when he comes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his neighbors, saying 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that was lost.'
- ⁷ Just so, I tell you,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 8"Or what woman, having ten silver coins, if she loses one coin, does not light a lamp and sweep the house and seek diligently until she finds it?
- ⁹ And when she has found it, she calls together her friends and neighbors, saying,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coin that I had lost.'
- 10 Just so, I tell you, there is joy before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 11 And he said,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 12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share of property that is coming to me.' And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Bible Clip

눅 LUK 15:8

드라크마 (silver coins)

로마의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 닌 헬라의 화폐 단위. 신약 시대에는 1/4세겔의 가치를 가졌으며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었다(마 20:9).

-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 14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 15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 16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 17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 **18**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 19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 20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 21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 22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 24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 25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 26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
- 27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 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 **28**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 13 Not many days later,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he had and took a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squandered his property in reckless living.
- 14And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a severe famine arose in that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 15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 ¹⁶ And he was longing to be fed with the pods that the pigs ate, and no one gave him anything.
- 17"But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more than enough bread, but I perish here with hunger!
- 18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 ¹⁹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 ²⁰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compassion, and ran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 21 And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 22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Bring quickly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hoes on his feet.
- 23 And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celebrate.
- ²⁴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 25"Now his older son was in the field, and as he came and drew near to the house, he heard music and dancing.
- **26** And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asked what these things meant.
- 27 And he said to him, 'Your brother has come, and your father has killed the fattened calf, because he has received him back safe and sound.'
- 28 But he was angry and refused to go in. His father came out and entreated him,

- 29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 30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 니다.'
- 31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 32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 29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these many years I have served you, and I never disobeyed your command, yet you never gave me a young goat, that I might celebrate with my friends.
- **30**But when this son of yours came, who has devoured your property with prostitutes, you killed the fattened calf for him!'
- 31 And he said to him,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 **32**It was fitting to celebrate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he was lost, and is fou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당자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자 스스로 돌이켜 한 말은 무엇입니까? (17-19절) What did the prodigal son say to himself when no one would give him anything to eat, even the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15:17-19)

큰 아들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여 준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 놓자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은 무 엇입니까? (31-32절)

When the older son complained against the father for throwing his brother a banquet, what did the father say to the older son? (15:31–32)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아버지가 되어야 When You Become a Father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러시아의 어느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려고 가톨릭 교회 성직자이자 하바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이 그 곳에 가서 실물보다 크게 그린 거대한 그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세세한 부분까지 음미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Day Break공동체에서 정신박약 장애우들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감명을 받고 1992년에 저술한 '탕자의 귀향' 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모습을 탕자에서 큰아들의 모습으로 빗대는 순서를 거 쳐, 끝내 슬픔과 용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소 명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헨리 나우웬은 이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들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치유하고, 마침내 잔칫상에 초대한 아버지의 그 두 손(엄밀히, 한 손은 아버지의 강인한 손,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어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그는 "우리가 만일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종착점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며, 진정한 안식처 또한 찾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n a museum in Russia, there hangs a painting by the famous Dutch artist named Rembrandt en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One day, a Catholic priest and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named Henry Nouwen visited the museum to look at the painting. There, he stood in front of the painting for hours, carefully observing every aspect of the painting. He was mesmerized and so moved by the merciful portrayal of the father embracing the prodigal son that he gave up his teaching job and moved into a small community for mentally retarded people in Canada called "Day Break" and spent the rest of his life serving the people there until his death in 1996 by heart attack.

Inspired by Rembrandt's painting, Henry Nouwen wrote a booked en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in 1992. In this book, he described himself first identifying with the prodigal son in the story, then with the older son, and finally ending up with hearing the call to be the father who represent grief, forgiveness and the heart of generosity.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most people think that returning to the father's house is the ultimate point of the story. But Henry Nouwen argues that there is a bigger point that this story is making. It is the call to be the hands of the father (strictly speaking, one is the strong hand of the father and the other is the gentle hand of the mother) who forgave, healed, accepted and welcomed two sons to the banquet. He concludes that unless we arrive at a place of forgiveness and welcome, we haven't arrived at our final destination in our spiritual journey and that we will not find true sabbath in our li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ᄀᅼᄃᇬ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금 Fri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The life of a wise steward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6:19-31



새95장(통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1-13절)에서 제자들은 의로운 청지기들 로서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 들보다 재물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사용할 것 을 가르치셨다. 아울러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한 쪽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누구보다 하 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세로 재물을 축적함으로써 돈을 섬기고 있다고 비판한다(14-18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19-31절)에서 가난한 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부자의 자기만족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다.

누가복음 16장

- 1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 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 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 2그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 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 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 3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 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 4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 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 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 5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 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 고물었다.
- 6그 사람이 '기름 백 말이오'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 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쉰 말이라고 적으시오'하고 말하였다.
- 7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 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이오'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 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여든 섬 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 8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 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 는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 9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 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워 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Reading insight

I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16:1–13), Jesus taught the disciples to use their wealth wiser than the unrighteous stewards of the world. In addition, Jesus said that the Pharisees who appear to serve God with more religious zeal than others are like those who serve two masters because they serve money by accumulating wealth with their religious authority. (16:14–18) I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16:19–31), Jesus warns of the complacency of the rich who completely ignore the suffering of the poor.

Luke 16

- ¹He also said to the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 had a manager, and charges were brought to him that this man was wasting his possessions.
- ²And he called him and said to him, 'What is this that I hear about you? Turn in the account of your management, for you can no longer be manager.'
- ³ And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shall I do, since my master is taking the management away from me? I am not strong enough to dig, and I am ashamed to beg.
- ⁴I have decided what to do, so that when I am removed from management, people may receive me into their houses.'
- 5So, summoning his master's debtors one by one, he said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 ⁶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oil.'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sit down quickly and write fifty.'
- 7 Then he said to another, 'And how much do you owe?'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eighty.'
- 8 The master commended the dishonest manager for his shrewdness. For the sons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generation than the sons of light.
- ⁹ And I tell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 so that when it fails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Bible Clip

눅 LUK 16:1

청지기 (steward)

가정이나 가정 일에 대한 관리자, 집 사, 시종을 의미한다. 여기서 '청지기' 는 영어성경 NIV-manager로 표기되 어 있다.

눅 LUK 16:6-7

말(measures of oil), 섬(measures of wheat)

'말'은 구약의 '밧'에 해당하는 양으로 약 22 l 이고, '석'은 구약의 '고르'와 같은 양으로 약 230 l 이다.

- 10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 11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 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 12도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 13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 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14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 15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 16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 로 밀고 들어간다.
- 17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 18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 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 도 가음하는 것이다."
-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 **20**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 21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 22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 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 23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 24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 10 "One who is faithful in a very little is also faithful in much, and one who is dishonest in a very little is also dishonest in much.
- 11 If then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nrighteous wealth, who will entrust to you the true riches?
- 12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
- 13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 14 The Pharisees, who were lovers of money, heard all these things, and they ridiculed him.
- 15 And he said to them, "You are those who justify yourselves before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For what is exalted among men is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 **16**"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until John; since then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s preached, and everyone forces his way into it.
- ¹⁷But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away than for one dot of the Law to become void.
- **18** "Ever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commits adultery, and he who marries a woman divorced from her husband commits adultery.
- 19"There was a rich man who was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who feasted sumptuously every day.
- **20** And at his gate was laid a poor man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 ²¹ who desired to be fed with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Moreover,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 ²²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 23 and in Hades, being in torment,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Abraham far off and Lazarus at his side.
- 24 And he called out,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end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in anguish in this flame.'

- 25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 26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수도 없다.'
- 27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 28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 받는 이 곳에 오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 **29**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 30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 31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Bible Clip

눅 LUK 16:29

모세와 예언자들 (Moses and the prophets)

모세는 모세오경을, 예언자는 예언서 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구약 성경 전 체를 말한다.

- 25 But Abraham said, 'Child, remember that you in your lifetime received your good things, and Lazarus in like manner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nguish.
- 26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in order that those who would pass from here to you may not be able, and none may cross from there to us.'
- 27 And he said, 'Then I beg you, father, to send him to my father's house--
- 28 for I have five brothers--so that he may warn them, lest they also come into this place of torment.'
- 29 But Abraham sai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 **30** And he said, 'No, father Abraham, but if someone goes to them from the dead, they will repent.'
- ³¹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hear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convinced if someone should rise from the dea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 각각 어디로 갔습니까? (22-23절) Where did the beggar Lazarus and the rich man go when they died? (16:22-23)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24절)

What did the rich man say to Abraham when he saw Abraham with Lazarus by his side? (16: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

Leading to true repentance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살아 있는 형제 다섯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함으로써 그들 모두 자기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31절). 따라서 이 비유의 초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소생) 자체가 사람을회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조차도 전국적인 회개나, 전세계적인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을진정 회개로 이끄는 것은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도 아닙니다. 비록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자가 지옥의 불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의 다섯 형제에게 가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고 끝내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끄십니다.

When the rich man who fell into Hades saw Lazarus entering the kingdom of heaven, he begged Abraham to "send him to the five living brothers to testify, so that they all may not come to such a place of suffering." Then Abraham spoke.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16:31). Therefore, the focus of this parable is tha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does not in itself make a person repent.

Even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 not lead to national or worldwide repentance. It is not miracles, like the resurrection of a dead person, that definitively drives people to repentance.

Nor is it testimony of heaven and hell. Even if Lazarus comes back to life, goes to his five brothers, and shouts fervently about the torment of the rich man in the fires of hell, they still will not believe and will never repent. So, what can lead a person to repentance?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The words of Moses and the prophets are clearly referring to the Word of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came into the world. He is Jesus Christ. In the end, only Jesus Christ can really lead people to repentan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토 Sat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A person of faith, a person of gratitude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7:11-19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실족케 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교훈(1-4 절)과 더불어 믿음과 종으로 서의 겸손함에 대한 교훈(5-10절)을 주셨다. 그런 후,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을 지나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서 열 명의 나병환자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을 고쳐 주셨 고(11-19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다(20-37절).

누가복음 17장

- 1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 람은 화가 있다.
- 2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 을 것이다.
- 3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 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 4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 5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 시오."
- 6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 면, 그대로 될 것이다."
- 7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 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 8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 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 9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 10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 입니다'하여라."
- 11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Reading insigh

Jesus gave lessons on temptation and forgiveness of sins (17:1–4) as well as lessons on faith and humility as a servant (17:5–10). Then, as he was passing through the borders of Samaria and Galilee, he encountered ten lepers in a village, where he healed them (17:11–19) and told of what would happen in the end times (17:20–37).

Luke 17

- ¹And he said to his disciples, "Temptations to sin are sure to come, but woe to the one through whom they come!
- ²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a millstone were hung around his neck and he were cast into the sea than that he should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in.
- ³ Pay attention to yourselves! If your brother sins, rebuke him, and if he repents, forgive him,
- 4 and if he sins against you seven times in the day, and turns to you seven times, saying, 'I repent,' you must forgive him''
- ⁵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our faith!"
- 6 And the Lord said, "If you had faith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you could say to this mulberry tree, 'Be uprooted and planted in the sea,' and it would obey you.
- 7"Will any one of you who has a servant plowing or keeping sheep say to him when he has come in from the field, 'Come at once and recline at table'?
- 8 Will he not rather say to him, 'Prepare supper for me, and dress properly, and serve me while I eat and drink, and afterward you will eat and drink'?
- Does he thank the servant because he did what was commanded?
- 10 So you also, when you have done all that you were commanded, say, 'We are unworthy servants; we have only done what was our duty.'"
- 11 On the way to Jerusalem he was passing along between Samaria and Galilee.

12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 13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14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 15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 16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 17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 18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 19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워하였다."
- 20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 21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 **22**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 23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 24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 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 25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 **26**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 27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 28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Bible Clip

눅 LUK 17:26

노아의 시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타락한 백성들은 결국 노 아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멸망 당했다.

- 12 And as he entered a village, he was met by ten lepers, who stood at a distance
- 13 and lifted up their voices, saying,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 14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 15 Then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turned back, praising God with a loud voice;
- 16 and he fell on his face at Jesus' feet, giving him thanks. Now he was a Samaritan.
- 17 Then Jesus answered, "Were not ten cleansed? Where are the nine?
- 18 Was no one found to return and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 19 And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 **20**Being asked by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he answered them, "The kingdom of God is not coming with signs to be observed,
- 21 nor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 22 And he said to the disciples, "The days are coming when you will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 and you will not see it.
- 23 And they will say to you, 'Look, there!' or 'Look, here!' Do not go out or follow them.
- 24For as the lightning flashes and lights up the sky from one side to the other, so will the Son of Man be in his day.
- **25** But first he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is generation.
- ²⁶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will it be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 27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and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 when Noah entered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 ²⁸Likewise, 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Lot--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buying and selling, planting and building,

Mama

- 29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 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 30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 31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 32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 33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 34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 35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6절 없음)
- 37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 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Bible Clip

눅 LUK 17:37

주검 (the body)

송장(죽음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주검'은 영어성경 NIV-dead body로 표기되어 있다.

- 29 but on the day when Lot went out from Sodom, fire and sulfur rained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 30 so will it be on the day when the Son of Man is revealed.
- 31 On that day, let the one who is on the housetop, with his goods in the house, not come down to take them away, and likewise let the one who is in the field not turn back.
- 32 Remember Lot's wife.
- 33 Whoever seeks to preser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will keep it.
- **34**I tell you, in that night there will be two in one be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 35 There will be two women grinding together.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 **37** And they said to him, "Where, Lord?" He said to them, "Where the corpse is, there the vultures will gat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무엇이라 소리 높 여 외쳤습니까? (13절)

When the ten lepers saw Jesus, they stood far off and cried out to him. What did they shout? (17:13)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

Hearing their shouts, what did Jesus say to them? (17:14)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워싱톤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감사의 자리

The attitude of gratitude

예수님으로 인해 나병을 고침 받은 열 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특별히 그는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하나님의 선물(은혜)만 받았지, 실상 그 선물(은혜)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도,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의 차이도, 택함 받은 백성과 멸망 받을 백성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에 차이입니다. 그 사마리아출신의 나병환자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15절),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16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입술로, 재능으로, 물질로, 헌신과 봉사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감사의 자리는 은혜를 아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찬양과 예배로 기쁨을 충만이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 깊은 사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Of the ten people who had been cured of leprosy by Jesus, only one person (especially a Samaritan who was hated by the Jews) returned to Jesus and gave thanks. The remaining nine received God's gift (grace), and, in fact, they did not know what the gift (grace) was.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was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ean and the unclean, nor the chosen people and the pagan. The difference is whether you have an attitude of gratitude for the grace you received or not. The Samaritan leper,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17:15), returned to Jesus and fell at his feet, giving thanks (17:16).

If you have received God's grace, you must give thanks for the grace given. In the past, we too have received countless graces. Even in the midst of a painful pandemic, if we are looking back, we have no choice but to confess that everything is God's grace. But we must examine how grateful we are for the grace we have been given. It is not a true faith if we are just mentally aware of grace. We must come out to give thanks and express our gratitude with our lips, our talents, our material things, our dedication and service. The attitude of gratitude should be in the heart that experienced grace. It is the privilege of salvation through faith. It is a heart full of joy through praise and worship. And it is a devotion that gives deep love to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

묵상 reading & QT 한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lei Yel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9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Bummer Lamb

이승우 목사 (워싱톤연합감리교회)

혹시 Bummer Lamb(의역: 실패한 양)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어미 양이 새끼를 낳은 후에 자기가 낳은 새끼를 중에서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양을 일 컫는 말입니다. 어미 양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잘 알려진 바는 없고 아무튼 어미 양은 그 새끼 양이 젖을 먹고 싶어서 자기에게 로 오면 사정없이 발로 차버려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오지 못하게 한 새끼는 그 후 절대로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어미 양에게 버림받은 새끼 양은 마치 목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자기 목을 아래로 축 늘어트리고는 기가 죽은 모습으로 지내는데 바로 그렇게 어미 양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새끼 양을 "Bummer Lamb" 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Bummer Lamb는 어미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Bummer Lamb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어미 곁에 가지 못한 채 목을 늘어트리고 있는 불쌍한 Bummer Lamb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을 손으로 떠서 먹여주고 집안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고 담요로 덮어 자기 가슴에 안아 주므로 그 양이 자기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봐줘서 양이 잘 자라면 목자는 그 양을 다른 양들이 있는 양우리로 돌려보내서 다른 양들과 같이 지내게 하는데 그러다가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양이 바로 그 Bummer Lamb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를 돌봐주던 목자의 음성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이랍니다. 목자가 그 양을 다른 양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양은 자기를 돌봐준 목자의음성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Bummer Lamb과 같지 않나 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기에 기쁘고 감사 한 날입니다.

December 월 Mon

기도에 관한 교훈들

Precepts on Prayer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8:1-8



새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우선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 - 끈질긴 과부의 비유(1-8절)와 올 바른 기도의 비유(9-14절)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후,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15-17절). 이어서 젊은 부자 관원의 영생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의 반응(18-30절)과 아울러 장차 인 자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다(31-34절). 그런 후, 걸인 시각장애인을 고쳐 주셨다(35-43절).

누가복음 18장

- 1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 2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 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 3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 4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 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 5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 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 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 6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들어라.
- 7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 버려 두시겠느냐?
- 8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수 있겠느냐?"
- 9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 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 11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 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 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Reading insight

First, Jesus taught about prayer through two parables – the parable of the persistent widow (18:1–8) and the parable of the pharisee and the tax collector (18:9–14) – and then blessed the children (18:15–17). There was the question about eternal life from the rich young ruler and his response to Jesus (18:18–30). Jesus foretold of the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that the Son of Man Jesus would endure in the future (18:31–34). Then he healed a blind man who was a beggar (18:35–43).

Luke 18

- And he told them a parable to the effect that they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lose heart.
- ²He said, "In a certain city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respected man.
- ³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who kept coming to him and saying, 'Give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 ⁴For a while he refused, but afterward he said to himself, 'Though I neither fear God nor respect man,
- 5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give her justice, so that she will not beat me down by her continual coming."
- 6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righteous judge says.
- 7 And will not God give justice to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 Will he delay long over them?
- 8I tell you, he will give justice to them speedily.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 9 He also told this parable to some who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and treated others with contempt:
- 10"Two men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 11 The Pharisee, standing by himself, prayedthus: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 extortion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Bible Clip

눅 LUK 18:11

남의 것을 빼앗는 자 (extortioners)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남의 재물을 억지로 갈취하는 자들을 말한다. 여기 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영어성경 NIV-robbers로 표기되어 있다.

Bible Clip

눅 LUK 18:18

영생 (eternal life, 永生)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을 말한다.

눅 LUK 18:26

구원 (saved)

위기나 위험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 방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행 16:31).

- 12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 13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14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 15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 16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 17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18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19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 20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 21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23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 24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 25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 **26**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27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 님은 하실 수 있다."

- 12 I fast twice a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get.'
- 13 But the tax collector, standing far off, would not even lift up his eyes to heaven, but beat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 14I tell you, this man went down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the 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 15 Now they were bringing even infants to him that he might touch them. And when the disciples saw it, they rebuked them.
- 16 But Jesus called them to him, saying, "Let th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 17 Truly,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shall not enter it."
- 18 And a ruler asked him,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 19 And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 **20**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 21 And he said, "All these I have kept from my youth."
- 22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him, "One thing you still lack. Sell all that you have and distribut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 ²³But when he heard these things, he became very sad, for he was extremely rich.
- ²⁴Jesus, seeing that he had become sad, said, "How difficult it is for those who have wealt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5 For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perso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6** Those who heard it said. "Then who can be saved?"
- 27 But he said, "What is impossible with men is possible with God"

- 28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
-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부모나자식을 버린 사람은.
- 30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 31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32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 33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 34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 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 35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 **36**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 보았다.
- **37**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 었다.
- 38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39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여겨 주십시오."
- 40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 41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 42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워하였다."
- 43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28 And Peter said, "See, we have left our homes and followed you."
- 29 And he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re is no one who has left house or wife or brothers or parents or children,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 30 who will not receive many times more in this time,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 31 And taking the twelve, he said to them, "See,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everything that is written about the Son of Man by the prophets will be accomplished.
- **32** For he will be delivered over to the Gentiles and will be mocked and shamefully treated and spit upon.
- 33 And after flogging him, they will kill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rise."
- 34 But they understood none of these things. This saying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grasp what was said.
- 35 As he drew near to Jericho, a blind man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 36 And hearing a crowd going by, he inquired what this meant.
- 37 They told him,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 38 And he cried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 39 And those who were in front rebuked him, telling him to be silent. But he cried out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 40 And Jesus stopped and commanded him to be brought to him. And when he came near, he asked him,
- 41"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said, "Lord, let me recover my sight."
- 42 And Jesus said to him, "Recover your sight;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 **43** And immediately he recovered his sight and followed him, glorifying God. And all the people, when they saw it, gave praise to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Why did Jesus tell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18:1)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 신 후,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After telling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what did Jesus say with groaning? (18: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한 판 승부 About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을 집요하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한 과부에 대해 스스로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5절). 여기에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휘포피아조'라는 희랍어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권투 시합에서 쓰는 말로써, '자꾸만 얼굴을 때려 눈이 멍들게 하다'는 뜻입니다. 치열하게 권투 시합을 하다 보면 양 선수 모두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불의하기로 악명 높은 재판장이 과부가 계속해서 졸라 대는 것이 성가시고 귀찮아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에게 백기를 들고 만 것입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펀치를 계속 맞아 나가떨어지고 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권투시합으로 치면 기권패를 한 셈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압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기도의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An unjust judge tells himself about a widow who persistently visits him and complains: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so that she won't eventually come and attack me!" (18:5). The word "bothering"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Hupopiazo." This word was originally used in a boxing match and means "to bruise the eyes by hitting the face over and over again." In a fierce boxing match, both fighters are bound to get bruises around their eyes. Therefore, the judge, who was notorious for injustice, became so annoyed and bothered by the widow's constant harassing that he raised the white flag in surrender to the helpless widow.

It is as if the judge is knocked down by the widow's punch. In boxing terms, he would have withdrawn and lost. Sometimes you may feel helpless in the face of difficult and challenging tasks. No matter where you look in the world, you have nowhere to turn. You are put in a tight spot. What you can and must do in such a situation is pray.

Just like Jacob who wrestled with God at the Jabbok River ferry, you must fight a battle of prayer with God. If you pray persistently without giving up, your good Heavenly Father will surely answer you.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연역으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화 Tue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Jesus enters Jerusalem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9:41-48



새586장(통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하였고(1-10 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해가자 사람들이 곧 하 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을 때, 예수님은 열 므나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치셨다 (11-27절).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 하셨는데(28-40절), 장차 멸망할 성읍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41-46절). 그 후, 성 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47-48절).

누가복음 19장

- 1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 2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 3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 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 4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 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 5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 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 어야하겠다."
- 6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 7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 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 8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 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 겠습니다."
- 9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 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 10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워하러 왔다."
- 11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 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 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2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Reading insight

The tax collector Zacchaeus experienced salvation through meeting Jesus (19:1–10). When Jesus and his companions were near Jerusalem and people expected that the kingdom of God would soon appear, Jesus taught the parable of ten minas to teach them how to prepare for the kingdom of God (19:11–27). Finally, Jesus entered Jerusalem on a colt (19:28–40), and he wept over the city that will be destroyed. He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the merchants (19:41–46). After that, he taught daily in the temple (19:47–48).

Luke 19

- ¹He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 ²An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rich.
- 3 And he was seeking to see who Jesus was, but on account of the crowd he could not, because he was small of stature.
- ⁴So he ran o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to see him, for he was about to pass that way.
- ⁵And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 ⁶So he hurried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joyfully.
- 7 And when they saw it, they all grumbled, "He has gone in to be the guest of a man who is a sinner."
- 8 And Zacchaeus stood and said to the Lord, "Behold, Lord, the half of my goods I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restore it fourfold."
- ⁹ 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since he also is a son of Abraham.
- ¹⁰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 ¹¹As they heard these things, he proceeded to tell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to Jerusalem, and because they supposed that the kingdom of God was to appear immediately.
- 12 He said therefore, "A nobleman went in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hen return.

Bible Clip

눅 LUK 19:5

삭개오 (Zacchaeus)

'순결'이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는 여리 고성의 세리장으로 키가 작았다. 주님 을 만나 변화 받은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 13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므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 14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 15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 16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 17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 18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 19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 20도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 21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므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 22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 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 24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 25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므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 27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워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 **28**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 렊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 13 Calling ten of his servants, he gave them ten minas, and said to them, 'Engage in business until I come.'
- ¹⁴But his citizens hated him and sent a delegation after him, saying, 'We do not want this man to reign over us.'
- 15 When he returned, having received the kingdom, he ordered these servants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to be called to him, that he might know what they had gained by doing business.
- 16 The first came before him, saying, 'Lord, your mina has made ten minas more.'
- 17 And he said to him, 'Well done, good servant!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you shall have authority over ten cities.'
- 18 And the second came, saying, 'Lord, your mina has made five minas.'
- 19 And he said to him, 'And you are to be over five cities.'
- 20 Then another came, saying, 'Lord, here is your mina, which I kept laid away in a handkerchief;
- ²¹ for I was afraid of you, because you are a severe man. You take what you did not deposit, and reap what you did not sow.'
- 22 He said to him, 'I will condemn you with your own words, you wicked servant! You knew that I was a severe man, taking what I did not deposit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 23 Why then did you not put my money in the bank, and at my coming I might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 24 And he said to those who stood by, 'Take the mina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he ten minas.'
- 25 And they said to him, 'Lord, he has ten minas!'
- 26 'I tell you that to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but from the one who has not,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 27 But as for these enemies of mine, who did not want me to reign over them, bring them here and slaughter them before me."
- 28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ent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29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 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 30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 31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 32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 33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 34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 35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 **36**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 37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 **38**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 39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 **40**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 42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 43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 44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45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 시며

Bible Clip

눅 LUK 19:43

토성 (embankment, 土城)

적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 높이만큼 높게 쌓은 흙무더기 언덕이다.

- 29 When he drew near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that is called Olivet, he sent two of the disciples,
- **30**saying, "Go into the village in front of you, where on entering you will find a colt tied, on which no one has ever yet sat. Untie it and bring it here.
- 31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untying it?' you shall say this: 'The Lord has need of it.'"
- 32 So those who were sent went away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 33 And as they were untying the colt, its owners said to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 34 And they said, "The Lord has need of it."
- 35 And they brought it to Jesus, and throwing their cloaks on the colt, they set Jesus on it.
- 36 And as he rode along, they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 **37** As he was drawing near--already on the way down the Mount of Olives--the whole multitude of his disciples began to rejoice and praise God with a loud voice for all the mighty works that they had seen,
- 38 saying,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 39 And some of the Pharisees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rebuke your disciples."
- 40 He answered, "I tell you, if these were silent, the very stones would cry out."
- 41 And when he drew near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 42 saying, "Would that you, even you, had known on this day 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But now they are hidden from your eyes.
- 43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set up a barricade around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 44 and tear you down to the ground, you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upon another in you,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 45 And he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sold,

Mamo

- 46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 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 의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 47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 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 하고 있었으나,
- 48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 46 saying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 **47** And he was teaching daily in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principal men of the people were seeking to destroy him,
- 48 but they did not find anything they could do, for all the people were hanging on his wor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 셨을 때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3-44절)

Why did Jesus weep when he approached the city of Jerusalem? (19:43–44)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 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6절)

What did Jesus say when he entered the temple to drive out the merchants? (19:46)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41절). 예수님은 머지않아 로마 군대가 침입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은 물론이요, 그 성읍 안에 거하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할 것을 예고하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희랍어 단어는 '클라이오'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읍(泣)'으로써 소리 없이 아주 작은 소리로 흐느껴울 때 쓰입니다. 예수님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근심과 분노로 흐느껴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이 임함으로 멸망 당할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의 눈물이며, 동시에 그러한 심판을 자초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차별과 온갖 부정의를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지에 대해 근심하며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해 분노하며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When Jesus approached the city of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19:41). Jesus wept as he predicted that the Roman army would soon invade and destroy the city and its splendid temple, as well as the slaughtering of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the city. The Greek word used here is "klaio" that is in Chinese character "Eup(立)" which means that a person weeps silently in a very low voice. Jesus wept with sorrow and anger with a burning heart.

Those tears are tears of sorrow for fellow Jews who will be destroyed as God's judgment descends like a raging fire. They were also tears of anger against the hypocrisy, disobedience, and pride of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at the time who caused such judgment. We need these tears today too. We should weep at the racism and all kinds of injustice that are rampant in the land we live in. We must shed tears as we see the divided reality of our beloved Korea peninsula. We should weep with sorrow over God's return anticipating how harsh God's judgment will be. We should weep and cry in godly anger over the sins of all nations that will bring God's judgment upon oursel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영기분의 연역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수 Wed

수태고지 (受胎告知)

Annunciation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26-38



새104장(통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서 기자는 서문(1-4절)에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 기 위함"인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 후,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와 엘리사벳의 이야기(5-25절)와 더불어 '수태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로 알려진 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한 사건(26-38절)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1:1-38

- 1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 2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 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 3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 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4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5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 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 6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 7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 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 8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 9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 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 10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 었다.
- 11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 12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Reading insight

In the preface (1:1–4),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reveals that the purpose of his writing is to make Theophilus, the most honorable,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he has been taught." Then there is the story of John the Baptist's parents, Zacharias and Elizabeth (1:5–25). Known as the "Annunciation", it records the incident (1:26–38) where the angel Gabriel appeared to Mary and heralded the conception of Jesus Christ.

Luke 1:1-38

- Inas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a narrative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among us,
- ² just as those who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have delivered them to us.
- ³ it seemed good to me also, having followed all things closely for some time past,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 4 that you may have certainty concerning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 ⁵ In the days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of the division of Abijah. And he had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Aaron, and her name was Elizabeth.
- 6 And they were both righteous before God, walking blamelessly in all the commandments and statutes of the Lord.
- ⁷But they had no child,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and both were advanced in years.
- 8 Now while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when his division was on duty,
- ⁹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he was chosen by lot to enter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 ¹⁰And the whole multitude of the people were praying outside at the hour of incense.
- ¹¹ And there appeared to him an angel of the Lord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 12 And Zechariah was troubled when he saw him, and fear fell upon him.

Bible Clip

눅 LUK 1:11

분항하는 제단 (altar of incense) 성소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제사장은 제단 향에 불을 피워 기도했다.

- 13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 14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 15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 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 16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 17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 18사가라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 19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 20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 21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 22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 23사가라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 24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25"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 움을 없이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 26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 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 27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 28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 13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for your prayer has been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ohn.
- 14 And you will have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joice at his birth,
- 15 for he will be great before the Lord. And he must not drink wine or strong drink,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from his mother's womb.
- 16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children of Israel to the Lord their God,
- 17 and he will go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just, to make ready for the Lord a people prepared."
- 18 And Zechariah said to the angel, "How shall I know this? For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advanced in years."
- 19 And the angel answered him, "I am Gabriel. I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and I was sent to speak to you and to bring you this good news.
- 20 And behold, you will be silent and unable to speak until the day that these things take place,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y words, which will be fulfilled in their time."
- 21 And the people were waiting for Zechariah, and they were wondering at his delay in the temple.
- 22 And when he came out, he was unable to speak to them, and they realized that he ha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And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and remained mute.
- 23 And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ended, he went to his home
- 24 After these days his wife Elizabeth conceived, and for five months she kept herself hidden, saying,
- 25 "Thus the Lord has done for me in the days when he looked on me, to take away my reproach among people."
- 26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of Galilee named Nazareth,
- 27 to a virgin betroth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house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 28 And he came to her and said, "Greetings, O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 **29**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 30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 31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 32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 **33**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 34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 35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 36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 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 이 되었다.
- 37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 38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 ²⁹ But she was greatly troubled at the saying, and tried to discern what sort of greeting this might be.
- 30 And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 31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 32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 33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 34 And Mary said to the angel,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 35 And the angel answered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called holy--the Son of God.
- **36** And behold, your relative Elizabeth in her old age has also conceived a son, and this is the sixth month with her who was called barren.
- 37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 **38** And Mary said,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 도의 잉태를 예고한 천사의 이름 은 무엇입니까? (26절) What was the name of the angel who appeared to Mary and heralded the conception of Jesus Christ? (1:26)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38절) What did Mary say after hearing the angel's words?

God Moment

(1:3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손용억(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탄절의 기적

Christmas miracle

중세의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rivaux. 1090-1153)는 예수님 의 탄생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의 기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된 기 적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기적이 며, 셋째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성취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떤 기적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사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시키는 것은 무에 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시시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 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 되었다는 것을 믿는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기 적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38절).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그 엄청 난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의 기적은 다 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St. Bernard of Clarivaux (1090–1153) stated that three miracles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birth of Jesus. The first is the miracle that Jesus, the Son of God,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use of a virgin body, and the second is the miracle that God came into the world as a man in the flesh. It was said that the third miracle was that Mary by her faith accepted the wonderful miracle that will happen to her. But which of these three miracles is the most incredible? In fact, conceiving a baby from a virgin's body can be trivial for the Almighty God, who created something out of nothing. And the fact that God became a man could be a truly amazing miracle.

However, believing that Mary herself was chosen to be the mother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a miracle among miracles. It is the greatest miracle to believe and accept something that is absolutely unbelievable. Hearing her angel's words, Maria said, "I am the Lord's servant. May everything you have said about me come true" (1:38). Mary believed and accepted the incredible fact that Jesus, the Savior of all mankind, will be conceived in her own body by the Holy Spirit. As such, the miracle of Christmas is the miracle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목 Thu

마리아 찬가

Mary's Song of Praise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46-56



새112장(통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야임을 알아보았다. 그 후,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Magnificat, 46-56절). 엘리사벳은 기한이 차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다(57-66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Benedictus, 67-80절).

누가복음 1:39-80

- 39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가서.
- 40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 41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 42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 입니까?
- 44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 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 45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 니다."
- 46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47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 48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 49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 은 거룩하고,
- 50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 을 것입니다.
- 51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 으셨으니.
- 52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 습니다.

Reading insight

When Mary visited Elizabeth, Elizabeth recognized that the child in Mary's womb was the Messiah. After that, Mary praised God with joy (Magnificat, 1:46–56). Elizabeth gave birth to her own child and named him John (1:57–66). John's father, Zacharias, also praised God with joy (Benedictus, 1:67–80).

Luke 1:39-80

- ³⁹In those days Mary arose and went with haste into the hill country, to a town in Judah,
- 40 and she entered the house of Zechariah and greeted Elizabeth.
- 41 And when Elizabeth heard the greeting of Mary,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 **42** and she exclaimed with a loud cry,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 43 And why is this granted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 44 For behold, when the sound of your greeting came to my ears, the baby in my womb leaped for joy.
- 45 And blessed is she who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a fulfillment of what was spoken to her from the Lord."
- 46 And Mary said, "My soul magnifies the Lord,
- 47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 48 for he has looked on the humble estate of his servant. For behold,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 ⁴⁹ for he who is 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 **50** And his mercy is for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⁵¹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 52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Bible Clip

눅 LUK 1:43

내 주님의 어머니 (mother of my Lord)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 한다.

Bible Clip

눅 LUK 1:68

속량 (redeemed, 贖良)

'석방하다'라는 의미로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석방해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영적으로는 죄에서 자유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53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 54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 **56**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57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 58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 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 59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 라라 하고자 하였다.
- 60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 61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 **62**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 보았다.
- 63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 64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 님을 찬양하였다.
- 65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사골에 두루 퍼졌다.
- 66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 기 때문이다.
- **67**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 하였다.
-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 69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 **70**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53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 54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in remembrance of his mercy,
- 55 as he spoke to our fathers, to Abraham and to his offspring forever."
- 56 And Mary remained with her about three months and returned to her home.
- 57 Now the time came for Elizabeth to give birth, and she bore a son.
- 58 And her neighbors and relatives heard that the Lord had shown great mercy to her, and they rejoiced with her.
- ⁵⁹ And on the eighth day they came to circumcise the child. And they would have called him Zechariah after his father,
- 60 but his mother answered, "No; he shall be called John."
- 61 And they said to her, "None of your relatives is called by this name."
- 62 And they made signs to his father, inquiring what he wanted him to be called.
- 63 And he asked for a writing tablet and wrote, "His name is John." And they all wondered.
- 64 And immediately his mouth was opened and his tongue loosed, and he spoke, blessing God.
- 65 And fear came on all their neighbors. And all these things were talked about through all the hill country of Judea,
- 66 and all who heard them laid them up in their hearts, saying, "What then will this child be?" For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him.
- 67 And his father Zecharia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prophesied, saying,
- 68"Blessed be the Lord God of Israel, for he has visited and redeemed his people
- 69 and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 ⁷⁰as he spoke by the mouth of his holy prophets from of old,

- 71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 **72**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 **73**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 **74**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 **75**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 **76**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 77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 쳐줄 것이다.
- **78**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 **79**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 **80**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 71 that we should be saved from our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hate us;
- **72**to show the mercy promised to our fathers and to remember his holy covenant,
- 73 the oath that he swore to our father Abraham, to grant us
- 74 that we, being delivered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might serve him without fear,
- 75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 **76** And you, child, will be called the prophet of the Most High; for you will go before the Lord to prepare his ways,
- 77 to give knowledge of salvation to his people in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 ⁷⁸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whereby the sunrise shall visit usfrom on high
- 79 to give light to those who sit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way of peace."
- **80**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and he was in the wilderness until the day of his public appearance to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 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7-48절) Why does Mary rejoice in praising God? (1:47-48)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2절) What has God done to the rulers and the humble according to Mary's confession? (1:5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Thank you, Your Highness!"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46-48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의 어느 촌구석에서, 그것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비천하게 하녀 노릇을 하며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으로 다윗가의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부른 찬송의 요점은 그가 받은 '영예'(honor)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보십'에 있습니다.

만일 왕자가 거지의 손을 잡았다면, 격찬 받아야 할 대상은 당연히 왕자로 서, 그의 호의와 덕망이 칭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지의 입장에서는 그 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 밖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에서 동냥하는 걸인을 만났습니다. 적선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 보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 한 닢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톨스토이는 걸인에게 "내 형제여, 지금 내게 돈이 하나도 없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걸인은 고개를 몇 번씩이나 숙여가며 환히 웃는 낯으로,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황송하게도 '형제'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도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Mary said, "Oh, how my soul praises the Lord. How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took notice of his lowly servant girl" (1:46–48). She lived in a remote village in Nazareth, Galilee, where she had lost her parents at an early age and lived as a humble maid. But in His presence, she praised the grace of her God, who made her the mother of Jesus Christ, the Messiah of the House of David. Therefore, the point of Mary's song of praise is not about the "honor" she received, but about "God's favor."

If the prince took the hand of the beggar, it is the prince who deserves praise, and his favor and virtue should be praised. The beggar may say, "Thank you, Your Highness!" What can he say other than that?

Russian writer Tolstoy met a beggar on the street one day. He looked through his pocket to make his donation, but no coins were found. Feeling sorry, Tolstoy politely said to the beggar, "My brother, I have no money right now. I'm really sorry." Then the beggar bowed his head several times and said with a bright smile, "No. Sir, you gave me more than I asked for. You called me 'brother.'" It is the grace of God that has called us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ie because of our sins. We just say, "Thank you, Your Highness!" And w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bow down before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개념의 연역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금 Fri

예수 그리스도의 타생

The Birth of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8-14



새125장(통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짤막한 기사(1-7절)와 더불 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일군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수많은 천군 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펼쳐졌음을 알리고 있다(8-14절).

누가복음 2:1-21

- 1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 2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 3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 4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 5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 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 6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 7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 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 8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 9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 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 10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 11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 12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Reading insigh

Today's text includes a brief account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2:1–7). On the night that Jesus was born, an angel appeared to a group of shepherds and announced the news of the birth of Jesus. At that time, a scene of a multitude of heavenly hosts praising God with the angel suddenly unfolded (2:8–14).

Luke 2:1-21

- In those days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registered.
- ²This was the first registration when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 ³And all went to be registered, each to his own town.
- 4 And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from the town of Nazareth, 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lineage of David,
- 5 to be registered with Mary, his betrothed, who was with
- 6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 ⁷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place for them in the inn.
- 8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 ⁹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fear.
- ¹⁰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 ¹¹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 12 An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 13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 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 14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 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 15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 16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 17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 **18**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 19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 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 20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 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 21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 13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 14"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 15 When the angels went away from them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over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 ¹⁶ And they went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a manger.
- ¹⁷ And when they saw it, they made known the saying that had been told them concerning this child.
- 18 And all who heard it wondered at what the shepherds told them.
- 19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 ²⁰And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d heard and seen, as it had been told them.
- ²¹ And at the end of eight days, when he was circumcised, he was called Jesus, the name given by the angel before he was conceived in the womb.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천사가 한 밤 중,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큰 두려 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0-12절) When the angel appeared to the shepherds guarding the flock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at did the angel say to them who were overcome with great fear? (2:10-12)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14절)

What did the thousands of heavenly hosts say while praising God with the angel? (2: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우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매일 기쁨을 선사하는 방문객

A visitor who brings joy every day

미국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낮 12시만 되면 교회에 들어갔다가 2~3분 만에 나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같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까?" "그야 물론 기도하고 나오지요." "기도라니 요? 그 짧은 시간에 대체 무슨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길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Jim 말입니다'." 약 한 달 후, 그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온 후, 병실에서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병실의 모든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신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응, 내가이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그것은 모두 다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때문이야. 그분이 내게 늘 기쁨을 주고 가거든." 간호사는 평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할아버지에게 방문객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다시물었습니다.

"방문객이라니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방문객이 언제 찾아오나요?" "응, 날마다 나를 찾아오지. 낮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내 침대 곁을 찾아오거든. 그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내 귀에 속삭여. '여보게, Jim! 잘 있었나? 나 예수야!'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내게 기쁨을 한 아름 안겨주고 가시지."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매일 우리를 찾아와 큰 기쁨을 안겨주고 가십니다.

Grandfather Jim living in the United States used to enter his church at noon every day and leave after 2–3 minutes. One day, a church manager called out to him as he left the church, "Grandpa, why do you come to church every day?" Jim responded, "Yes, of course, I come here to pray." "Are you praying? What are you praying for in that short time?" "I do not know how to pray long. I just pray like this. 'Jesus, Jim is here.'"

About a month later, the grandfather was hospitalized due to old age. But after he arrived, his smile never left him. One day, a nurse asked Jim. "Grandfather! You make all the patients in the hospital smile, is that true?" "Yeah, I'm giving these patients joy. It's all because of the visitor who comes to me. He always brings me joy." The nurse was surprised to hear that the grandfather had a visitor, and asked again, "A visitor? I've never seen anyone with you, so when does that visitor come?" "Yeah, every day he visits me. He comes to my bedside exactly at noon. He comes to me and whispers in my ear like this, 'Hey, Jim! How have you been? I am Jesus!' And then he gives me a lot of joy and goes away." That's right. Jesus, who was born on this earth 2000 years ago, still comes to us every day, giving us great jo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토 Sat

시므온의 찬송

Simeon's sona of Praise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25-35



새122장(통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태어난 지 팔 일이 되어 할례를 받았는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 는 예식을 행하였다(22-24절). 그러자 선지자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Nunc Dimittis, 25-35절),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다 (36-38절). 아울러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성장과(39-40 절), 예수님의 유년기 (12살)에 있었던 사건(41-52절)을 기록하 고 있다.

누가복음 2:22-52

- 22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 23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 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 24또 주님의 육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 25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 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 26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 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 27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 고들어왔다.
- 28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 하여 말하였다.
- 29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 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 30내 눈이 주님의 구워을 보았습니다.
- 31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 32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 33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Reading insight

Eight days after Jesus was born, he was circumcised. On that day, Joseph and Mary went up to the temple in Jerusalem to offer the baby Jesus to God (2:22–24). The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prophet Simeon embraced Jesus and praised God (Nunc Dimittis, 2:25–35), and then the prophetess Anna prophesied about Jesus (2:36–38). In addition, the writer of Luke records the story of Jesus' growth (2:39–40) and the events of Jesus' childhood (12 years old) (2:41–52).

Luke 2:22-52

- ²²And when the time came for their pur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they brought him up to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 23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Every male who first opens the womb shall be called holy to the Lord")
- ²⁴ and to offer a sacrifice according to what is said in the Law of the Lord, "a pair of turtledoves, or two young pigeons."
- 25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and this man was righteous and devout,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 26 And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 27 And he came in the Spirit into the temple, and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Law,
- 28 he took him up in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 29"Lord, now you are letting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 30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 31 that you hav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s,
- 32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 33 And his father and his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Bible Clip

눅 LUK 2:22

정결하게 되는 날 (the days of her purification)

신생아를 낳은 산모를 정결케 하는 의 식의 날(레 12:1-8) (남자아이의 경우 는 부정의 날 7일간과 결례의 날 33일 간으로 총 40일이며, 여자아이는 2배 의 기간).

Dible Olie

눅 LUK 2:42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길은 강도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관례였다. 요셉과 마 리아가 하룻길이 지나도록 예수께서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다른 무리와 함께 이동한다고 여 겼을 수 있다.

- 34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 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 받는 표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 35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 36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 37과부가 되어서,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 38바로 이 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 39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고향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 40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 41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 42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 43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 44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 45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 46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 47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탁하였다.
- 48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 **34** And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Behold, this child is appointed for the fall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for a sign that is opposed
- 35 (and a sword will pierce through your own soul also), so that thoughts from many hearts may be revealed."
- **36** And there was a prophetess, Anna, the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She was advanced in years, having lived with her husband seven years from when she was a virgin,
- 37 and then as a widow until she was eighty-four. She did not depart from the temple, worshiping with fasting and prayer night and day.
- **38**And coming up at that very hour she began to give thanks to God and to speak of him to all who were waiting for the redemption of Jerusalem.
- 39 And when they had performed everything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they returned into Galilee, to their own town of Nazareth
- **40**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filled with wisdom. And the favor of God was upon him.
- ⁴¹Now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every year at the Feast of the Passover.
- 42 And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they went up according to custom.
- 43 And when the feast was ended, as they were returning,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His parents did not know it,
- 44 but supposing him to be in the group they went a day's journey, but then they began to search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acquaintances,
- ⁴⁵and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returned to Jerusalem, searching for him.
- 46 After three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 ⁴⁷ And all who heard him were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 48 And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An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so? Behold, your father and I have been searching for you in great distress."

- 49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 **50**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 51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 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에 간직하였다.
- **52**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 49 And he said to them, "Why were you looking for me?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 50 And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aying that he spoke to them.
- ⁵¹ And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was submissive to them. And his mother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 52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누가복음서 기자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What kind of person is Simeon according to the Gospel of Luke? (2:25)

시므온이 특별히 마리아를 항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은 무 엇입니까? (34-35절) What did Simeon specifically prophesy about Jesus to Mary? (2:34-35)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임종선(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돌직구 예언 The straight fastball prophecy

선지자 시므온의 찬송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33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귀에 들린 말씀이 평소에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아니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길흉을 말하는, 즉 주로 점쟁이들이 말하는 '운세 판단'(fortunetelling)이 아닙니다. 예언은 상대방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던지는 돌직구의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선민주의'(elitism)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더구나 시므온은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라고 거침없이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참 예언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듯함으로써, 때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깊이 헤아려고 뜻에 꼼짝없이 순복하게 만듭니다.

The song of the prophet Simeon contains prophecies about Jesus Christ. In verse 33, Joseph and Mary were amazed when they heard the words of the prophecy. Why were they surprised? It must be because the words they heard were about things they had never imagined or could never expect to happen. It is here that the true value of prophecy is revealed. Prophecy is not just fortunetelling, which fortune tellers say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Prophecy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straight fastball, which throws the words as they are, regardless of the mood of the other party.

According to Simeon's prophecy, Jesus is not only the glory of the nation of Israel, but the light that illuminates all Gentiles. These are words that break the stereotypes of Jewish belief that was immersed in "elitism" at the time. Moreover, Simeon prophesied without hesitation especially to Mary, that Jesus was chosen for Israelites to be slandered and defeated and that "a sword will pierce your heart." Therefore, a true prophecy throws the straight fastball to a certain individual or country, sometimes causing pain and suffering like being stabbed in the heart. By doing so, they deeply understand the will of God which converts them to obediently submit to i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름의 연역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6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비목 Title
성경본문 <mark>Scripture</mark>
도요내용 Outline
가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김기석목사(청파감리교회, Korea)

동지가 지났으니 이제 빛의 시간이 다가온다. 어둠의 터널에 갇힌 듯 암담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저 먼곳에서 얼핏 떠오르는 오련한 빛을 보고 안도한다. 어둠이 끝나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을 때마다 한 해를 엄범부렁하게살았다는 자책과 후회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들곤 한다. 성탄절이 연말 즈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성탄절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중심에서 비껴난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 유력한 이들로부터 비존재 취급을 받던 이들을 감싸 안는 망토처럼 하늘이 땅에 내려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가된다. 그분에게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것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숨을 품고 있는 신비이다. 예수,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하늘이다.

성탄절을 지나며 랍비 조나선 색스가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매주 금요일 새벽이면 네미로프(Nemirov)의 랍비가 사라지곤 했다. 읍내에 있는 회당과 학교에도 없었고, 문이 늘 열려 있는 그의 집에도 없었다. 어느 날 리투아니아 출신 학자 한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다. 랍비가부재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늘이 아니면 어디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마

을 사람들은 평화와 음식과 건강이 필요했고, 랍비는 하늘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탄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그런 깊은 신뢰에 감명을 받은 리투 아니아인은 그 사라짐의 비밀을 밝혀보기로 작정하고는 목요일 밤에 랍비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랍비가 조용히 탄식하며 우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랍비는 벽장에서 낡은 옷 꾸러미를 꺼내 몸에 걸쳤다. 거룩한 사람의 옷이 아니라 농부의 옷이었다. 랍비는 도구함에서 도끼를 꺼내들더니 밖으로 나갔다. 리투아니아인은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랍비는 마을을 지나 숲에 들어가더니 굵은 나무 한 그루를 찍어 넘어뜨린 후 그것을 잘게 잘랐다.

그는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가 어둑한 뒷길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다. 가난하고 병든 늙은 여인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죠?" "저는 바실리라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좀 팔고 싶어서요. 헐값에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요." "외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나는 아주머니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분께서 제가 보상받을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병이 들어 불을 피울 기운조차 없답니다." "제가 피워 드리지요." 랍비는 아침 기도문을 읊조리며 불을 피워드린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학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후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이 방문객들에게 랍비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면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더 높은 곳에 계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늘은 저 높은 곳, 인간의 손길이나 발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분열된 세상, 상처 입은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깊이 아파하고, 어떻게든 곤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려는 마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이다. 진심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면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 곳으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 전면적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부둥켜안을 수는 없다해도,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장소이니 말이다.

December 월 Mon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

Controversy between Jesus and the religious leaders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0:27-40



새170장(통168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종종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 로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다. 누가복음 20장은 다음 여 섯 개의 질문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1)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1-2절); (2)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냐 사람으로부터냐?"(3-8절); (3)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 떻게 하겠느냐?"(9-19절); (4)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20-26절); (5)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아 까?"(27-40절); (6)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이라 하느냐?"(41-47절)

누가복음 20장

- 1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 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육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 2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 십시오."
- 3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 4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 냐?"
- 5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 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 6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 7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 고 대답하였다.
- 8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 9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워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 10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워 주인은 포도워 소출 가 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 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 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Reading insight

Jesus often argued with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Pharisees, priests, elders, and Sadducees). Luke 20 focuses on the following six questions: (1) "Who gave you this authority?" (20:1–2); (2) "Is John's baptism from heaven or from man?" (20:3–8); (3) "What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 evil farmers?" (20:9–19); (4) "Is it lawful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20:20–26); (5) "Among all the seven brothers took her to be their wives, and whose wife will she be at the time of her resurrection?" (20:27–40); and (6) "Why do people say that Christ is the Son of David?" (20:41–47)

Luke 20

- One day, as Jesus was teaching the people in the temple and preaching the gospel,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ith the elders came up
- ² and said to him, "Tell us by what authority you do these things, or who it is that gave you this authority."
- ³He answered them, "I also will ask you a question. Now tell me.
- 4was the baptism of John from heaven or from man?"
- ⁵And they discussed it with one another, saying,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say, 'Why did you not believe him?'
- 6 But if we say, 'From man,' all the people will stone us to death, for they are convinced that John was a prophet."
- 7 So they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
- 8 And Jesus said to them,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 9 And he began to tell the people this parable: "A man planted a vineyard and let it out to tenants and went into another country for a long while.
- 10 When the time ca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so that they would give hi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tenants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Mama

눅 LUK 20:20

정탐꾼 (spies)

남의 말을 엿듣거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파견하는 첩자이다.

- 11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 12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 13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 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 겠지!'
- 14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 15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워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 16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17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 18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 19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 20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체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 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 21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 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 22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 23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 24 "데나리온 한 닢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 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 ¹¹ And he sent another servant. But they also beat and treated him shamefully,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 12 And he sent yet a third. This one also they wounded and cast out.
- 13 T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beloved son; perhaps they will respect him.'
- 14 But when the tenants saw him, they said to themselves, 'This is the heir. Let us kill him, so that the inheritance may be ours.'
- 15 And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m?
- 16He will come and destroy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When they heard this, they said, "Surely not!"
- 17 But he looked directly at them and said, "What then is this that is written: "The stone that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 ¹⁸Everyone who falls on that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and when it falls on anyone, it will crush him."
- 19 The scribes and the chief priests sought to lay hands on him at that very hour, for they perceived that he had told this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feared the people.
- **20**So they watched him and sent spies, who pretended to be sincere, that they might catch him in something he said, so as to deliver him up to the authority and jurisdiction of the governor.
- ²¹So they asked him, "Teacher, we know that you speak and teach rightly, and show no partiality, but truly teach the way of God.
- 22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ribute to Caesar, or not?"
- ²³But he perceived their craftiness, and said to them,
- 24 "Show me a denarius. Whose likeness and inscription does it have?" They said, "Caesar's."
- 25 He said to them, "Then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 **26**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 27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 28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 **29**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 30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 31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 32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 33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 입니다."
- 34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 도가고, 시집도 가지만,
- 35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 **36**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37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 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라고 부르고 있다.
- 38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 39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 40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 42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 하셨다.

- 26 And they were not able in the presence of the people to catch him in what he said, but marveling at his answer they became silent.
- 27 There came to him some Sadducees, those who deny that there is a resurrection,
- 28 and they asked him a question, saying, "Teacher,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having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take the widow and raise up offspring for his brother.
- ²⁹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died without children.
- 30 And the second
- 31 and the third took her, and likewise all seven left no children and died.
- 32 Afterward the woman also died.
- 33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whose wife will the woman be? For the seven had her as wife."
- **34** And Jesus said to them, "The sons of this age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 35 but those who are considered worthy to attain to that age and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 **36** for they cannot die anymore, because they are equal to angels and are sons of God, being sons of the resurrection.
- ³⁷But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in the passage about the bush, where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Isaac.
- 38Now he is not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all live to him."
- **39** Then some of the scribes answered, "Teacher, you have spoken well."
- 40 For they no longer dared to ask him any question.
- 41 But he said to them, "How can they say that the Christ is David's son?
- 42For David himself says in the Book of Psalm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 43「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 44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 **45**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46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 47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Bible Clip

눅 LUK 20:43

발 아래에 (Your footstool)

보좌에 앉은 왕의 발 아래 놓여 있는 발판으로, 원수를 굴복시켜 멸하실 것 에 대한 말씀이다.

노 LUK 20:46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명예욕과 소유욕과 위선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 43 unti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 44 David thus calls him Lord, so how is he his son?"
- 45 And in the hearing of all the people he said to his disciples,
- **46**"Beware of the scribes, who like to walk around in long robes, and love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and the b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feasts,
- 47 who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se make long prayers. They will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종파는 무엇입니까? (27절) Which Jewish sect claims there is no resurrection? (20:27)

다음 구절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의 하나님이 아니요 ()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이 살았느니라." (38절)
Fill in the missing words:

"He is not the God of (), but of (), for to him all are ()." (20:38)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현대판 사두개인들

Modern Sadducees

예수님 당시에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에 사람은 그저 현세에서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부 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들을 제 시하며 모든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현 대판 사두개인들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 씀하신 요점은 영생은 단순히 지상 생애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생애 마지막 강연에서 다 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서간 모 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오늘에도 여전히 적합한 것으로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All live to him, from the Apostles to the forebears of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o not have only the right, but also relevance in the present] to be heard also today)." 그의 이 주장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죽은 자가 살 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 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 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37-38절).

The Sadducees, known as rational realists in Jesus' day,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y thought that death would put an end to everything, so one should just be content with life in this world. Some people who do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se days provide plausible scientific and logical evidence, denying all supernatural and spiritual things. We could call them modern-day Sadducees. The point Jesus made to the Sadducees is that eternal life is not simply a continuation of life on earth.

German theologian Karl Barth said in the final lecture during his career: "All live to him, from the Apostles to the forebears of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o not have only the right, but also relevance in the present to be heard also today." His argument draws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in the text. "But in the account of the burning bush, even Moses showed that the dead rise, for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to him all are alive" (20:37–38).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화 Tue

종말의 징조들

Signs of the End Times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1:1-4



새50장(통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동전 두 개를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다(1-4절). 그런 후,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5-24절)과 더불어 마지 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25-28절)을 주셨다. 그 후,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잎사귀들 비유(29-33절)를 통해 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 다(34-38절).

누가복음 21장

- 1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 시고.
- 2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두 닢을 넣는 것을 보 셨다.
- 3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 4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 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 5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6"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질날이 올 것이다."
- 7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 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장 조가 있겠습니까?"
- 8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 가지 말아라.
- 9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 은아니다."
-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 11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 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Reading insigh

When Jesus saw the rich and a poor widow give offering in the temple, he praised the widow who offered two coins (21:1–4). Then he gave warnings of the events of the end times (21:25–28) as well as warnings of the destruc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temple (21:5–24). Then, through the parable of the fig tree, he gave instructions on how to live in the end times (21:29–38).

Luke 21

- ¹Jesus looked up and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offering box,
- ² and he saw a poor widow put in two small copper coins.
- ³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 ⁴For they all contributed out of their abundance,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 ⁵ And while some were speaking of the temple, how it was adorned with noble stones and offerings, he said,
- 6"As for these things that you see, the days will come when there wi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that will not be thrown down"
- 7 And they asked him, "Teacher,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when these things are about to take place?"
- 8 And he said, "See that you are not led astray.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he!' and, 'The time is at hand!' Do not go after them.
- 9 And when you hear of wars and tumults, do not be terrified, for these things must first take place, but the end will not be at once."
- ¹⁰Then he said to them,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 11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and in various places famines and pestilences. And there will be terrors and great signs from heaven.

Bible Clip

눅 LUK 21:5

봉헌물 (donations, 奉獻物)

'봉헌된 제물', '성전에 놓여진 거룩한 예물'이라는 의미로 성전에 바친 물건 들을 뜻한다. 여기서 '헌물'은 영어성 경 NIV-gifts dedicated to God로 표 기되어 있다.

눅 LUK 21:9

전쟁과 난리 (wars and commotions)

전쟁과 혼동, 혼란을 뜻하며, 무질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소 요'는 영어성경 NIV-uprisings으로 표기되어 있다.

- 12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 13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 14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 15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 16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 17너희는 내이름 때문에, 모든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 18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 19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 20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 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 람들은 그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 **22**그 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 문이다.
-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 24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 25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 26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 **27** 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28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12 But before all this they will lay their hands on you and persecute you, delivering you up to the synagogues and prisons, and you will be brought before kings and governors for my name's sake.
- 13 This will be your opportunity to bear witness.
- 14 Settle it therefore in your minds not to meditate beforehand how to answer,
- 15 for I will give you a mouth and wisdom, which none of your adversaries will be able to withstand or contradict.
- ¹⁶You will be delivered up even by parents and brothers and relatives and friends, and some of you they will put to death.
- 17 You will be hated by all for my name's sake.
- 18 But not a hair of your head will perish.
- 19 By your endurance you will gain your lives.
- 20"But when you see Jerusalem surrounded by armies, then know that its desolation has come near.
- 21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and let those who are inside the city depart, and let not those who are out in the country enter it,
- 22 for these are days of vengeance, to fulfill all that is written.
- 23 Alas for women who are pregnant and for those who are nursing infants in those days! For there will be great distress upon the earth and wrath against this people.
- 24 They wi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be led captive among all nations, and Jerusalem will be trampled underfoot by the Gentiles,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 25"And there will be signs in sun and moon and stars, and on the earth distress of nations in perplexity because of the roaring of the sea and the waves,
- 26 people fainting with fear and with foreboding of what is coming on the world. For the powers of the heavens will be shaken.
- ²⁷And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 28 Now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raighten up and raise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나 무와모든 나무를 보아라.
- **30**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줄을 안다.
- 31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 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 **32**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 33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 35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 36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 **37**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 **38**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 29 And he told them a parable: "Look at the fig tree, and all the trees.
- **30** As soon as they come out in leaf, you see for yourselves and know that the summer is already near.
- 31 So also, when you see these things taking place, you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is near.
- **32**Tru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has taken place.
- 33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 **34**"But watch yourselves lest your hearts be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and drunkenness and cares of this life, and that day come upon you suddenly like a trap.
- 35 For it will come upon all who dwell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 36 But stay awake at all times, praying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are going to take place,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 ³⁷And every day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but at night he went out and lodged on the mount called Olivet.
- 38 And early in the morning all the people came to him in the temple to hear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슨 광경을 보셨습니까? (1-2절) What did Jesus see in the temple? (21:1-2)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Why did Jesus praise the poor widow's offering? (2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작은 것도 아름답다

Even small things are beautiful

흔히 사람들은 크고, 많고,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하나님은 작고, 적고, 낮고 천한 것에 주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그 민족을 영도했던 모세의 손에는 마른 지팡이 하나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천하무적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하나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추려내어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횃불이 감추어진 항아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미화로 penny와 같은 당시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가 다른모든 사람(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20장 47절("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을 놓고 보면, 본문의 초점은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끝갈 데 없이 물질의 탐욕에 빠져 가난한 사람들의 것마저 등쳐먹었던 서기관들에 대한 탄식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작고 하잘것없는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들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Often people like things that are big, numerous, tall, and glorious. But God pays attention to what is small, little, lowly and ordinary. Moses, who rescued the people of Israel from Egypt and led the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for 40 years, had a run-down staff in his hand. A slingshot was held in David's hand, the boy who defeated the invincible Philistine general Goliath. Judge Gideon selected 300 warriors to fight the Midianites and in their hands were jars with trumpets and torches hidden. All of them were insignificant. However, God used them to do great and wonderful things.

In the text, Jesus sees a poor widow putting two small coins (the lowest value coin at the time, such as a penny in US currency) into the treasury and commends her for putting in more than everyone else (the rich). But looking at Luke 20:47 ("Yet they shamelessly cheat widows out of their property and then pretend to be pious by making long prayers in public. Because of this, they will be severely punished"), the focus of the text is not in the praise of the widow, but in the lamentation against the scribes who, in their endless greed for material things, devoured even the things of the poor. After all, Jesus' eyes are always on the outcasts and the little things they hold in their hands. In the sight of Jesus, they are all beautiful and precio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수 Wed

고난 당하신 예수님

Jesus in Suffering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2:24-30



새216장(통356장) 성자의 귀한 몸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22장은 다음의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룟 유다의 배반(1-6절); 유월절 준비와 만찬(7-23절); 제자들 사이의 언쟁 (24-30절);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31-34절); 보냄 받은 자를 위 한 새로운 가르침(35-38절); 예수님의 눈물의 간구(39-46절); 체포당한 예수님(47-53절);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54-62절);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63-65절); 공회 앞에서 심문 받은 예 수님(66-71절).

누가복음 22장

- 1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 2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 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 3열둘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 4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 5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 6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 7유웤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 8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 9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 까?"
- 10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 로 따라가거라.
- 11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 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웤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 12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 13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 하여 그들은 유웤절을 준비하였다.
- 14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 와 함께 앉았다.

Reading insigh

Luke 22 consists of the following accounts: the betrayal of Judas Iscariot (22:1–6); Passover preparation and supper (22:7–23); quarrels among the disciples (24–30); foretelling Peter's denial (22:31–34); new teachings for the called (35–38); Jesus' supplication in tears (22:39–46); Jesus' arrest (22:47–53); Peter's denial and repentance (22:54–62); the ridicule and insulting of Jesus (22:63–65); Jesus' trial before the council (22:66–71).

Luke 22

- Now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drew near, which is called the Passover.
- ²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ere seeking how to put him to death, for they feared the people.
- 3 Then Satan entered into Judas called Iscariot, who was of the number of the twelve.
- ⁴He went away and conferred with the chief priests and officers how he might betray him to them.
- ⁵And they were glad, and agreed to give him money.
- ⁶So he consented and sought an opportunity to betray him to them in the absence of a crowd.
- 7 Then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on which the Passover lamb had to be sacrificed.
- 8 So Jesus sent Peter and John, saying, "Go and prepare the Passover for us, that we may eat it."
- They said to him, "Where will you have us prepare it?"
- ¹⁰He said to them, "Behold, when you have entered the city,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Follow him into the house that he enters
- 11 and tell the master of the house, 'The Teacher says to you, Where is the guest room, where I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 12 And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prepare it there."
- 13 And they went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and they prepared the Passover.
- 14 And when the hour came, he reclined at table, and the apostles with him.

Bible Clip

눅 LUK 22:4

의논하였다

흥정을 포함하여 예수를 체포하는 방법 등의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우는 모습을 말한다.

- 15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 16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 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 17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 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 19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 20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 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 21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 22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 23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 24제자들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25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 26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27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 28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 29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 30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 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 15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 16 For I tell you I will not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 17 And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rselves.
- ¹⁸For I tell you that from now on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 19 And he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20 And likewise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that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 ²¹ But behold, the hand of him who betrays me is with me on the table.
- 22 For the Son of Man goes as it has been determined, but woe to that man by whom he is betrayed!"
- ²³And they began to question one another, which of them it could be who was going to do this.
- ²⁴ A dispute also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as to be regarded as the greatest.
- 25 And he said 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s exercise lordship over them, and those in authority over them are called benefactors.
- **26** But not so with you. Rather, let the greatest among you become as the youngest, and the leader as one who serves.
- 27 For who is the greater, one who reclines at table or one who serves? Is it not the one who reclines at table? But I am among you as the one who serves.
- 28"You are those who have stayed with me in my trials,
- ²⁹ and I assign to you, as my Father assigned to me, a kingdom,
- 30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Bible Clip

눅 LUK 22:31

체질하려고 (sift you as wheat) 곡식을 이리저리 흔들며 키질하듯 사 단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필사적으로 괴롭힐 것을 묘사한 표현이다.

- 31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 32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 33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34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닭이울기 전에, 네가세 번나를 모른다고 할것이다."
- 3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 36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 37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 패로 몰렸다' 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 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 38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 넉하다" 하셨다.
- 39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 40 그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 41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 42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 **43**[[그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 우어 드렸다.
- 44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 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 45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 46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 31 "Simon, Simon, behold, Satan demanded to have you, that he might sift you like wheat,
- 32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And when you have turned again, strengthen your brothers."
- 33 Peter said to him,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both to prison and to death."
- 34 Jesus said, "I tell you, Peter, the rooster will not crow this day, until you deny three times that you know me."
- 35 And he said to them, "When I sent you out with no moneybag or knapsack or sandals, did you lack anything?" They said, "Nothing."
- 36 He said to them, "But now let the one who has a moneybag take it, and likewise a knapsack. And let the one who has no sword sell his cloak and buy one.
- 37 For I tell you that this Scripture must be fulfilled in me: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For what is written about me has its fulfillment."
- **38** And they said, "Look, Lord, here are two swords." And he said to them, "It is enough."
- 39 And he came out and went, as was his custom, to the Mount of Olives, and the disciples followed him.
- 40 And when he came to the place, he said to them,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 41 And he withdrew from them about a stone's throw, and knelt down and prayed,
- **42** saying, "Father, if you ar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 43 And there appeared to him an angel from heaven, strengthening him.
- 44 And being in a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became lik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 45 And when he rose from prayer, he came to the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 46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sleeping? Rise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47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 48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 49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 50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 51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 52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 53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 54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 55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여 앉아 있었다.
- 56그 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 57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 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 58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 59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 람은 갈릴리사람이니까요."
- 60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 61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Bible Clip

눅 LUK 22:52

몽둥이 (clubs)

무기로 사용하는 짤막하고 단단한 나 무 몽둥이를 말한다.

- 47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here came a crowd, and the man called Judas, one of the twelve, was leading them. He drew near to Jesus to kiss him.
- 48but Jesus said to him, "Judas, would you betray the Son of Man with a kiss?"
- 49 And when those who were around him saw what would follow, they said, "Lord, shall we strike with the sword?"
- 50 And one of them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and cut off his right ear.
- 51 But Jesus said, "No more of this!" And he touched his ear and healed him.
- 52 Then Jesus said to the chief priests and officers of the temple and elders, who had come out against him, "Have you come out as against a robber, with swords and clubs?
- 53 When I was with you day after day in the temple, you did not lay hands on me. But this is your hour, and the power of darkness."
- 54Then they seized him and led him away, bringing him into the high priest's house, and Peter was following at a distance.
- 55 And when they had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courtyard and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among them.
- 56 Then a servant girl, seeing him as he sat in the light and looking closely at him, said, "This man also was with him."
- 57 But he denied it, saying, "Woman, I do not know him."
- 58 And a little later someone else saw him and said, "You also are one of them." But Peter said, "Man, I am not."
- 59 And after an interval of about an hour still another insisted, saying, "Certainly this man also was with him, for he too is a Galilean."
- 60 But Peter said, "Man, I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And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he rooster crowed
- 61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saying of the Lord, how he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Mama

- 62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 63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 64도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 65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 66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 67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 68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 69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 **70**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 71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Bible Clip

눅 LUK 22:66

공의회 (council, 公議會)

신약에서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을 주 관하는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을 말한 다. 약 7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제사 장이 의장 역할을 했다.

- 62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 63 Now the men who were holding Jesus in custody were mocking him as they beat him.
- 64 They also blindfolded him and kept asking him, "Prophesy! Who is it that struck you?"
- 65 And they said many other things against him, blaspheming him.
- 66 When day came, the assembly of the elders of the people gathered together, both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they led him away to their council, and they said,
- **67**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But he said to them, "If I tell you, you will not believe,
- 68 and if I ask you, you will not answer.
- 69 But from now on the Son of Man shall b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power of God."
- **70** So they all said, "Are you the Son of God, then?" And he said to them, "You say that I am."
- 71 Then they said, "What further testimony do we need? We have heard it ourselves from his own lip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누가 큰지 말다툼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습 니까? (26-27절)

What lesson did Jesus give the disciples who were arguing over who was the greatest? (22:26–27)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9-30절) What was the promise Jesus made to his disciples when he said, "you have stayed with me in my time of trial." (22:29-3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뉴져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석김의 역설

The paradox of service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큰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26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항복하고, 지키기 위해 내어주며, 좋아지기 위해 고생하며, 살기 위해 죽는다"(We surrender to win: we give away to keep; we suffer to get well; we die to live). 이것은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섬김의 역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섬긴다"(we serve to rule over).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결코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장 큰 지위를 얻으려 하거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또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위해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결국,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빌 2:5-11).

During the Last Supper before Jesu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the disciples argued with each other over who was the greatest among them. To such disciples, Jesus gave a teaching on servanthood: "In this world the kings and great men lord it over their people, yet they are called 'friends of the people.' But among you it will be different. Those who are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take the lowest rank, and the leader should be like a servant" (22:26). There is a saying: "We surrender to win; we give away to keep; we suffer to get well; we die to live." This is a paradoxical truth. Jesus spoke of the paradox of service in the text "we serve to rule over."

A leader in the kingdom of God never intentionally seeks to occupy a high position, to attain the highest position that people will envy, or to enjoy great wealth and honor. They simply perform their role faithfully in an attitude of silently serving others. Also, a person who shows an example of true servanthood is not easily seen by people because he does not act pretentiously to attract the attention of others. But in the end, the person unwittingly becomes the object of respect and takes a leadership position. Jesus was just that. The Son of God came into the world in the form of a servant, humbled himself, and was crucified to death. However, God exalted him and made him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C.f. Phil 2:5–11).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목 Thu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Jesus crucified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3:32-43



새269장(통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 에게로 보냈다(1-7절). 헤롯은 예수님을 심문한 후 다시 빌라도 에게로 보냈다(8-12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했 으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군중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13-25 절). 결국, 예수님은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 는데(26-38절), 그중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들어가리라 는 약속을 받았다(39-43절). 예수님은 운명하셨고(44-49절),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취하여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 두었다(50-56절).

누가복음 23장

- 1그들은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 2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 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 3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 하고 있소."
- 4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 5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 6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 이오?"
- 7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 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 8헤롲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 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 9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 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 10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 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Reading insight

Pilate sent Jesus to Herod because he could not find any particular charge against him. (23:1–7) Herod sent Jesus back to Pilate after interrogation. (23:8–12) Pilate tried to acquit Jesus, but he could not overrule the crowd demanding crucifixion. (23:13–25) Eventually, Jesus was crucified with two criminals (23:26–38), one of whom received a promise from Jesus to enter paradise. (23:39–43) Jesus died (23:44–49), and Joseph of Arimathea, a member of the council, took the body of Jesus, wrapped it in linen cloths, and placed it in a tomb (23:50–56).

Luke 23

- Then the whole company of them arose and brought him before Pilate.
- ² And they began to accuse him, saying, "We found this man misleading our nation and forbidding us to give tribute to Caesar, and saying that he himself is Christ, a king."
- 3 And Pilate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nd he answered him, "You have said so."
- ⁴Then Pilate sai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crowds, "I find no guilt in this man.
- ⁵ But they were urgent, saying, "He stirs up the people, teaching throughout all Judea, from Galilee even to this place."
- 6 When Pilate heard this, he asked whether the man was a Galilean.
- 7 And when he learned that he belonged to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over to Herod, who was himself in Jerusalem at that time.
- 8 When Herod saw Jesus, he was very glad, for he had long desired to see him, because he had heard about him, and he was hoping to see some sign done by him.
- 9 So he questioned him at some length, but he made no answer.
- ¹⁰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tood by, vehemently accusing him.

Bible Clip

눅 LUK 23:1

빌라도 (Pilate)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 한 로마 총독이다.

Mama

눅 LUK 23:18

바라바 (Barabbas)

바라바는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서 살인하고 포박한 자이다, '성중에서 일 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옥에 갇 힌 자', '강도' 등으로 묘사된다.

- 11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 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놓고서.
- 14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 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 15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 낸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 지 않았소.
- 16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 17 (없음)
- 18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
- 19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 21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 22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 23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 24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 25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 주었다.
- 26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 **27**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 11 And Herod with his soldiers treated him with contempt and mocked him. Then, arraying him in splendid clothing, he sent him back to Pilate.
- 12 And Herod and Pilate became friends with each other that very day, for before this they had been at enmity with each other.
- 13 Pilate then call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and the people,
- 14 and said to them, "You brought me this man as one who was misleading the people. And after examining him before you, behold, I did not find this man guilty of any of your charges against him
- 15 Neither did Herod, for he sent him back to us. Look, nothing deserving death has been done by him.
- 16I will therefore punish and release him."
- 18 But they all cried out together, "Away with this man, and release to us Barabbas"--
- 19 a man who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an insurrection started in the city and for murder
- 20 Pilate addressed them once more, desiring to release Jesus,
- ²¹but they kept shouting, "Crucify, crucify him!
- 22 A third time he said to them, "Why, what evil has he done? I have found in him no guilt deserving death. I will therefore punish and release him."
- ²³But they were urgent, demanding with loud cries that he should be crucified. And their voices prevailed.
- ²⁴So Pilate decided that their demand should be granted.
- 25 He released the man who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insurrection and murder, for whom they asked, but he delivered Jesus over to their will.
- 26 And as they led him away, they seized one Simon of Cyrene, who was coming in from the country, and laid on him the cross, to carry it behind Jesus.
- **27** And there followed him a great multitude of the people and of women who were mourning and lamenting for him.

- 28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 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 29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 30 그 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 31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 32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 33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 34[[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 35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워하라지."
- **36**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 **37**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 38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 패가 붙어 있었다.
- 39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 **40**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 41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 42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 해주십시오."
-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²⁸But turning to them Jesus said,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but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 ²⁹ For behold, the days are coming when they wi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and the wombs that never bore and the breasts that never nursed!'
- 30 Then they will begin to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o the hills, 'Cover us.'
- 31 For if they do these things when the wood is green, what will happen when it is dry?"
- 32 Two others, who were criminals, were led away to be put to death with him.
- 33 An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that is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criminals,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 **34** And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nd they cast lots to divide his garments.
- 35 And the people stood by, watching, but the rulers scoffed at him,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his Chosen One!"
- 36 The soldiers also mocked him, coming up and offering him sour wine
- 37 and saying,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 38 There was also an inscription over him,"This is the King of the Jews.
- 39 One of the criminals who were hanged railed at him, saying, "Are you not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 40 But the other rebuked him, saying, "Do you not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
- 41 And we indeed justly, for we are receiving the due reward of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 42 And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 43 And he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 44어느덧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 45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 46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 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 47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 48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 49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 **50**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우 사람이었다.
- 51-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 **52**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 53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 54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 55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 펴보았다.
- 56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 44 It was now about the sixth hour, and there was darkness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 45 while the sun's light failed.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 46 Then Jesus, calling out with a loud voice, sai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And having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 ⁴⁷ Now when the centurion saw what had taken place, he praised God, saying, "Certainly this man was innocent!"
- **48** And all the crowds that had assembled for this spectacle, when they saw what had taken place, returned home beating their breasts.
- 49 And all his acquaintances and the women who had followed him from Galilee stood at a distance watching these things.
- 50 Now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from the Jewish town of Arimathea. He was a member of the council, a good and righteous man,
- 51 who had not consented to their decision and action; and he was looking for the kingdom of God.
- 52 This man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 53Then he took it down and wrapped it in a linen shroud and laid him in a tomb cut in stone, where no one had ever yet been laid.
- 54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Sabbath was beginning.
- 55 The women who had come with him from Galilee followed and saw the tomb and how his body was laid.
- **56** Then they returned and prepared spices and ointments. On the Sabbath they rested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무슨 말을 했습니까? (39절)

How did one of the criminals on the cross slander Jesus? (23:39)

그 행악자를 꾸짖은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43절) When another criminal who rebuked the slandering criminal aske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how did Jesus respond? (23:43)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세 개의 십자가

Three crosses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해골의 곳'이라 불린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 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있었고.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들이 구체 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만 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각 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끝내 부인했던 한 강도의 십자가는 '완패'(完敗)의 십자가였습니다. 반역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강도가 진 십자가는 '역전승'(逆轉勝)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기력했던 예수님 을 믿음으로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부끄러운 전과로 가득했지만, 내세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초로 낙 원에 들어가는 역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 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인 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말 씀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치의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요 19:30)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 님의 십자가는 '완승'(完勝)의 십자가입니다.

Three crosses stood on the hill of Golgotha, called the "place of the skull" where Jesus died. There was a cross with Jesus hanging in the center, and two criminals were nailed together to the left and right of Jesus. It is not clear what specific wrong they committed, but they must have committed a crime serious enough to be punished with crucifixion. Each of the three crosses has a meaning. The cross of the criminal who mocked Jesus and eventually denied him was a cross of "the ultimate loser." It was the cross of defiance. The cross of the other criminal was the cross of "A come from behind victory."

He was a person who succeeded in a splendid comeback by believing in Jesus, realizing his own sin, and repenting while helpless on the cross. Although his life on this earth was full of shameful crimes, in the hereafter he was honored to enter Paradise for the first time with the Lord. Also, the story of the criminal who was saved shows that by the time Jesus died on the cross, the words,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were fulfilled (Luke 19:10). Jesus finally died without any regrets, exclaiming "It is finished" (John 19:30). The cross of Jesus is the cross of complete victor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여기쯤의 언덕으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금 Fri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

The Resurrection and Appearance of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4:22-35



(복음성가) 엠마오의 두 제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을 때. 두 천 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 렸고 베드로가 직접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다(1-12절). 부활하 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관 한 가르침을 주셨고(13-35절),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나타나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36-43절). 그 후,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44-49절)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승천하셨다(50-53절).

누가복음 24장

- 1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 2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 3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 4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 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 섰다.
- 5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 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 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 6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 7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 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 8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 9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 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 10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 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 11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 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 12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 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Reading insight

When the women went to the tomb with spices at dawn on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two angels announced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women informed the apostles, and Peter himself confirmed that the tomb was empty (24:1–12). The resurrected Jesus appeared to the two disciples on their way to Emmaus and taught them about Christ (24:13–35), and also appeared to the gatherings of his disciples and ate grilled fish together (24:24:36–43). After that, he taught them to understand the Scripture (24:44–49) and after blessing his disciples he ascended into heaven (24:50–53).

Luke 24

- ¹But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t early dawn, they went to the tomb, taking the spices they had prepared.
- ²And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tomb,
- 3 but when they went in they did not find the body of the Lord Jesus.
- 4 While they were perplexed about this, behold, two men stood by them in dazzling apparel.
- ⁵ And as they were frightened and bowed their faces to the ground, the men said to them,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 ⁶He is not here, but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in Galilee,
- 7 that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rise."
- 8 And they remembered his words,
- and returning from the tomb they told all these things to the eleven and to all the rest.
- ¹⁰Now it was Mary Magdalene and Joanna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 women with them who told these things to the apostles,
- 11 but these words seemed to them an idle tale, and they did not believe them.
- ¹²But Peter rose and ran to the tomb; stooping and looking in, he saw the linen cloths by themselves; and he went home marveling at what had happened.

Bible Clip

눅 LUK 24:12

삼베 (linen)

아마로 짠 고급 천으로, 여기서는 시신 을 둘러싸는 폭이 좁은 띠나 붕대를 말 한다.

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8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다 말입니까?"

16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

13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

십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

- 19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 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 **20**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 21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 **22**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 23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 24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 25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 26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 28그 두 길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Bible Clip

눅 LUK 24:13

엠마오 (Emmaus)

'따뜻한 우물', '온천'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서북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13 That very day two of them were going to a village named Emmaus, about seven miles from Jerusalem,
- 14 and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all these things that had happened.
- 15 While they were talking and discussing together,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ent with them.
- ¹⁶But their eyes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 17 And he said to them, "What is this conversation that you are holding with each other as you walk?" And they stood still, looking sad.
- **18** Then one of them, named Cleopas, answered him, "Are you the only visitor to Jerusalem who does not know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there in these days?"
- 19 And he said to them, "What things?" And they said to him,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a man who was a prophet mighty in deed and wor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 20 and how our chief priests and rulers delivered him up to be condemned to death, and crucified him.
- 21 But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to redeem Israel. Yes, and besides all this, it is now the third day since these things happened.
- 22 Moreover, some women of our company amazed us. They were at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 23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s body, they came back saying that they had even seen a vision of angels, who said that he was alive.
- 24 Some of those who were with us went to the tomb and found it just as the women had said, but him they did not see."
- 25 And he said to them, "O foolish one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 26 Was it not necessary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these things and enter into his glory?"
- ²⁷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interpreted 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 28 So they drew near to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He acted as if he were going farther,

- 29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 30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수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 32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 33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 34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 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 35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 **36**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 **37**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 39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 40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 41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 42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 43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 44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 45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 ²⁹but they urged him strongly, saying, "Stay with us, for it is toward evening and the day is now far spent."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 30 When he was at table with them,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 31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 32 They said to each other,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to us on the roa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 33 And they rose that same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y found the eleven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gathered together,
- 34saying, "The Lord ha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Simon!"
- 35 Then they told what had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he was known to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 **36** As they were talking about these things,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and said to them, "Peace to you!"
- **37** But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and thought they saw a spirit.
- **38**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doubts arise in your hearts?
- ³⁹ See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For a spiri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that I have."
- 40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
- 41 And while they still disbelieved for joy and were marveling, he said to them, "Have you anything here to eat?"
- 42 They gave him a piece of broiled fish,
- 43 and he took it and ate before them.
- 44Then he said to them, "These are my words that I spoke to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that everything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must be fulfilled."
- 45 Then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 46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 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 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 47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 48너희는이 일의 증인이다.
- 49[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 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 50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 **51**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 **52**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 53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 46 and said to them,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and on the third day rise from the dead,
- ⁴⁷and that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sh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 48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 49 And behold, I am sending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are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 50 Then he led them out as far as Bethany, and lifting up his hands he blessed them.
- 51 While he blessed them, he parted from them and was carried up into heaven.
- **52** And they worshiped him and returned to Jerusalem with great joy,
- 53 and were continually in the temple blessing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책망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5-26절)

How did the resurrected Jesus rebuke the two men on their way to Emmaus after hearing their conversation? (24:25–26)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식사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 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What happened when the resurrected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broke it, and gave it to the two men at the meal? (24:3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지동규(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최후의 승자

The ultimate winner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변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웃음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승자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한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에 속한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린 비겁한 빌라 도는 자신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주 먹으로 치고, 침 뱉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부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자기들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후로 웃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최후로 웃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최후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The hearts of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re always filled with joy. No matter what,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in life, they never lose joy. They do not despair or give up easily. They are not capricious according to their moods or emotion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ells us that God has given us the last laugh. There is a saying, "The person who laughs last is the ultimate winner." In that sense, God is the ultimate victor. At that time, the council members belonging to the Sanhedrin, the highest body of Judaism, who judged Jesus, thought they were the last to laugh.

Cowardly Pilate who sentenced Jesus to be crucified even though he knew Jesus was innocent, thought he was the last to laugh. Even the Roman soldiers who whipped Jesus, punched Him, spit on Him, ridiculed Him, and finally crucified Him, thought they were the last to laugh. But it is God who laughs last.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tomb, laughed for the last time. All Christians who participated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ill have the last laugh: we all will be the ultimate winn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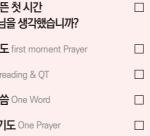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l 누가복음 5:1-11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잃어버린 아버지 | 누가복음 15:25-32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공평함의 복음 I 누가복음 1:46-56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닭 울음 소리 l 누가복음 22:31-34, 54-62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497장(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복음성가)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1 여는 질문

있는 힘을 다해 애쓰고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 두 척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말씀을 가르치신 후,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4절)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진맥진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편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5절)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수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들을 배 두척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바닷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7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나는 죄인이로소이다"(8절)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1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 모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복음서 기자와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4:19; 막 1:17). 따라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사람 낚는 어부'(fishers of men)라는 표현을 '사람을 [산 채로] 취하는 일'(catching men)로 바꾼 것입니다(아쉽게도 개

역 성경에는 '산 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희랍어 단어('조그론')의 뜻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생포하다'(딤후 2:26)로써 칠십인역(LXX)에서는 흔히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민 31:15, 18; 신 20:16). 그러므로 누가복음서기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름 아닌 사람을 생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도자입니다. 즉, 전도란 사람을 생포하여 죄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3 말씀 속으로

- 1.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 2.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크게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절)

4 삼속으로

- 1.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허탈한 삶이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2.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전적인 포기가 제자직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5 암송 구절 - 누가복음 5:10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6 자녀와 나눔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아버지



새299장(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오오

1 여는 질문

아버지가 나로 인해 기뻐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면서 투덜거리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존재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당시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변합니다. 맏아들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29~30절). 이 말속에서 맏아들은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지만 실상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즉, 맏아들의 생각에 아버지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맏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맏아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28절). 맏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들어와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말에 발끈하여 아예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그를 권했습니다. 여기에서 '권했다'는 말의 희랍어 동사는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호소하다, 간청하다는 뜻과 더불어 달래다, 위로하다, 초청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바로 여기에서 '보혜사'를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참고. 요한복음 16:7). 맏아들의 반항에 대해 아버지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호소했고 사랑으로 달랬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31-32절). 아버지는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얘(my son)"라고 부르

셨는데, 아버지가 한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래서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또 너도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말속 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음에 품고 살던 두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한 암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 다. 종에게는 품삯이 주어지나 아들에게는 유산이 주어집니다.

3 말씀 속으로

- 1. 맏아들이 분노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9-30절)
- 2. 그렇게 분노하여 투덜거리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31-32절)

4 삼속으로

-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면, 평소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인처럼 의무감에 붙들려 섬김과 복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처럼 기쁨으로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있습니까?
- 2.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5 암송 구절 - 누가복음 15:31-32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 하다.'"

6 자녀와 나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린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아빠가 나로 인해 가장 기뻐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공평함의 복음



새117장(통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새120장(통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새126장(통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1 여는 질문

이민생활 중에 억울하게 차별을 당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본문은 '마그니피카트'(Magnificat)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명칭은 라틴 어로 된 '벌게이트'(Vulgate) 성경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주를 찬양했다"라는 문구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찬가의 내용은 본문 51-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평등화'(equalizing), 혹은 '동등화'(leveling) 사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이며, 주린 사람을 배부르게하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될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누가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 메시야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처음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힘 있는 자들'로부터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계급차별, 지식차별, 외모차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중에 차별과 싸우시고 친히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함의 복음은 모든 차별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곧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장차 이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알고 찬송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온 세상에 평등과 동등의 가치를 구현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등함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3 말씀 속으로

- 1. 마리아는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8절)
- 2.다음()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 자들을 흩으셨고 ()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 자를 높이셨고 ()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51-53절)

4 삼속으로

- 1.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화의 복음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5) 암송 구절 - 누가복음 1:51-53[°]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6 자녀와 나눔

누군가 나를 차별한 적이 있었나요? 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었나요? 무슨 이유로 차별했나요?

4

닭 울음 소리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새465장(통523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1 여는 질문

누군가에 의해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31-32절).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앞날을 내다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종종 사탄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지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만심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일종의 허황된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34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주변사람들 눈치를 보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앉았는데마침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라"라고 다그치자 그 자리에서 정확히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심히 통곡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통곡의 회개로 이끈 것은 예수님을 세 번씩 연거푸 부인했던 그를 쳐다보는 주님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닭이 울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닭 울음소리는 자만심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일깨운 소리였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베드로를 일깨운 소리였습니다. 결국,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훗날 그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위에서 복음 전파의 선봉 장이 되게 했던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3 말씀속으로

- 1. 베드로는 닭울기전, 몇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34절)
- 2.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62절)

4 삼속으로

- 1. 금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혹시 한 해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2.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 한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마음을 돌이켰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 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22:61-62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 통하게 울었다."

6 자녀와 나눔

올 한 해동안 누군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You will fish for people"

1 Opening Ouestion

Share an experience when you tried your best and didn't get the results you desired.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One day Jesus saw two boats on the Sea of Galilee (Lake Gennesaret). While the fishermen were washing their nets when they got off the boat, Jesus got into Simon Peter's boat and taught them the Word. Without any explanation, Jesus told Peter, "Go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5:4). In fact, they had fished all night, but did not catch a single fish. Thus, in the morning, exhausted, they were washing their nets. Jesus knew the situation and said to Peter, "Go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Then Peter answered, "Teacher, we have toil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s" (5:5).

In obedience to Jesus' command, Peter got into the boat and lowered his nets into the depths of the water. As a result, he caught so many fish that the nets were torn. Unable to do anything on his own, he turned to James and John, his partners in another boat, for help. He filled two boats with the fish he had caught, and the boats were submerged in the sea (5:7). Then Peter fell down at Jesus' knees and confessed, "Depart from me, Lord, I am a sinner" (5:8). After that, all of them brought their boats onshore, left everything behind, and became disciples of Jesus.

He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to Simon Peter, "Do not be afraid, for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5:10). Regarding the same incident, the writers of Matthew and Mark recorded Jesus saying,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C.f. Matt 4:19; Mark 1:17). Therefore, the writer of Luke changed the expression "fishers of men" to "catching men [alive]." (Unfortunately, in the ESV, the Greek word "zogron" which means "alive" was not translated literally.) The original meaning of this word is "to

be taken alive" (2 Tim 2:26), and is often used in the Septuagint (LXX) to mean "to deliver life from danger." (C.f. Num 31:15; Deut 20:16) Therefore, according to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a disciple of Jesus Christ is an evangelist who brings people alive and leads them to salvation. In other words, evangelism is about taking people alive and delivering them from the dangers of sin and death.

3 Into the Word

- 1.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o labored all night and did not catch any fish? (5:4)
- 2.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o was shocked to see so many fish caught that the nets were torn? (5:10)

4 Into our Life

- 1. The fact they caught so many fish that their nets were torn is a symbol of how empty the previous lives of the Galilean fishermen at that time was. This amazing miraculous event made a huge difference in their lives. If you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change in your life since meeting Jesus, please share.
- 2. Luke 5:11 says,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and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Jesus." This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total renunciation of possessions is a prerequisite for discipleship. Please share what you will give up to follow Jesus.

(5) Memory Verse - Luke 5:10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Share how you have changed since you believed in Jesus?



Prodigal Father

1 Opening Question

Please share something you did that made your father happ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 the older son, who grumbled in anger over his father who had prepared a big feast for his younger brother, his father was nothing but lost. The older son in this parable represents the Pharisees and scribes, the self-proclaimed righteous people of that time. The older son said. "I have served my father for many years, and I have never disobeyed his orders, but he never gave me a young goat so that me and my friends could enjoy it. When this son who squandered his father's livelihood with prostitutes came back, he killed a fattened calf for him!" (15: 29–30). In these words, we see that the older son never left his father's arms, but in reality, he lost his father. In other words, in the opinion of the older son, the father was not an object of love and respect, but of service. He was like a master who gave strict order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way a father treats his older son who has lost his real father. "[The eldest son] was angry and would not go in, but his father came out and persuaded him" (15:28). The eldest son was furious at the news that his father had held a feast when his younger brother returned and had no intention of entering the house at all. Then his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and encouraged him. Here, the Greek verb for "recommendation" is "parakaleo", which means to appeal, to plead with, as well as to appease, comfort, invite. (The word "Comforter" came from the word "parakletos" [C.f. John 16:7]). The father did not command the rebellious older son. On the contrary, he appealed and comforted him with love.

The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and comforted the eldest son, saying: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and he was lost and is found" (15:31–32). His father called him "my son" in a sweet voice, and he said, "You are my son and I am your father," meaning "you are always with me, and I am always with you." In particular, we see that in the words "all that is mine is yours," there is an allusion to his desire for the inheritance that the father will leave to his two sons. A slave is given a wage, but a son is given an inheritance

3 Into the Word

- 1. Why was the firstborn son angry and did not go into the house? (15:29-30)
- 2. What did the father say to the eldest son who complained in anger? (15:31-32)

4 Into our Life

- 1. If God is my father, how do I usually deal with God the Father? Are you just serving and obeying Him like a servant, caught up in a sense of duty? Or are you giving Him love and respect with joy like a son?
- 2. Please share the problems the inertia-soaked religious life has.

Memory Verse - Luke 15:31-32

"And he said to him,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It was fitting to celebrate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he was lost, and is found."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as there something that pleased your father? What is the most recent thing you have done that pleased him?



Gospel of Equality

1 Opening Question

If you have been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during your immigration life, please shar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ext is the Hymn of Mary, known by the name of the Magnificat. This name is derived from the phrase Mary "praised the Lord" in Luke 1:46 of the Latin Vulgate Bible. The content of the hymn that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are verses 51–53.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This song reveals that when Jesus comes into the world he will do the work of "equalizing" or "leveling". In other words, the song refers to the work of lowering the high and exalting the low, making the hungry full, and sending the rich away empty—handed, so that all people will be equal before God. In fact, this is the core of the gospel that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is trying to convey through Jesus. But these words are similar to Isaiah 40:3–5, which the prophet Isaiah had long ago prophesied about the Mess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up,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rough ground shall become level, the rugged places a plain.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and all people will see it toge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discrimination from "the powerful" has existed in this world. Even now,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racism, sexism, economic disparity, class discrimination, knowledge discrimination, and appearance discrimination. During the ministry of his public life, Jesus fought against discrimination and eliminated discrimination

himself. Therefore, Jesus Christ's gospel of equality directly rejects all discrimination.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is the vision Jesus had. Mary had testified with her hymns, knowing in advance that baby Jesus in her own womb would do this in the future. Jesus Christ is the one who embodies the value of equality in the world. Therefore, all Christians must be messengers of this gospel of equality.

3 Into the Word

- 1. Mary sings in Luke 1:47, "My heart rejoiced in God my Savior." Why? (1:48)
- 2. Please fill in the blanks: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 He has filled the ()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 away empty. (1:51–53)

4 Into our Life

- 1. What are the fundamental reasons why people discriminate against others?
- 2. Let's share what the church should do when faced with the gospel of equalization of Jesus Christ.

5 Memory Verse - Luke 1:51-53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s anyone ever discriminated against me? What did you think at the time? Or, have I ever discriminated against others? Why did you discriminate?



The crowing of the rooster

1 Opening Question

Have you ever been betrayed by someone? Please share how you felt at that tim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esus gave Peter this warning: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manded to sift you like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When you have turned back, strengthen your brothers" (22:31–32). Jesus spoke these words looking into the future of Simon Peter. It is a promise that Jesus will keep praying for him even though Peter will be often tempted by Satan.

Peter must have been conceited after he heard the words of this promise. So he cried out,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It's kind of like a false promise. Hearing his words, Jesus said,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that you know me three times" (22:34). Not surprisingly, when Jesus was arrested and entered the high priest's house, Peter followed him from a distance. Then he sat among the people who were sitting around the fire. When people recognized him and insisted, "You were with him, too," he denied Jesus exactly three times on the spot. At that very moment, the rooster crowed. Then,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Peter, he remembered what the Lord had said,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In fact, what led Peter to weeping repentance must have been the Lord's gaze on the one who had denied Jesus three times in a row. However, if the rooster hadn't crowed at that moment, he might not have remembered the words of the Lord. The crowing of a rooster awakened Peter from his pride. The crowing of a rooster was a sound that awakened Peter, who had not prayed but depended on his own strength. In the end, the crowing of a

rooster was like the merciful voice of the Lord who made Peter realize his own weakness, develop his strong faith, and become the vanguard of evangelism.

(3) Into the Word

- 1. How many times did Peter deny that he knew Jesus before the rooster crowed? (22:34)
- 2. What did Peter do when he heard the crowing of a rooster and remembered what Jesus had said? (22:62)

4 Into our Life

- 1. Have you made any promises to the Lor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f there are any promises you haven't kept in the past year, please share them.
- 2. Hearing the rooster crow, Peter came to his senses, thoroughly turned away from his sins and repented. Please share what you experienced during the year when you were reminded of the Word of the Lord and changed your heart through some intermediary.

5 Memory Verse - Luke 22:61-62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saying of the Lord, how he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you have not been able to keep a promise you made with someone over the past year, what is the reason for not keeping your promise?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3022587 Country: Honduras

Serving At: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Home Country: Costa Rica - San Josè

Jimenez Rojas, Yorleni R.

Yorleni R. Jiménez Rojas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the mission program director for the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She is based in Tegucigalpa, Honduras.

Ms. Rojas' program focuses on congregational development. Her primary responsibilities are developing, promot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strategic directions for programming; working with Honduran entities in advancing general programming; and identifying and administering mission funds congruent with programming.

Although Methodism came to the northern coast of Honduras 100 years ago through British Methodism, and later with the Methodist Church of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it is fairly new for the Honduran Spanish-speaking community. The mission in Honduras began in 1998. In 2002, the Honduras Initiative officially became a United Methodist mission. It currently includes 19 congregations and 53 faith communities. As an emerging new church, the mission is showing urgent need for pastors and the development of clergy and lay leadership.

The Honduran Mission constituency is largely composed of economically marginalized people with limited formal education. One area getting Ms. Rojas' attention is in-country networking and alliances with other secular, nongovernmental and Honduran religious organizations. Fostering those relationships not only strengthens the Honduran Mission with national

resources, but also continues to forge its Honduran identity and empowers the cultural aspect of the mission. Ms. Rojas' position is crucial in guiding the Honduran Mission to maturity.

Born in Costa Rica, Ms. Rojas was 8 years old when her family converted to Christianity. Passionate about studying the Scriptures, she said, "I had a burning desire to serve God." As a youth, she taught Sunday school and encouraged others to follow Jesus. Entering the university, she began studies in psychology and journalism. "I had a strong desire to help others," she recalled, "and psychology was a good medium for it. The journalism career I left aside because of economic limitations." She earned a psychology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Costa Rica and started pursuing a master's degree with an emphasis on the Old Testament.

Prior to her current assignment, Ms. Rojas was a psychotherapist at Casa Main Project, working with girls ages 2 to 12 who had suffered abuse. She helped to plant and served as a pastor of Jesucrista Pan de Vida (Jesus Christ Bread of Life), an independent church. In charge of Christian education, she also preached. She experienced what she called "a second stage of questioning in my Christian pilgrimage, which had been characterized by much service. I began a search to find a genuine Christian spirituality, centered on being and not so much on doing (activism)," she said. "This helped 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human nature, in contrast to the divine nature, and to be able to resize issues such as faith, grace, salvation and mission."

Confronted by multiple losses, Ms. Rojas entered what she termed "a time of dispossession, where only the grace and love of God sustained me. God comforted me and guided me through a process of healing and freedom, and made me resize my ministerial call," she said. "My fervent desire is to arrange my life so that God's purpose is fulfilled in me, and that everything he has given me is at his service."

Ms. Rojas has a daughter, Rebeca, who is a member of Comunidad Cristina Perdonados para Servir (Community Cristina Forgiven to Serve) in San José, Costa Rica. The church is part of an independent denomination.

Contact Info: yjimenezrojas@umcmission.org

우리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중보기도

김영봉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 VA)



중보기도란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 혹은 사 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는 모두 중보기도인 셈이다. 특별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백 성들을 위해 중보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하다(출 32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노 여워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한다. 결국 그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은 화를 거두셨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 청한 것 역시 중보기도에 속한다(창 18:16-33).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눅 22:32),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요 17장)'를 드리셨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원리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다. 예컨대 '하나 님이 나보다 더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계실 텐데 내가 굳이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가?', 혹은 '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 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청원기도를 올릴 수 있는 가?' 등등.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내 경우에도 중보기도가 가장 어려웠다. 나중에야 깨달은 사실은 중보기도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고(고전 8:1)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논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다. 사랑이 있는 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도 중보기도가 터져 나온다.

또한 중보기도는 믿음의 문제이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 중보기도가 실제로 그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실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우직하게 믿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임명받았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벧전 2:9, 계 1:6), 제사장 직무의 중심은 중보에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중보기도에 대해 고민하던 중 깨달은 게 있다.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다는 점이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영성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우주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의식 불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영혼이 벌이고 있는 사투에 참여하여 돕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하여 힘을 북돋아 준다면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중보기도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몇 가지 안내를 따라 훈련해보기를 권한다.

첫째,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기도 전에 잠시 그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 그때 입을 열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 사 랑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둘째,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맡기라. 중보기도 에서도 기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그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의 영성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초점을 두라. 그에게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빌고, 그 영적 능력으로 그가 봉착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중에 찾으라. 중보기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주는 '부수적인 은혜'이다.

넷째, 기도의 관심을 넓혀 가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통곡하셨었다(눅 20:41-44). 우리도 중보기도에 '거대 관심'을 담아야 한다. 주님처럼 민족과 인류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중보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임을 믿어야 한다.

다섯째, 중보기도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을 별도로 할애라. 관심을 넓혀 가다 보면 중보기도의 대상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 이 많은 대상을 위해 충분히 기도 하려면 목록을 만들고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좋다. 이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중보해야 할 사람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없는 말로 명단을 훑어 내리고 만다. 이 경우, 중보의 책임을 다했다는 자기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기도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의문이다. 중보기도의 대상을 몇 그룹으로 나누고 하루에 한 그룹을 위해 중보함으로써 각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섯째,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도 대상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강한 연대감이 형성된다. 기도사역으로 형성된 연대 감은 강력할 뿐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된다.

일곱째, 중보기도의 순간을 포착하라. 중보기도 방식 중에 소위 '총알 기도(canon prayer)' 혹은 '화살 기도(arrow prayer)'라는 것이 있는데, 즉석에서 짧게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가 필요한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 순간이지나고 나면 기도할 기회를 잃는다. 그 기도는 비록 짧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모두 중보기도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 중보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 기도로써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라는 고귀한 부름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 중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세인 것이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11

피할수 없는광야, 피할수 있는광야

이진희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두 번의 큰 광야를 경험했다. 첫 번째 광야는 출애굽 광야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시나이 광야를 통과했다. 두 번째 광야는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기 광야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났던 광야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광야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광야였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없었던 광야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광야였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겪지 않았을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불신 불망 불명 불 순종을 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40년이 나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거민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 광 야로 들어가 70년동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들이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난 이야기다.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곳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갔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에 돌아가도록 하셨다.

모세는 한순간의 실수로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광야에 모래 구덩이 속에 파묻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다. 가나안(이집트, 왕궁)에 되돌아간다는 것은 꿈도 꿀수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는 쫓겨서 들어간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들어간 광야였다. 하나님은 그를 첫 번째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이다. 첫 번째 광야는하나님 없이 지난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하나님과 함께 한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한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한 일이하나도 없지만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있게 했다.

모세의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광야와 같은 광야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통과한 광야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광야를 연상시킨다. 모세는 사람을쳐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광야에서 빠져나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쓰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나와 출애 굽을 이루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광야는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해야 하는 광야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지났던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셨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시로 말씀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율법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기적이 다반사였다. 매일 기적을 보며 살았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일체를 다책임져 주셨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살 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냈는 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들어간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

야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나님이 첫 번째 광야 에서처럼 나타나시지 않았다.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 때도 그랬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광야는 심판을 받고 있는 광야였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라고 들여보낸 광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들여보내신 광야였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지났던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한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멀리멀리 계셨다. 안 보였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달려오셨는데, 두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져서 죽어도 하나님은 모르는 체하셨다. 징벌의 광야, 심판의 광야였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다 첫 번째 광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부 재,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광야 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정신을 차렸다. 회개했다.

그러면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복역의 기간"을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으로 단축시켜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처음에 선고한 대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야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2년에서 40년으로 형이 늘었지만, 두 번째 광야에서는 모범수였는데도 70년 형을 다 채운 다음에야 풀려나게 하셨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나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구원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에 머물러야 한다. 가나안을 지켜야 한다. 그곳에서 kick out 되면 안되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은 계속 불신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만 했다.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바벨론에서 지낸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 나라를 잃었다. 나라가망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 아오실 것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자 회당을 세웠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광야를 지나면서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가나안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이 없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탈무드도 이 시기에 기록되었다. 바벨론 포로기에 진정한 영적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시작되었다.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교가 시작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첫 번째 광야(출애굽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다.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바벨론 포로)를 지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 신앙이 700년 이상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진짜 밀월 기간은 출애굽 광야도 아니었고 가나안 정착 시대도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광야 시기에 영적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실망시켰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바벨론 포로)를 지나면서는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님 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광야는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광야였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광야가되게 해야 한다.



소그룹(속회)을 운영할 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교인들을 소그룹(속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문제, 소그룹(속회)원들을 격려하는 효과 적인 방법,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 1 어떻게 권면해야 소그룹(속회)에 참여할까요?

소그룹 리더(속장)로서 처음 또는 지속적으로 교인들이 소그룹(속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회의 소그룹(속회)이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그룹(속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속회)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권면을 위해선 소그룹(속회)에 대한 리더 (속장)의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간증을 준비하여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속회)은 위로와 힘을 얻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곳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회는 위로와 힘을 얻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를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소그룹(속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위로와 힘을 얻는 곳입니다. 리더(속장)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온 소그룹(속회)원들이 함께 위로하고. 붙잡아 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가운데 문제를 이기게 되었던 구체적인 간증들을 확신을 가지고 소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9~10

소그룹(속회)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참고합니다. 이 러한 지혜를 모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속회)입니다. 소그룹(속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신앙적인 분별과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게 될 때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논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15:22(새번역)

소그룹(속회)은 거룩함(성화)을 이루어 가는 상호 돌봄이 일어나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 생존경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곁에 있는 이들을 동료이기보다 경쟁자로서 인식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내어 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하며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아픔과 상처는 치유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소그룹(속회)입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잠언27:17(새번역)

문제 2 소그룹(속회)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겨워하고 있는 소그룹(속회)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소그룹(속회)원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위해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작은 장점이라

도 찾아서 칭찬하면 소그룹(속회)원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에 허물이 있다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덮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위해선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격려는 도리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더(속장)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격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13:13~15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대부분 격려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청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경청이 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 느낌과 감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속장) 는 소그룹(속회)원이 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까지 그냥 들어 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격려는 이해를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동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작은 카드에 손글씨로 메시지를 적어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 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내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격려의 방법 입니다.

문제 3 소그룹(속회)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그룹(속회)은 여러 다양한 신앙의 수준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선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갈등은 철저하게 소그룹(속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다 보면 말씀 앞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성향들로 인해 관계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적인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목회자와 상의하며 반드시 소그룹(속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노력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갈등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원들간의 표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 그 원인과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면한 갈등이 비판과 정죄로 끝맺어지는 것이 아 니라 각자 마음의 '쓴 뿌리'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속회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갈등의 문제 이면에 있는 각자의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로의 깊은 감정들이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표출된 갈등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리더(속장)는 갈등해결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그룹(속회)원들 사이에 상호 책임성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해결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의 과정 가운데 소그룹(속회)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열어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듣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리더(속장)는 평신도 사역자로 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후속 조치와 상호 책임의 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갈등해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갈등의 해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 내의 갈등과 긴장을 인정하고 용인하면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갈등의 문제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믿음상(간증) - 전체 1등)

네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마라.(Part 2)

박현숙사모(가나연합감리교회, VA)

나는 위태로운 사역지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앞에 COVID-19이라는 괴물이 찾아왔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였다. 죽기 전에 마지막 봉사를 결심했다. 뱀이 나올 정도로 자라버린 1.5에이커의 교회 잔디밭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털썩주저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남편은 팔을 끌어 말렸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홈리스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봄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나는 자고 나면 한 뼘씩 자라있는 잔디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구름이 무등을 태워 대신 일해 주었다. 나는 구름 위를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엇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았다. 교회문은 닫았으나 하늘문은 열려 있었다.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충성스러운 권사님 한 분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직장암이라고 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데다가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했다. 남편은 곧장 기도원으로 향했고 금식을 시작했다.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식을 했다. 누군가를 살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밥해줄

사람이 없는 그녀를 위해 나는 한 달 동안 밥을 지어 날랐다. 식은땀이 겹줄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알 턱이 없었다.

이웃교회에서 생활비를 보내 주었다. 특별히 ㅅ교회 K목사님은 내 상황이 긴박할 때마다 그랬다. 다 알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처음이 아니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되었다. 내 앞에 지나가는 배고픈 이들에게 무수히 밥을 먹였더니,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하셨다. 나는 그사랑 때문에 걱정 없이 아플 수 있었다. 이슬도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지나가던 조경회사 차가 8톤의 멀치를 공짜로 교회에 부려놓았다. 교회보다 큰 산이 넷이 생겼다. 우리는 새벽부터 땅거미 질 때까지 삽질을 했다. 높고 단단한 산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허물어지고 마침내 산은 옮겨져 있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였다. 그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믿음을 드렸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동산은 풍성해지고 열매들은 코로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라났다. 삽질은 살이 빠져 헐렁해진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운동이 되었다.

여러 해동안 교류가 없던 어느 분이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 중, 가나교 회가 계속 떠올랐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헌금을 보내드려요." 비가 새던 교회 지붕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딱 그만큼이 필요했었다. 여름장 마에도 걱정 없게 되었다. 세상은 코로나가 밀물처럼 덮어 버렸으나, 교회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천에 과일이 익어가고 채소들이 자라났다. 교회 동산에 물을 주는 일이 낙이었던 불쌍한 교우 한 분이 돌아가셨다. 또 장례가 났다.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고급진 도시락을 만들어 할아버지 배낭에 넣어드리고 영원한 나라로 소풍을 보내드렸다. 나는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바쁘셨다.

교회 공터에 놀이터를 짓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없고, 코로나 시기에

누가 온다고 놀이터를 짓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여름 땡볕에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모래와 멀치를 덮었다. 빨간 지붕이 올라가던 날, 남편은 '드림랜드'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이들이라야 고작 셋이었다. 한 가정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 입국도 어렵던 시기였는데 일사천리로 이민 수속을 밟았다고 했다. 아이들 둘이 늘어 다섯이 되었다. 갈 곳없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놀이터에서는 해 넘어갈 때까지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즈음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교회 아름드리나무들이 옆 건물로 넘어져 진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곱 그루를 베어내는 큰 공사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일군들을 돕다가 가장 큰 나무 밑동에 팔이 깔리는 대형사고를 당했다. 지게차가 와서 그의 팔을 꺼냈다. 팔은 멀쩡했다. 옆 건물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옆 건물은 '베트남 불교 미주본부'이다. 그날, 나는 잔디를 밀다가 언덕배기에서 몇 바퀴 굴렀다. 위험천만했다. 기계는 굉음을 내며 불꽃이 튀었다. '쾅쾅!!' 나는 풀떼기들을 떼어내며 사뿐히 일어났다. 옆 건물 스님들이 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이름을 조용히 드러내셨다.

남편은 '전교인 5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미국과 세상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주셨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왔다. 마침, 버지니아 주지사는 앞으로 3주 뒤부터 50명까지의 집합을 허용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날은 우리교회 '오십일 작정기도' 가끝나는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나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8월이 되어서야 병원에 가 볼 수 있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약물 치료에 들어갔다.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호르몬 문제, 갑상선 등 온전한 데가 없었다.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센서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빨간불이 켜지고 뚝뚝 떨어

지던 저혈당도 제 자리를 찾아갔다. 치료는 속했다. 회색으로 보이던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땅위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남편과 나란히 걷는 날이 많아졌다. 각자 살아내느라 서로 늙어 버린 것도 몰랐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려서부터 폐 기능이 좋지 않았다. 앉아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했다. 어렵고 힘든 가파른 사역의 길을 지친 몸으로 달렸으니 쓰러질만했다. 서너 걸음도 뗼 수 없었던 내가 언덕을 오르고 두 시간을 쉬지 않고 걷는다. 기적이다. 나는 이제 걷고 폴짝거리며 뛴다. 내리 달릴 수 있다. 폐기능은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었다.

일 년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님은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 르는지 지켜보고 계셨다. 긴박하게 써 내려갔던 유언장을 펴 보았다. 고통 과 고난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정지'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이었다. 나는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애 많이 썼다, 누가 알아 주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 고생 많았어, 잘 견뎌 내었다, 수고했어."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 있는 풀 한 포기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물며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묶어 놓았던 현실과 코로나도 나를 어찌할 수는 없었다. 내가서 있던 벼랑 끝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치유의 자리,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자리였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예레미야 29:11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코로나는 나에게 재앙이아니라, 소망이었다. 잔디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다시 시작이다. 4월이다.

[수필분야 - 소망상(1등)]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 욥기의새로운이해

정창호 장로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지난 12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지난 6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본문은 욥기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전례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절박감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가짐으로 욥기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의고난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실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욥기에 대한 나의 이해는 고난과 인내, 그리고 회복 및 축복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과 그의 세 친구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 했던 욥의 신앙을 저의 본으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라는 생각이 들때마다, 욥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므로 잘 이겨내면 더 나은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묵묵히 견뎌보려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

용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난 6월의 욥기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욥기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전제하였습니다. 첫째,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며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둘째는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로마서 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1:1에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라는 말씀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8, 2:3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There is none like him on earth)."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욥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욥의 의로움을 '세상에'라고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욥만큼 의로운 자가 이 땅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결코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 욥기 42:5,6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욥은 그의 잘못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 왔지만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며 바벨탑처럼 쌓여가는 자신의 의를 지키려는 삶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것을 죄로 단정하고 있으며, 욥은 이를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들 -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대신해서 빠짐없이 번제를 드림(1:5),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김 (23:12), 이웃에게 베푸는 일(24장), 지나친 금욕(31:1,2)과 구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는 일(27:4,5,6).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가 정금같이 빛나지기를 바라는(23:10) 기대(소망, 믿음). 이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욥의 열심과 기대를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지나온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을 좋아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욥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멘토 처럼 되었으며 그러한 욥을 본 받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32장 이후 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이 욥기 31장까지에 머무르게 한 것 같습 니다.

세 친구와의 변론이 끝난 후, 엘리후(32:2, 34:5,6,7)는 "나는 충분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라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으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음인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 하는 모든 행실과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려 하셨습니다(33:17). 모든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보내신 대속물과 중보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은혜(33:24,26)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속물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욥'을 거듭 책망(40:8)하셨습니다.

결국 욥기 42:6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 개하나이다"라고 욥은 말하였습니다. 한동안 욥은 무엇을 회개했을까 하 고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은 회개해야 할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의에 집착하고 자신의 의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의를 세우려 했던 지난날의 삶이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하고,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즉 스스로를 흙과 같이, 티끌과 재와같이 여기면서 회개하나이다(곧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주체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용기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한 후 다시 읽고 묵상하였을 때, 욥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사랑하셔서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없이는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성경 가운데 빛나는 신약이었으며,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욥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6월, 욥 기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지만, 욥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며,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자신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에 지불한 대가를 나의 의로 여기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나를 율법 아래 매이게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해 성취될 그 무엇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나의 신앙의 자세도 어쩌다가 생겨난 바이러스에 대해 내가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기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 갈수록 '나의 의를 세우려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려는 모습이 자주나타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함을 욥기의 묵상을 통해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4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40 per month

15권 매월 \$60 per month 20권 매월 \$80 per month 25권

매월 \$100 per month 50권 매월 \$200 per month

100권 매월 \$40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워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66 만나실수 있습니다. 99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한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백리한인연한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어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서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울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알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하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딱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감태준, 847-534-2826) 생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에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딱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주민,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록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이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무,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mark>정희섭, 201-767-1172)</mark>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하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웰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개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고린빌면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백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쌘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버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범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흥,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론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광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001-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13-14	08		9	08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23			
18		29-30	18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0		ТЗ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00
31		구절				31		66
		TE						00
2021/04			2021/05			2021/06		
	Bible	Chapter	2021/05 Day	Bible	Chapter		Bible	Chapter
2021/04	Bible			Bible 베드로전서	Chapter 1	2021/06	Bible 열왕기상	
2021/04 Day 01	Bible	Chapter H-1	Day 01		1	2021/06 Day 01		Chapter 1
2021/04 Day 01 02	Bible	Chapter H-1 H-2	Day 01 02		1 주일	2021/06 Day 01 02		Chapter 1 2
2021/04 Day 01 02 03	Bible	Chapter H-1 H-2 H-3	Day 01 02 03		1 주일 2-3	2021/06 Day 01 02 03		Chapter 1 2 3
2021/04 Day 01 02 03 04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Day 01 02 03 04	베드로전서	1 주일 2-3 4-5	2021/06 Day 01 02 03 04		Chapter 1 2 3 4
2021/04 Day 01 02 03 04 05	Bible M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Day 01 02 03 04 05		1 주일 2-3 4-5	2021/06 Day 01 02 03 04 05		Chapter 1 2 3 4 5
2021/04 Day 01 02 03 04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Day 01 02 03 04	베드로전서	1 주일 2-3 4-5	2021/06 Day 01 02 03 04		Chapter 1 2 3 4
2021/04 Day 01 02 03 04 05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Day 01 02 03 04 05	베드로전서	1 주일 2-3 4-5	2021/06 Day 01 02 03 04 05		Chapter 1 2 3 4 5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Day 01 02 03 04 05 06 07	베드로전서	1 주일 2-3 4-5 1 2 3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Chapter 1 2 3 4 5 주일 6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Day 01 02 03 04 05 06 07 08	베드로전서	1 주일 2-3 4-5 1 2 3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베드로전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Chapter 1 2 3 4 4 5 주일 6 7 8 8
2021/04 Day 01 01 02 03 04 05 06 07 08 09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베드로전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2021/04 Day 01 01 02 03 04 05 06 07 08 09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베드로전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6 5-8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7 9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5 2 3 4-5 1 1 7 2 3 4-5 1 7 1 7 1 1 7 1 1 1 1 1 1 1 1 1 1 1 1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4 15 16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7 9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5 7 9 9 1 1 1 2 4-5 1 7 9 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5주일 2-3 4-5 6-7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5주일 2-3 4-5 6-7 8-9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3 14 15 16 17 주일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5 9 2-3 4-5 6-7 8-9 10-11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11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주일 2-3 4-5 6-7 8-9 10-11 12-13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5 9 2-3 4-5 6-7 8-9 10-11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11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주일 2-3 4-5 6-7 8-9 10-11 12-13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11 12 11 12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5 9일 2-3 4-5 6-7 8-9 10-11 12-13 주일 14-15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19 20 21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11 12 1 2 주일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5 6-7 8-9 10-11 12-13 주일 14-15 16-17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열왕기상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3 14 15 16 17 주일 18 19 20 21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6 7 주일 1 1 2 3-4 5-6 7 주일 8 9-10 11 12 1 2 주일 3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1 5주일 2-3 4-5 6-7 8-9 10-11 12-13 주일 14-15 16-17 18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19 20 21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11 12 1 2 주일 3 4	Day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5주일 2-3 4-5 6-7 8-9 10-11 12-13 주일 14-15 16-17 18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열왕기상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19 20 21 21 21 주일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11 12 1 2 주일 3 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5 2-3 4-5 6-7 8-9 10-11 12-13 주일 14-15 16-17 18 19 20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열왕기상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19 20 21 22 1 주일 2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11 12 1 2 주일 3 4	Day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5주일 2-3 4-5 6-7 8-9 10-11 12-13 주일 14-15 16-17 18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열왕기상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19 20 21 21 21 주일
2021/0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에스라	Chapter H-1 H-2 H-3 부활주일 1-2 3-4 5-6 7-8 9 10 주일 1 2 3-4 5 6 7 주일 8 9-10 11 12 1 2 주일 3 4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1 주일 2-3 4-5 1 2 3 1 주일 2-3 4-5 1 1 1 5 2-3 4-5 6-7 8-9 10-11 12-13 주일 14-15 16-17 18 19 20	2021/06 D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열왕기상	Chapter 1 2 3 4 5 주일 6 7 8 9 10 11 주일 12 13 14 15 16 17 주일 18 19 20 21 22 1 주일 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레미야 운동)

 ❖ 편집기회
 김종완(느레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히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이광훈 목사 (콜로니얼 비치 연합감리교회, VA)

❖ 주일 칼럼

송종남 목사(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NY) 이승우 목사(워싱톤연합감리교회, MD)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Kore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새번역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